

제1절 고기잡이와 관련된 세 가지 구성 요소들

이윤선 | 남도민속학회 회장

제2절 목포의 세 군데 포구와 특징들

이윤선 | 남도민속학회 회장

제3절 조선소의 풍경

이윤선 | 남도민속학회 회장

제4절 그물 제작과 수리, 고기 잡는 풍경

이윤선 | 남도민속학회 회장

제5절 선구점을 중심으로 하는 일상적 풍경

이윤선 | 남도민속학회 회장

제6절 선주와 선장, 선원들의 생활사

이윤선 | 남도민속학회 회장

제5장 목포의 생산 풍속

: 포구와 선구점 민속

목포의 생산 풍속은 작게는 신안과 진도 인근의 바다, 크게는 서해와 남해를 넘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이르던 물고기 잡이 선박 및 선원들과 관련되어 있다. 서남해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 목포의 포구 민속을 거론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목포의 포구 민속을 제외하고 서남해도서지역의 어로 민속을 논하기도 어렵다. 서남해 도서지역과 목포 포구의 유기적인 관계망들이 촘촘하게 얹혀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섬에 거처를 두고 목포 포구를 기항지나 판매지로 삼았던 이들도 있고 아예 목포로 이주해 와 거점을 삼았던 이들도 있다. 예컨대 온금동이나 서산동은 조기잡이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해 도서 지역 주민들이 이주 해와 집단으로 주거지를 만들고 고기잡이를 했던 공간이다. 온금동과 서산동의 생산 풍속이 사실상 조도를 중심으로 하는 진도와 신안 각 섬들의 풍속과 크게 다르지 않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포의 세 군데 포구 모두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 각 섬들의 풍속이 목포라는 포구 공간으로 집산되어 씨줄, 날줄로 교직되었으며 수렴 및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본 장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면서 목포의 생산 풍속을 여객선의 의미가 강한 항구보다는 어선의 의미가 강한 포구와 선구점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 생활사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제1절 고기잡이와 관련된 세 가지 구성 요소들

고기잡이와 관련된 항목들은 대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배를 구성하는 요소들, 그물을 중심으로 하는 어구를 구성하는 요소들,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그것이다. 부가적으로는 잡은 고기를 판매하는 어판장과 고기를 팔고 사는 재화들로 구성되는 조합과 은행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장에서 다룰 것은 목포의 민속 문화 중에서도 포구의 민속이므로 전자의 세 가지에 집중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하기로 한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하면 어선, 혹은 상선이나 여객선 등의 선박이 되는 셈이다. 예컨대 어선 하나에는 목포의 포구를 관통하는 모든 일상사와 생활사가 집적되어 있는 캡슐이 들어 있다. 어선 한 척의 풍경은 목포 선창의 골목골목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가게들을 종합적으로 집산해 놓은 공간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 척의 어선은 다시 목포의 선창으로 돌아와 골목골목에 위치한 선구점 등의 가게를 통해 각각의 요소들로 분해될 수 있다. 하나의 배가 지어져서 바다로 나갔다가 수리를 위해서 목포항으로 들어오면 이들 각 골목의 가게들로 분해되어 맡겨지기 때문이다.

조선소라는 이름의 배를 만드는 곳에는 완성되거나 수리되는 배가 있고 그물을 만드는 곳에서 만든 새롭게 개발되거나 기왕에 사용하던 그물과 각종 소품들이 있으며 소개소나 일반 가게 등지에는 선원과 선단을 구성하는 선주, 선장, 선원들이 있다. 배는 풍선 시절의 풍선이나 닻 등의 목재 소품으로부터 근대 이후에는 엔진과 에프알피 등의 구성 요소들로 변화되어 온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마치 타임캡슐처럼 추적할 수 있는 콘텐츠다. 그물도 무명실이나 칠줄을 사용하던 전통 시대로부터 나일론실이나 납덩이를 넣어 만든 줄들로 변화되어 왔다. 다양한 어종의 고기잡이 방식이 변화되어 왔음을 그물을 통해서 추적해 볼 수 있다. 선원 또한 사공이라 부르던 선장 및 선원들로부터 서남해 각 도서 지역 어민들의 유입, 나아가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상용하는 형태들로 변화되어 왔다. 이 모든 네트워크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공간이 목포의 세 군데 포구이며 이른바 선창이라는 공간이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련의 활동들이 목포의 민속 문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른바 포구의 민속 혹은 선구점의 민속이라 이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목포의 세 군데 포구와 특징들

목포의 포구는 크게 세 군데로 구별해서 서술할 수 있다. 삼학도 등 작은 단위의 포구나 개별 공간은 생략하기로 한다. 가장 핵심적인 공간은 목포항이라 부르는 앞선창이고 그 다음이 뒷개라 부르는 뒷선창이다. 어민들이 포구나 항구보다는 선창으로 호명하는 사례가 많고 앞개나 뒷개보다는 앞선창 뒷선창으로 호명하는 사례가 많아 본 장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나머지 하나는 삼진 포구다. 앞선창은 안강망이나 유자망 선박들의 대형, 중형 어선들이 정박하거나 출발하는 공간이며 뒷선창은 통발이나 삼마이 등의 중형, 소형 선박들이 정박하거나 출발하는 공간이다. 삼진 포구는 가장 작은 소형 어선들이 정박하거나 출발하는 공간이다. 이 포구들의 지형에 따라 배를 만들거나 어구를 만들고 선원들을 모으는 풍경들이 달라진다. 세월호가 거치된 신항은 포구로써 기록할 만한 역사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의 작업에서나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1. 앞선창의 풍경

안강망, 유자망 등은 앞선창에 있고 통발, 낚시, 주낙 등의 중소형 어선과 그물들은 뒷선창과 삼진 소형 포구에 정박한다. 앞선창의 어구는 안강망과 유자망이 주류를 이룬다. 근래 이후 삼학도에는 어선들이 정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앞선창에 포함하여 서술한다. 삼학도는 마리나 항으로 개발 중이다. 서산동에서 만호동에 이르는 앞선창과 목포 역전에 이르는 원도심의 골목골목에는 어시장은 물론 고기잡이와 관련된 가게들이 포진해 있다. 물고기를 저장하거나 판매하는 시장들이 발달해 있다. 선창의 주요한 풍경은 바로 이 시장이다. 바다로부터 들어온 물고기들이 크게는 수협 어판장을 통해 작게는 이들 시장을 통해 경매나 도매 및 소매되기 때문이다. 이외 생활사와 관련해서는 여관, 식당, 술집, 다방도 즐비하게 포진해 있으며 밤 문화를 향유하는 오락 휴게 공간의 풍경들도 존재한다. 오랫동안 바다에서 생활하고 돌아 온 선원들이 휴식하고 향유하는 공간들도 선창의 중요한 풍경 중의 하나다.

어선과 관련한 가장 일차적인 풍경은 이른바 ‘시꼬미’라 불리는 준비 작업에서부터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잡이 하는 것까지 전반적인 어로 용품과 도구, 생활용품들을 준비하고 제공하는 가게들이다. 선구점이니 상회니 상사니 하는 이름들을 달고 있는 가게들이 대개 이들 풍경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다 전문적인 항목을 다루는 가게들은 철물점이니 엔진이니 피복이니 하는 이름들을 달고 있다. 엔진이나 기계를 전문적으로 다룬다든가 깃발을 전문적으로 다룬다든가 하는 유의 가게들처럼 유사한 가게들끼리 군집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목포 포구의 생산 활동이나 소비 활동은 이렇듯 어로와 관련된 용구나 용품을 만들어 내고 소비하는 공간들로 구성된다. 선구점이나 상회류는 이들 어선과 선원들의 종합적인 생활을 다루는 곳이므로 일종의 백화점 역할을 한다.

배는 조선소를 중심으로 하여 지어지거나 수리된다. 삼호조선처럼 대형 조선소가 있는가 하면 중형, 소형의 조선소와 하청 업체들, 수리 업체들이 있다. 이들 조선소는 앞선창, 뒷선창 등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외는 주로 그물이나 부대 용품을 다루는 공간들이 많다. 어선에서 소요되거나 소비되는 그물, 물레 따위는 물론 배 위에서 작업하는 모든 용구나 용품들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공간인 셈이다.

어로 용품이나 생활 도구만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조업을 하다 기상 조건이 나쁠 때는 휴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배 안에서 수요되는 엔터테인먼트 항목들이 있다. 만화책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어떤 이유로 어선이 해당 해역에서 가까운 섬에 접안하거나 정박했을 때 선장은 날씨를 예의주시하며 다음 일정을 준비하느라 잠을 자지 못하지만 일반 선원들은 휴식의 시간을 갖기 때문이다. 이때 만화책도 보고 노래도 부르고 자유 시간을 갖는다. 이때 사용하는 엔터테인먼트 용품들이 필요한데, 앞선창이나 뒷선창의 생활용품 가게들에서는 이 항목들도 다룬다.

목포 포구로부터 확산되고 수렴되는 인근 바다는 매우 넓다. 그 중에서 칠산 바다의 조기잡이는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어로 활동이다. 개항 이후에는 자망을 사용하는 닻배 조업을 많이 했으며 해방 이후부터 서서히 안강망, 유자망 등으로 변화해 왔다. 목포 초창기 어로 활동의 주축 세력이라고 할 만하다. 그 중의 일부는 목포항에서 온금동, 서산동을 중심으로 닻배조업을 하다가 정착한 조도 사람들일 것이다. 이들의 사례를 보면 툇 줄기예다가 줄을 맨다고 할 만큼 조업이 성행하는 시기인 3월 4월에 시아 바다와 칠산 바다로 출어한다. 출어를 위해서는 출어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선박을 중심으로 한 고사 즉 닻배 고사를 지내기도 했다. 각 선박에는 배의 신인 선왕을 모시기도 했다.

고사를 지내게 되면 출항 수일 전부터 몸을 정결하게 하고 준비를 했으며 무당을 불러다 고사를 지내기도 했다. 선주나 선장이 주축이 되기도 하고 선원 중의 한 사람 예컨대 식사를 담당하는 화장이 수일 전에 배에서 고사를 지내고 배를 정화하기도 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뱃고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깻대가 민속 의례 중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깻대를 단으로 묶어세우고 그 밑바닥에 평평한 판자를 덧대서 마치 띠배처럼 만든다. 이 깻대에 불을 붙여 연기로 배의 곳곳을 정화시키고 바다로 띄워 보낸다. 배를 정화하고 무사하게 출항하게 해달라는 고사인 셈이다. 물고기를 잘 잡고 선원들을 무사하게 해달라는 고사였다. 진도와 신안 등지의 어민들은 목포 포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정착하거나 임시 거처하며 어로 활동을 했다. 예를 들면 관매도, 거차도 등지에서 당골들을 모셔다가 굿을 하기도 했다. 이들 무당들을 전라도 무당 일반의 용어인 당골레라 불렀다. 이들은 목포를 포함하여 도서 지역 전반에 걸쳐 통혼 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뱃고사나 출어 고사, 풍어제 등의 의례는 진도나 완도, 신안 등지에서 행하기도 하고 목포로 들어와서 행하기도 했다.

2. 뒷선창의 풍경

이른바 뒗개라고 부르는 뒷선창도 앞선창의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선박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따라서 부대용품인 그물이나 생활 도구들이 달라질 뿐이다. 선박이 작고 그물이 다르니 응답 대상이 되는 어종도 다르다. 앞선창이 중형이나 대형 어선들이 있다면 이곳 뒷선창은 중형보다는 소형 어선들이 정박하는 곳이라 할 만하다. 목포시의 정책 방향에 따르면 앞선창을 마리나 향으로 개발하고 모든 어선들은 뒷선창으로 정박하게 한다고 한다. 선박은 크기가 비슷한 것끼리 정박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소형 선박을 앞선창에 정박시켜놓으면 큰배들의 출렁임 때문에 배가 손상되기 쉽다. 앞선창이 중형배를, 뒷선창이 소형배를 정박하는 데 유리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흔히 선외기라 호명하는 선박들은 뒷선창에 편중되어 있다. 소형 선박들은 거의 선외기라는 엔진을 장착하기 때문에 통칭하여 선외기라 부른다. 선외기는 당초에는 자동차 엔진을 장착하여 운영했지만 근자 들어 모

두 전용 선외기 엔진을 탑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선, 여객선, 통발선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은 앞선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신안군 압해도 항구가 발달하면서 여객선의 출입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화물선 또한 줄어들어 명실상부한 목포의 어선 포구로 정착해가고 있는 중이다. 뱃고사나 풍어제 등 의례 관련 민속은 앞선창이나 뒷선창이 크게 다를 것은 없다. 대신 수사자를 위한 혼건집 씻김굿이나 관련 의례들은 앞선창보다는 뒷선창이 더 활성화되어 있다.

3. 삼진 포구의 풍경

삼진산단 안쪽으로 작은 포구가 있다. 중형 조선소와 각종 어구, 어망 제작소들이 포진해 있으므로 선구들이 집중되어 있는 풍경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새우배들이 사용하는 선구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공간이 있고 그물만을 전문으로 하는 제작소나 수리소 등의 공간이 있으며 기계나 철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간들도 있다. 전통시대에는 나무로 만들었던 배들이 차차 철구나 에프알피 등으로 바뀌었으므로 이 풍경 또한 목재를 다루는 공간에서 철구나 에프알피를 다루는 공간들로 바뀌었다.

이외 앞선창에서 도매나 소매로 시장이 발달해 있다면 삼진포구는 규모도 작고 소형 어선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낙지 직매장 등이 운영된다. 신안군 각처에서 잡아온 낙지를 경매하는 곳이다. 이곳에는 삼마이 그물, 낙지 주낙, 외마이 그물, 통발 등의 어구를 다루는 배들이 정박한다. 중형이나 소형의 어선들은 계통발, 꽃계통발, 아나고, 새우 등을 잡는 그물과 어로 도구들이 실려 있고 이들을 다루는 가게들이 빼곡하게 포진되어 있다.

제3절 조선소의 풍경

조선소는 앞선창, 뒷선창, 삼진 포구 쪽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개항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앞선창의 비중이 커진다. 삼학도와 뒷선창, 해안을 둘러싼 시내 외곽으로 전통 목선을 목던 장소로부터 현재의 에프알피 조선소까지 나아가서는 현대삼호 조선소와 그에 종속된 하청 업체 조선소들, 개별적인 중형 조선소들까지 풍경이 이어진다. 목선에서 철선으로 다시 에프알피 선박으로 바뀌었으므로 조선소 또한 목선 제작소에서 철재를 다루는 제작소로 변화했다. 조선소는 배를 짓기도 하지만 배를 수리하는 공간을 수반하기도 한다. 철선이라도 목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목재나 목공소가 필요하다. 뒷선창에서 삼진 포구에 이르기까지 목공소들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에프알피나 철선일지라도 사람이 걸어 다니는 난간이나 휴게 공간은 거의 목재로 만들기 때문이다. 배를 수리하는 제작

소나 공간은 앞선창이나 뒷선창 삼진 선창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분포해 있다. 근자에는 순수하게 목선만을 만드는 곳은 없어졌다. 목선을 다루는 곳은 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복원하거나 삼학도 마리나에서 요트를 제작하는 정도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소의 풍경은 출어 고사나 기공식을 마치고 바로 고기잡이의 풍경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면 목포 포구에서 젓중선을 제조하고 나면 이 선박은 서남해 바다로 나가게 되고 젓새우 등의 고기잡이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때 멍텅구리배라고 하대하던 선박은 없어졌지만 물고기 잡이 방식은 지금도 유사하게 진행된다. 단지 선박이 바뀌었을 뿐이다. 신안군의 비금도와 도초도 등의 연안에서 무동력선을 이용한 고기잡이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고장 난 배들은 다시 목포 포구로 실려와 수리하게 된다. 흔히 중선이라고 호명하는 선박은 동력선이다. 절기에 따라서 고기가 어디로 먹는가(물고기들이 군집을 이루는 형태를 선원들은 이렇게 표현한다)에 따라 조선소, 수리소, 선구점이나 철물점 등의 운영이 활성화되거나 침체되거나 한다. 물고기 잡이와 목포 포구의 민속 풍경이 연동되어 나타난다는 뜻이다.

제4절 그물 제작과 수리, 고기 잡는 풍경

안강망, 유자망 그물을 제작하는 곳이 뒷선창에서 삼진포구까지 산재해 있다. 선주나 선장들이 그물을 제작하는 제작소에다가 주문을 한다. 선구점이 완성된 어구와 어민들의 생활용품을 파는 곳이라면 이곳은 그물을 제작하고 수리하는 전문 공간이다. 선원이나 선장 생활을 하다가 어로 활동을 중단한 사람들 중에서 개별적으로 그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많다. 선주나 선장은 제작소에서 그물을 제작하기도 하고 자가로 운영하는 곳에 개별적으로 주문을 해서 제작하기도 한다.

유자망을 예로 들면 1항차의 그물 기본이 100폭이다. 한 폭이 15발 가량 된다. 폭 수로 그물의 개수를 센다. 500폭이니 600폭이니 하는 유자망 그물의 경우에는 한 폭 한 폭을 이어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어로 작업을 하다가 흔히 그물이 상하게 된다. 그물이 상하게 되면 그 부분의 그물을 잘라내고 다시 이어서 수리하기 때문에 여벌의 그물을 어선에 싣고 다녀야 하고 손상된 부분이 많으면 뒷선창을 중심으로 하는 그물 제작소에서 새 그물을 마련한다.

돌덩이나 쇳덩이를 달아 그물 아래머리가 가라앉게 하던 방식에서 차차 진화하여 그물 줄 자체에 납을 넣어 제작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유자망 그물 아래머리 납줄 중량이 4킬로 정도 나온다. 돌을 채우거나 쇳덩이를 채우는 효과를 내게 되는 원리다. 이들 그물을 수리하는 공간들은 어구 종합 상사나 어망 종합상사 등의 이름을 갖고 운영한다.

그물코 수를 정한다. 같은 폭 수라도 코 수가 다르다. 예컨대 65mm를 쓰는가 더 작은 코 수를

쓰는가에 따라 큰고기를 잡을 것인가 작은 고기를 잡을 것인가가 결정된다. 65mm이하의 그물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선주의 역량에 따라 양보다는 질로 고기를 잡을 것인가 질보다는 양을 중시해 고기를 잡을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그물의 코 수나 폭 수를 정한다. 각각의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물만 보면 선주나 선장들은 어디서 그물을 꾸몄는지 대충 알 수 있다.

개항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물에는 뼈대, 유압 뼈대 등에 돌을 매달아 쓰는 사례가 보고된다. 아바줄, 아바툼이라고 하는 조기잡이 닻배 그물 즉 풍선 시절에는 그물의 옷벼리를 대나무로 아래벼리를 참나무를 사용해 툽을 만들어 썼다. 그물의 위쪽이 물에 뜨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다. 현대로 내려올수록 기술이 발달하고 지혜가 많아져 돌 다는 수를 적게 쓰고 납을 넣어 줄을 제작하게 된다. 그물에 돌을 매다는 것은 일손이 많이 가기 때문이다. 포구의 풍경이 대나무나 참나무를 많이 쌓아 놓고 판매하는 것에서 신형 그물이나 장비들을 쌓아 놓고 판매하는 선구점 등의 풍경으로 바뀌었다는 뜻이다. 한 마루에 납을 몇 킬로 쓸 것인가를 결정하여 그물을 제작하게 된다. 근해 조업인가 연해 조업인가 어종이 무엇인가에 따라 납을 넣는 양을 조절하여 그물을 제작한다. 납이 해당 어로 활동에 알맞게 들어가야 조업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이다. 안강망은 입구를 삼각형으로 짜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물 만드는 법이나 제작하는 법이 유자망과는 다르다.

그물에는 엮는 줄 외에도 소요되는 부대 용품들이 많다. 근자에는 부유식 툽을 만들어 사용한다. 바늘대, 그물을 엮는 실은 기본이다. 칸칸이 엮어야 하기 때문에 뒷선창이나 삼진 포구 풍경 중에 그물 꿰매는 풍경이 많다. 하루에 가장 많이 그물을 꿰는 사람들이 5폭 정도를 꾸민다고 하는데 많게는 일곱 폭을 꾸미는 사람도 있다. 그물의 수리는 수시로 이루어진다. 한번 조업을 나가서 200폭의 그물을 훼손하여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여벌의 그물로 조업을 지속하기 힘들다. 다시 목포로 들어와야 하고 그물 공장에 맡겨 수리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그물을 꾸미는 사람들도 많다. 목포 외곽이나 한적한 곳들에 쌓여있는 통발이나 그물을 볼 수 있다. 해안쪽이 아니더라도 시내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풍경들이다. 그물 공장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그물을 꿰서 만드는 집들인데 목포가 어선을 중심으로 하는 포구라는 점을 명료하게 해주는 민속풍경들이라 할 것이다.

그물의 손상은 그물이 닻이나 암초 등에 걸려 생긴다. 그래서 예비 그물을 가지고 다닌다. 세틀이나 네 틀을 기준으로 친다면 여분의 그물을 반드시 싣고 다녀야 한다. 처음에는 닻줄이 한 가닥에서 두 가닥 네 가닥 여덟 가닥으로 묶어진다. 근자에는 캔버스라는 형식으로 닻줄 대용을 만든다. 캔버스가 조류의 유입으로 벌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여덟 개로 묶어 V자 형을 만든다. 평소에는 그대로 있다가 조수가 들어오면 입구가 벌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캔버스를 제작하는 쥘대, 쌍갈래 등의

그물 어구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캔버스를 따로 제작하는 제작소가 있다.

이것이 나오면서 수해와 암해를 사용하던 납줄이나 아바줄의 사용이 없어졌다. 풍선 시절에는 수해와 암해를 만들어 썼다. 수해는 대나무로 암해는 참나무로 만들어 그물 입구가 벌어지게 만들었다. 차차 기술이 발달하여 근자에는 마루목으로 만들었다. 수해의 대나무가 뒤로 플라스틱 용구들로 바뀌었다. 선주나 선장은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들을 고안해 낸다. 항상 창조적으로 그물이나 어구를 만들어 내는 정신이 목포의 선주와 선장들, 그리고 선원들의 기본적인 생각들인 듯하다.

안강망은 기본이 두 틀 세 틀이라 할지라도 여분의 그물을 두 틀 정도 더 준비해 둬야 한다. 조업을 나갈 때 상한 그물을 그물 제작소에 맡기고 새 그물을 가지고 조업을 나간다. 소형 그물들은 거의 선주들이 제작한다. 삼마이 그물, 외마이 그물을 주문해서 제작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만든 것을 구입하기도 한다. 어로 활동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선박과 그물이다. 목포 선구점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풍경이 안강망, 유자망 등의 그물과 선박에 관한 것이고 이외 주낙배, 낚시 등의 풍경으로 이어진다.

그물의 사용은 철기에 따라 다르다. 목포 선원들이 하는 얘기 중에 흔히 삼마이와 고대거리는 솔 안쳐놓고 나간다고 한다. 수확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얘기다. 삼중의 그물로 된 것이 삼마이다. 외마이는 외쪽 그물이라는 뜻이다. 민어 그물, 갯 자망 등이 외마이다. 암초는 여틀이라고 한다. 여틀이어서 그물이 많이 상한다. 모래사장이나 여틀의 존재는 연근해에 조업을 오래 한 선장들이 상세히 알고 있다. 마치 무용담처럼 어로 활동을 얘기하곤 한다. 조업을 할 때 여틀이에서 좀 떨어져서 그물을 펴고 여치기를 한다. 여치기는 돌을 줄에 묶어 여틀이 주변에서 내려치는 것을 말한다. 고기들이 놀라서 달아나다 주변에 쳐 놓은 외마이 그물에 잡힌다. 민어 그물은 유자망과 그물 원리가 똑같다. 흘림 그물이라고 한다.

한 물때에 조업을 하는 것이 6시간 정도다. 조업을 하기 시작해서 6시간이 걸린다. 물고기는 흔히 물이 돌아갈 때를 기다려 그물을 던져야 수확이 많다. 물돌이라고 한다. 물이 돌아갈 때는 물의 힘이 약해져서 그물이 자망처럼 서 있다. 선장들은 이 물돌이를 잘 봐야 한다. 목포 인근의 물돌이는 근해와 연해가 2시간 이상 차이가 난다. 해안에서는 썰물이 시작되어도 연해에서는 썰물이 시작되지도 않고 오히려 역수하는 연근해 환경을 잘 인지해야 한다. 이 환경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물을 쉬이 손상시킨다.

안강망 그물도 보통 100m 이상 된다. 안강망의 캠퍼스 암해를 이루는 것들은 쇳덩이로 만든다. 가라앉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선 이상 대형 배들도 그물을 감기 시작하면 배가 상당히 기운다. 그물 사공이 따로 있는 이유다. 소형 배들은 그물 펴거나 걷을 때 사고가 많이 난다. 파도가 때려서도 배가 넘어가 버리고 그물을 잘못 펴서도 넘어간다. 병어 잡이를 할 때는 물이 가장 셀 때 그물을 놓기 때문에 위험하다.

꽃게잡이는 먼 바다로 나가서 잡는다. 가을철에 인천 덕적도 등지에서 잡다가 계절을 따라 내려온다. 진도 조도 근처에서 늦가을까지 잡는다. 새우를 잡는 배에서 소금을 몇 백 개씩 싣고 다닌다. 물고기를 잡는 즉시 절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배는 밥을 먹는 데 필요한 정도의 소금을 싣고 다닌다.

물고기를 잡는 시기도 중요하다. 3월 4월에는 주로 조기를 중심으로 조업이 이루어진다. 5월에는 부서 잡이, 7~8월에는 재원도 방면에서 병어, 민어 잡이를 하고 허사도, 칠팔도 등지에서 조업하다가 운반선이 오면 판매한다. 개항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 해당 철기에 이루어지는 파시에서 도매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었다. 해방 이후까지만 해도 가을에 조기잡이를 하지 않았는데 근자 이후로 봄 조기잡이와 8월에서 10월까지 가을 조기잡이를 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따라서 봄에는 알을 품은 조기를 잡고 가을 조기는 기름진 조기를 잡는다. 80년대 이후 가을 조기잡이와 봄 조기잡이로 나뉘었다. 부서가 가장 큰 것은 1kg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자연산은 중국 어민들이 비싼 값을 주고 사간다.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라고 한다. 중국산 양식 부세가 대규모로 수입되어 오기도 한다. 이처럼 그물과 관련된 서남해 도서 지역의 풍경은 그물을 만들고 수리하는 목포의 민속 풍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제5절 선구점을 중심으로 하는 일상적 풍경

1. 선구점 개요

선구점을 상징적인 표제어로 삼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가게들의 이름은 천차만별이다. 선구점에서 일부 그물을 수리하거나 공장으로 보내고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선구점, 철물점, 낚시집, 합동상회, 천막집, 장화, 피복, 깃발 등 이름을 세기 어렵다. 예를 들면 어망을 잃어버렸을 때 어망을 찾는 도구를 걸게라고 하는데 이런 도구들을 취급한다. 그물을 펴게 되면 깃발을 달아 열 폭 이상마다 하나씩 달아 표시를 하는데, 이 깃발도 취급한다. 부표용으로 기표를 달기 위해 사용하는 깃발을 기죽이라고 한다. 깃발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집만 해도 서너 군데가 넘었는데 근자에는 다 없어지고 천막집 한 곳이 남아 있다. 그물의 도난이 심하다고 하는데 일부 선장들은 중국 어선과 선원들을 의심한다. 물고기를 잡아놓고 태양열을 보지 못하게 덮어두는 도구인 햇별가리개도 필수적이다.

수산이라는 용어가 붙은 가게는 물고기와 관련된 집이고 낚시는 전문 낚시집들을 말하며 근자에는 외국선원 상품, 의복, 장갑, 장화 등 선원들이 사용하는 일체의 용품을 취급하는 곳이 늘었다. 배와 관련된 전기 전문, 엔진, 디젤 등의 가게들이 있다. 엔진이 고장 나면 조선소로 가게 되지만 일반

적인 기계가 고장 나면 여기서 수리한다. 로프, 선구, 메트, 고기 덮는 장비, 선박 부품 등 일체를 다룬다.

생활 잡화점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가게에서는 피복이며 장갑 등의 뱃사람 생활 전반의 용구를 취급한다. 앞선창에 있는 항동시장, 동명어시장(홍어가 특화된 시장임) 등에 생활용품 및 선구점, 그물집들이 즐비하게 있다. 철선들은 대부분 조선소에서 만들고 수리하지만 부분적인 것들은 선구점에서 취급한다. 페인트나 보일러 등이 그것이다. 일반 가정 살림하는 것의 축소판이 선상의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배의 주위를 천막으로 싸서 고정하고 운행을 해야 한다. 천막집이 많은 이유다. 이렇듯 앞선창의 대부분이 어선에서 사용하는 잡화를 취급하는 가게들로 이루어져 있다. 상회라는 이름을 가진 가게들이 그것이다.

기계과에 속하는 가게는 기계만을 다루고 전기과에 속하는 가게들은 전기만을 다룬다. 전문적으로 분화된 가게들이다. 꽃게망, 병어망, 투망, 유자망, 안강망 등의 그물을 취급하는 가게들은 그물 전문 가게들이다. 이외 도서 지역에서 소요되는 어로와 어구 관련 전반적인 용품들을 취급한다. 예를 들면 어장이나 김발 등에 소요되는 물품 등이다. 목포를 시장 삼아 어로나 어구를 구매하는 지역은 서남해 전반에 걸쳐 분포해 있다. 모두 목포항에서 취급한다. 섬사람들이 목포항에 나와서 구입해 가기 때문이다.

2. 만호동 김동윤씨 선구점의 사례

이 항목은 민속박물관에서 조사한 기존 자료를 인용해 정리한다. 현재 만호동의 물항장 주위로 20곳의 선구점이 있는데 그 중 16곳이 선구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 선구점이 한창 많을 때는 27곳까지 늘었다고 한다. 김동윤(49년생)의 평화선구점은 여객선 터미널에서 동명동 어시장 방향으로 500미터 정도 걸어가다 보면 있다. 3층에 간판이 걸려있어 무심코 건다 보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 평화선구점 양 옆의 상가도 현재 선구용품을 취급하고 있다. 선구용품은 그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선구점마다 취급하는 물건과 취급하지 않는 물건이 있다.

김동윤은 자기 가게에 없는 물건이 있을 경우, 다른 가게에 손님을 소개시켜 주기도 한다. 이 지역에서 오래된 선구점으로는 완도선구점이라고 있었다. 지금은 상호를 고려상사로 변경하였다. 완도선구점이 있기 전에는 목포낚시점이었는데 김동윤은 처음 목포로 왔을 때 그 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일을 배웠다. 당시에는 선구점이 7군데 정도 있었다고 한다. 선구점은 바로 앞의 물항장에 정박하는 어선과 인근 신안군의 도서 지역의 사람들이 주로 이용해 왔다. 과거에는 진도, 완도, 해남에서도 물건을 사러 왔지만 지금 연륙이 되고 육로가 발달하면서 수요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이 지역은 과거

목포에서는 가장 땅값이 비싼 곳 중의 한 곳이었다. 경기가 좋을 때는 평당 천오백만 원까지 했다가 지금은 7백~8백 정도로 떨어졌다고 한다. 앞으로 북향으로 어선이 모두 이동하게 되면 이쪽 지역에 남은 선구점은 영업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동윤은 75년 7월 15일 평화선구점을 시작하였다. 원래 고향은 완도 신지이다. 지금은 연륙이 되었지만 당시는 섬이었다. 당시 1965년 경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만 나오고 목포로 와서 점원 생활을 시작하였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완도 중학교만 나오고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없어서 그 당시 240원 여비만 가지고 여기 나와 남의 집에서 그 당시에는 종업원이라고, 점원 생활을 살았다. 그러면서 완도하고 목포하고 여객선이 있었는데 완도 사람들이 여기 오면 아는 체를 안했다. 남의 집 점원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집에 오면 밥도 해 주고 잠도 재워 주어야 하고 부담이 있고 해서였다. 고향을 벗어나 남의 집에서 점원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잘 했든지 못 했든지 다른 곳에서 월급을 더 준다고 해도 꼭 참고 월급이 적어도 그 집에서 점원생활을 계속했다. 그러면서 한 업종이 바로 선구점업이다.

점원 생활을 시작한 게 선구점이라 지금도 선구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당시 월급이 15만 원이었는데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5만 원이었고 논 한 마지기는 15만 원이었던 시절로 점원 월급으로는 적은 돈이 아니었다. 월급으로 보면 예전에 선구점이 어느 정도 호황이었는데 짐작하게 해준다. 김동윤은 월급을 받으면 시골 형님집으로 보내 논밭과 소를 구입했다. 점원 생활을 하면서 연탄 가스를 두 번이나 마셔 죽다가 살아난 적도 있지만 점원 생활을 성실히 해서 점주가 사위로 삼겠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다른 상점에서 월급을 3~4배 더 올려 주겠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한다.

점원 생활을 10년간 하고나서 독립하였다. 시골의 전답과 소를 팔아서 500만 원 정도를 마련하여 두 평 정도의 가게를 얻어서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과거 거래가 있던 회사를 찾아가 장사를 한다고 하면서 물건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 회사에서는 신용을 보고 12톤 차로 물건을 가득 실어 주었는데 당시 물가 파동이 일어나면서 물건 값이 급등하여 한두 달 만에 2억을 벌게 되었다고 한다. 선구점을 하면서 한동안은 어업을 병행하였다. 70년대 말에 한 공무원이 허가를 내고, 안강망 배를 만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배를 못 내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2억 4천만 원 하는 배를 1억 7천만원 주고 구입해 5년간 조기 어업을 해서 큰돈을 벌었다고 한다.

70년대 선구점은 1년 일하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잘 되었다고 한다. 고기가 잘 잡히니 배 띄우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은 어종이 많이 줄어들고 어획량도 줄다보니 예전만큼 어선이 많지 않다. 또한 예전에는 교통이 안 좋아서 진도, 흑산, 홍도 등 도서 지역에서는 선구를 목포에서 직접 구입해 갔지만 지금은 진도가 연륙이 되고, 해상 교통과 육상 교통이 좋아지면서 광주, 부산 등에서 사가기도 하고 전화로 물건을 주문하여 구입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영업이 예전만큼 잘

되지는 않는다.

김동윤은 요즘 시간이 나면 어망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직접 어망을 제작해서 배에 설치해 주기도 한다. 근래에는 어망이 어업 용도에 한정되지 않고 과수 재배에도 사용되고 있다. 과수나무 위에 어망을 설치하여 조류의 피해를 방지한다. 평화선구점에서 취급하는 물건은 현재 500여 종류이다. 선구와 관련한 모든 물건을 취급한다면 1,000 종류가 넘는다고 한다.

제6절 선주와 선장, 선원들의 생활사

선주하고 선장은 분리되는 경우도 많지만 근자에는 겹치는 경우가 늘어났다. 재력이 없어 선주를 하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재원의 융통이 생기면 선박을 마련하고 직접 어로 활동에 뛰어드는 사례다. 이를 자선장이라고 한다. 고기잡이 생활 자체가 큰 돈들이 오가는 업종이기 때문에 편차가 크게 일어난다. 예를 들면 보름 한사리에 엄청난 재력을 한꺼번에 얻기도 하고 사고나 조업 부실로 한꺼번에 재력을 잃기도 한다. 선주와 선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겹하고 있는 자선장이 성공하는 예가 많다. 선장을 오래 한 사람들은 선주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다고 한다. 그만큼 고기잡이와 포구 생활사에 대해 능통하다는 뜻이다. 그물이나 배의 정황을 선장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고기를 잡을 것인가, 어떤 해역으로 조업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배의 규모, 선원의 규모, 그물의 종류와 크기, 조업 일 수 등이 달라지는데 이 대부분을 선장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원을 투자한 한 선주라 할지라도 선장의 판단력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선원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포구의 중요한 민속 풍경을 만들어낸다. 선구점이나 피복(선원들의류), 잡화 가게 등이 앞선창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가게들이 선주, 선장, 선원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선원들 필수품 중에서 작업복(토시, 물옷, 비옷, 장화, 장갑 등)을 단골 가게에서 구입한다. 사실 고무장갑, 면장갑은 선내에서 둔하다고 해서 잘 끼지 않는데 선원을 새로 채용하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용품이다. 선원들 담배도 필수품에 속한다. 만화 가게, 담배 가게의 풍경도 포구의 한 풍경임을 알 수 있다. 배에서 먹고 자야 하기 때문에 선원들 이불도 필수다.

고기를 잡는 시기도 다르고 선단도 새롭게 꾸려지기 때문에 단기간, 장기간 등으로 나누어 노동하는 선원들이 포구에 밀집되어 있다. 이들을 잠자리와 먹거리, 놀거리 등을 위한 가게들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관이나 여인숙, 식당, 다방 등의 가게들이 운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 각각의 가게들은 선원들을 단골로 잡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이 바다에 나가는 과정으로부터 만선을 해들어오는 과정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선원들의 식사는 단골 식당에서 모두 배달한다. 선

원들을 중심으로 취급하는 식당이 그것이다. 선원들 뿐만이 아니라 포구에서 예컨대 조기를 따는 등의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도 한다.

선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인건비를 다루는 것이 어렵다. 개항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짓가림제로 선금을 나누는 경향이 많다. 근자에 이르러 조건부 인건비 등이 통용되고 있다. 선불 제도를 대부분 시행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많이 늘었다. 예컨대 기관장만 한국인으로 쓰고 조업하는 선원들은 외국인으로 쓴다. 해경에서 선원의 안전과 트러블 등을 관리한다. 선주는 이들 선원들의 숙식 제공은 물론 중앙 관리 단체에 수수료를 내는 등의 관리역할까지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수협중앙회의 관리와 연동되어 있다. 연안 안강망, 20톤 미만의 어선은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

일용직처럼 일회의 어로에 채용되는 선원들 중에 술을 잘 마시고 사고를 많이 치는 선원들을 ‘술통’이라는 비어로 부른다. 일종의 뜨내기 선원 취급을 하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예컨대 아침에 조업을 나가야 하는데 선금을 받은 선원들 중에서 술통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사례들이 있다. 선주가 선장에게 조업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주면 선장이 책임지고 시꼬미 등을 준비하고 선원을 마련하여 조업에 나가게 된다. 그래서 술을 어선에 싣기는 하지만 조업할 때는 일체 음주를 금지한다. 말썽 부리는 선원들이 생기면 골치가 아프기 때문이다. 근대적 풍경의 하나로 다방을 들 수 있다. 선창에서는 선박으로도 커피 등의 차 배달이 된다. 이른바 ‘술통’이라 불리는 선원들은 번 돈을 거의 다방이나 술집에 갖다 바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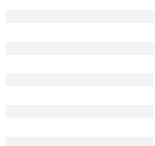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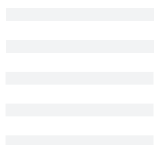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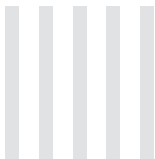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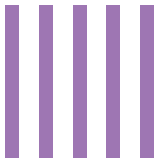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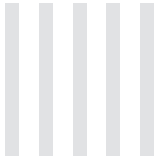
조업을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의 선단을 만들어야 한다. 배에서의 역할에 따라 기관장, 갑판장, 이 외 선원들을 잘 구성해야 한다. 배에 올리는 그물 등의 기본적인 용품은 선주가 준비한다. 선원들이 사용하는 부식, 주식 일대도 선주가 준비한다. 선박들은 일정한 선단을 형성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어로 활동을 하기도 한다. 선원의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선장의 판단력이다. 선장들의 순간의 판단력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가 한 순간에 갈리기 때문이다. 선원들 중에 바람 불어 정박했다가 출발할 때 사고가 나기도 한다. 배에서 제일 나이도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영자님이라고 한다. 어선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선원들간의 갈등도 상존하기 때문에 연배 많은 선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어구나 어선의 용품들이 고가이기 때문에 선장의 판단력이 중요하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조업을 하다가 목포 인근의 해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졸다가 사고가 나기도 한다.

배에서 사고나 병으로 운명하게 되면 조업을 중단하고 목포로 돌아온다. 풍선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시신을 소금으로 절간하여 이송하기도 했다고 한다. 시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신을 갖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 근자에는 해경에 즉시 보고하고 가장 빨리 목포항으로 들어와 조서를 받은 다음 장례 일정에 들어간다.

고기를 잡아 선창으로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 조기의 경우에는 자망이기 때문에 그물에 고기 따는 작업을 한다. 안강망은 강제식이고 유자망은 조류에 따라서 흘림기법으로 물고기를 잡기 때문에 선도가 다르다. 따라서 같은 어종이라도 안강망 어종과 유자망 어종의 가격이 다르다. 선도는 유자망이 훨씬 낫다. 안강망은 강제로 그물통 안에 가두는 형식이기 때문에 고기의 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흔히 비어로 사용하는 ‘술통’ 선원들이 조업을 마치고 들어오면 여관이나 여인숙에서 먹고 자면서 다음 출항을 기다리거나 새로운 어선의 선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다리기도 한다. 그래서 먹고 자고 노는 등의 포구 가게들에서는 이 선원들을 단골 손님으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일종의 직업 소개소의 역할을 대행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선원들이 외상으로 생필품이나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숙식을 하다가 선원으로 배를 타게 되면 그 외상을 갚는 구조다. 가게에서는 이 선원들 몇 명만 단골로 잡으면 운영이 쉬워진다고 한다.

이윤선 | 남도민속학회 회장



제1절 출생의례

정서경 | 목포대학교 교육혁신개발원 연구교수

제2절 성년식(관례)

정서경 | 목포대학교 교육혁신개발원 연구교수

제3절 결혼의례(혼례)

정서경 | 목포대학교 교육혁신개발원 연구교수

제4절 수연례

정서경 | 목포대학교 교육혁신개발원 연구교수

제5절 상례

정서경 | 목포대학교 교육혁신개발원 연구교수

제6절 제례

정서경 | 목포대학교 교육혁신개발원 연구교수

제6장 목포 사람들의 일생의례

: 성장하고, 혼인하고, 생을 마감하고 그 사후의 일까지

전통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삶에서 일생의 전 과정을 경과하면서 중요한 마디가 되는 고비에 치르는 의식을 관·혼·상·제로 구분하였다.⁰¹⁾ 관혼상제는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 사후 제(祭)의례까지를 포함했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출생부터 기념하는 날이 많아졌다. 또 이벤트 형식의 통과례들이 많아지면서 단계적 기념일이 추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포함하여 일생의례나 평생의례 또는 통과례라고 한다. 통과례는 사람이 출생하여 죽을 때까지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치러야 하는 의식을 뜻한다. 소중한 삶의 단계 즉 출생, 성년, 혼인, 회갑(칠순, 팔순), 죽음, 사후 처우 등에서 거행하는 조상들의 특별한 의례이다.

일생 의례는 그 과정과 내용 및 기능에 따라 이전에 속하였던 집단으로부터의 분리(分離) 의례와 새로운 집단으로의 이행을 위한 전이(轉移) 의례, 그리고 새로운 집단에의 통합을 위한 통합(統合) 의례로 나누어진다. 이 중 전이 의례는 산육속(産育俗)에서, 통합의례는 혼례속(婚禮俗)에서, 분리의례는 상례속(喪禮俗)에서 찾아 볼 수 있다.⁰²⁾ 인간의 일생은 연속적인 과정이지만 몇 가지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단계를 거칠 때마다 의례가 따른다. 이러한 단계별 의례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변화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목포 지역의 민간에서 행해지는 일생 의례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01) 출생(出生), 삼칠일(三七日), 백일(百日), 첫 돌, 책례(冊禮), 관례(冠禮), 혼례(婚禮), 회갑(回甲), 회혼(回婚), 상례(喪禮), 제례(祭禮) 등이 있다. 참고로 통과례(通過儀禮, passage rites)라는 어휘는 프랑스의 인류학자·민속학자인 A. 반 즈네프가 장소·상태·사회적 지위·연령 등의 변화에 따른 의례를 가리키기 위해 1909년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A. 반 즈네프 저, 전경수 역, 『통과 의례』, 을유문화사, 1985 참조.

02) 김승찬, 『현대의 의례』, 개념용어, 세종문화사, 1999;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참조.

제1절 출생의례

의례는 삶의 중요한 변화가 있는 순간에 어떠한 의식을 치러야 그 다음의 삶을 무탈하게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생의 시작을 의미하는 회임은 인간 누구에게나 영원일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자식을 갖고 싶어도 안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환경의 오염, 식습관의 변화, 난관 손상, 배란 장애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예로부터 자식을 가지기 위해 드리는 공을 치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은 아들보다 딸을 원하는 가정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아들 선호 사상이 줄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더불어 아들보다 키우는 맛은 딸이 더 하다는 체험적 인식 때문이다.

생명점지 기원, 삼신치성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통해 성별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최근에는 의료법이 강화되어 금지되고 성별을 크게 따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다. 남악과 하당의 중간 지역인 목포시 옥암동에서는 아들 낳기를 바라는 당사자나 시어머니가 갓바위가 소재한 입암산 아래 여근곡에서 삼신할망에게 드리는 예를 갖추고 아들을 점지해 주기를 빌었다는 이야기가 최근까지도 전해진다. 입암산 중턱에 있는 여근곡은 여성의 자궁을 상징하는데 1년 내내 습하고 음기가 강한 곳으로 알려져 삼신치성이 왕성하게 행해지던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에서 삼신할망에게 49일 동안 아들 낳기를 빌었다고 한다. 이것을 삼신치성이라고 한다. 목포 지역에서는 기자신앙의 흔적으로 부적을 소지하거나 건강하게 낳은 아이의 배냇저고리를 품고 아이 가질 때까지 정성스레 치성을 드린 예가 있다. 그리고 초경을 경험한 흔적을, 아이를 원하는 당사자가 몸에 지니거나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주술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 사회에서는 한의원을 찾아 진맥을 하거나 임신에 도움이 되는 한약을 지어먹는 등 삼신치성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천하고 있다.

태아의 미래에 대한 계시, 태몽

‘태몽’은 가임여성인 임신 전후로 본인이 꾸거나 가족 중에 꾸어 주는 꿈으로, 아이의 성별이나 미래에 대한 계시를 주는 것으로 믿었다. 여기에는 남성 우월적 사고가 깃들어 있었다. 목포 지역에서 아들에 해당한다고 믿는 태몽은 호랑이, 용, 큰 뱀, 말, 돼지, 고추, 고구마, 무, 불, 해 등과 같이 크고 길거나 밝고 힘센 사물들이 등장하는 꿈이다. 이에 비해 딸을 점지하는 꿈은 작은 뱀, 실지렁이, 미꾸라지, 애호박, 꽃감, 꽃 등과 같이 대개 작고 약한 사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꽃이나 과일과 관계되는 것이 많다. 또 출생한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도 딸의 경우 꼭지, 말순, 끝순, 필자 등 딸로서는 마지막



그림 1 입암산 갯바위(여자의 자궁으로 해석)

임을 바라거나 순남, 차남 등 사내 이름으로 지어 다음에 아들을 낳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되기도 했다. 이런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이 목포에서는 40대 이상에서 발견된다. 이처럼 기자속, 태몽, 작명 등에는 남아의 출산을 간절히 기원하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끄러지듯이 순조롭게, 순산주술

임신 중에는 임신부에게 많은 금기가 따른다. 온금동·만호동 일대에서 조사된 금기는 대체로 임신부의 음식과 행위에 대한 것으로, 주로 태아에 대한 부정과 불길한 징조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들이다. 가령 임신을 하게 되면 장례식장 같은 곳에 가는 것을 금기한다거나 하여 아이의 태교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거의 금기로 하고 있어 임신 10개월 동안은 삼가야 할 일들이 많다. 목포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난산(難産)’의 기미가 있을 때는 임신부에게 미역국, 쌀뜨물, 닭 국물, 생달걀, 참기름 등을 먹게 한다. 이것은 아이가 미끄러지듯이 잘 나온다는 이미지가 있는 언어나 성질을 가진 것들이다. 아기를 순산한 산모의 허리를 세 번 넘기도 하는데, 이들은 모두 막힌 것을 뚫게 해 주는 속성을 가진 것들로 이러한 행위를 빗대어 순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바램이 담겨져 있다. 이것을 순산주술이라고 한다.

대문에 인줄을 걸고 부정을 기(忌)하는 삼칠일(三七日)

남아가 태어났을 때는 고추를 새끼줄에 걸고 여아가 태어났을 때는 숯과 종이, 소나무의 솔가지를 거는 것으로 새 생명의 탄생을 알렸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의 수명과 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아명(兒名)을 험하게, 혹은 천하게 짓거나 ‘복(福)’자를 넣어 짓기도 하였다. 귀한 자식일수록 아명을 험하게 지어 놓으면 장수하거나 무탈하게 자란다는 민속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개똥’이라든가 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다. 또 사주를 보고 아기의 운수가 불길하다고 예언될 경우 자식을 후덕한 사람이나 바위, 거목 등에 ‘자식 팔기’를 한다. 유달산 아래 지역에서는 무당에게 옷을 해 주거나 스님에게 재물을 보시하고 사찰에서 상을 차리고 예를 갖추어 자식을 팔기도 한다. 이것은 일반 가정에서의 성장보다 종교의 힘을 빌어 부처의 자식으로 크게 한다는 믿음이 깔린 민속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⁰³⁾

아기가 태어나면 목욕을 시킨 후 삼신상을 차린다. 삼신상에는 흰 쌀밥과 미역국을 놓는데, 이는 삼신에게 아기의 탄생과 순산을 감사하는 뜻에서 행해지는 의식이다. 땃줄이 삼태극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태를 점지해 주는 할망을 삼승(三繩)할망이라고 했다. 한편 산모에게는 첫국밥을 대접한다. 첫국밥은 흰밥과 미역국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산모에게 삼칠일(21일)까지 대접한다. 미역국은 아기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 미역은 접거나 끊지 않는 긴 장곽으로 끓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산 후 셋째 칠일이 되는 날을 삼칠일이라고 하는데, 삼신에게 흰밥과 미역국을 올려 감사를 드리고 금줄을 걸는다. 외가에서 누비 포대기, 찰떡, 팔시루떡을 해오는 풍속이 있다.

자식의 무병장수 기원, 백일세기와 돌

또 출생 후 백일이 되는 날을 백일 세기라고 한다. ‘백(百)’이라는 숫자에는 완전, 성숙 등의 뜻이 있으므로 위태로운 고비는 다 넘기고 신생아가 사회화 단계에 들어가는 뜻에서 축하하였다. 백일에는 ‘100’ 날과 관계되는 ‘백날떡’이라고 하여 백설기를 100개 만들어 주로 이웃이나 길가에 오가는 이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하면 아기의 수명이 길어지고 액을 면할 수 있다고 여겼다. 백일 상에는 흰밥과 미역국, 푸른색의 나물과 백설기, 붉은 팔 고물 차수수 경단, 오색 송편 등이 오른다. 이때의 백설기는 정결, 신성함을, 붉은 차수수 경단은 액을 면하게 한다는 주술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다. 오색송편은 오행(五行), 오덕(五德), 오미(五味)와 같은 관념으로 만물의 조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여러 집과 나누어 먹는데 이는 아기가 수명 장수하고,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03) 장철수, 「평생의례에 대한 소고-출산·관례·혼례·상례·제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관혼상제』, 집문당, 1995, 65쪽 참조.

아기의 첫 번째 생일을 첫돌이라 한다. 돌상에는 아기를 위해 새로 마련한 밥그릇과 국그릇에 흰밥과 미역국을 담아 놓고 녹색 나물, 과일 등도 올린다. 백일 때와 같이 백설기, 차수수 경단, 오색 송편을 올리고 집안에 따라서는 대추와 밤을 섞는 설기떡을 올리기도 한다. 음식과 함께 돌상에는 쌀, 흰타래 실, 책, 종이, 붓, 활과 화살(여아의 경우는 가위, 비늘, 자) 등을 놓고 집도록 하는 의식이 행해진다. 이를 ‘돌잡이’라 하는데 이것으로 아기의 장래를 예측하기도 한다. 돌에는 삼신상을 차려 놓고 ‘삼신 제왕’에게 아기의 수명, 건강, 복을 비는 이령수를 올렸다. 이것을 돌잔치라고 한다. 또한 돌 주머니에 붉은 실로 ‘수복귀(壽福貴) 세 글자를 수 놓기도 했다. 오늘날은 생활 환경의 변화와 과학 기술의 발달, 인식의 변화로 산육례가 많이 약화되었다. 출산은 주로 병원에서, 백일과 돌은 예식장이나 뷔페 등 연회장을 빌려 의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다. 백일이나 돌잔치만 전문으로 하는 파티하우스가 유행할 정도로 다양하게 생기기도 했다. 백일이나 돌잔치를 해주는 이벤트 회사도 생겨 초청 문자 대행부터 행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모든 일정을 도맡아 해 주기 때문에 가족들은 치장만 하고 행사장으로 나가 손님 맞이만 한다.

성장의 고비마다 행하는 의례들은 한 생명이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건강하고 무탈하게 성장하기를 염원했던 것이다. 이 외에도 책례(冊禮)라는 것이 있는데 책례는 어려서부터 소정의 과정에 따라 책을 한권씩 마칠 때마다 행하던 의례로서 축하와 격려의 뜻으로 오색 송편을 빚어서 나누었다. 산육 의례와 함께 재미난 이야기도 많은데 그 중에 ‘아들을 낳으면 현관 앞에서 죽고 딸을 낳으면 비행기 안에서 죽는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그것은 아들을 낳으면 서로 안 모시겠다고 싸우다가 아들집 현관 앞에서 죽는다는 말이고, 딸을 낳으면 딸이 해외 여행을 자주 보내주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죽는다는 우스갯소리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딸은 살림 밑천 아들은 집안의 대들보’라는 인식이 완전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들을 고집하는 일부 계층이나 손이 귀한 가정에서는 아직도 기자속은 남아 있는 편이다.

현대의 기자속은 치성을 드리고 아들 낳는 비법이나 한약 복용 등으로 지속되고 있다. 태몽으로 태아의 성별을 예측하던 풍속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아이의 장래에 대한 부모의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과학적인 근거가 약한 음식 금기들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으나 태교 등은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 현재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산후 조리를 하기 때문에 가정 신앙과 관련이 있는 전통적인 출산의례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되었다. 반면 경제적 성장과 소수의 자녀 출산으로 인해 임신에서 출산, 백일, 돌까지의 성장 과정을 촬영하여 성장 앨범으로 만드는 것이 유행하고 있으며, 백일과 돌잔치도 대부분 규모를 갖춘 전문 파티하우스에서 이벤트 회사를 끼고 전과정을 맡겨서 치루고 있다.

제2절 성년식(관례)

성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관례(冠禮)는 현대 사회에서는 성인식 또는 성년례라고 한다. 남자가 땅았던 머리를 빗겨 올려 상투를 틀어 올리고 관을 쓴다고 하여 붙여진 것인데, 여자는 땅았던 머리를 올려 족을 찌고 비녀를 꽂는다고 하여 계례라 하였다. 이러한 의식은 양반들에게만 해당한다. 평민들은 들들을 들고 몇 보 움직여야 성인이 된다고 여겼다. 만약, 들들을 들지 못하거나 몇 보 움직이지 못하면 다음 해에 다시 성인식을 치러야 한다. 이때 준비하는 음식은 주(酒), 과(果), 포(脯)이다. 관례 당일 이 되어 초가례, 재가례, 삼가례의 절차를 마친 뒤에는 관례를 주례한 빈을 모시고 축하 잔치를 하게 된다. 이때는 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안주용 음식과 국수장국, 떡, 생과, 식혜, 수정과 등이 올려 진다.

성년례는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념일에 행해진다. 우리나라의 성년례(成年禮)는 고려 광종 때인 965년(광종 16)에 세자 유(柚)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데서 비롯된다. 고려 이후 조선 시대에는 종류 이상의 가정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였으나, 20세기 전후의 개화사조 유입으로 서서히 사회 관습에서 사라졌다. 현대식 성년례는 성년식이라고도 하는데,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로 1974년에 지정일로 정해졌다.⁰⁴⁾ 오늘날은 이 날짜에 맞추어 성년식을 한다. 보통 성년에 달하지 못하는 동안을 미성년이라고 한다. 한국 민법상 만 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된다. 성년의 효과는 공법상으로는 선거권의 취득, 기타의 자격을 취득하며, 흡연·음주 금지 등의 제한이 해제된다. 사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 능력자가 되는 외에 친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고, 양자를 할 수 있다.

장미꽃과 향수, 성년을 축하

성년을 맞이하는 시기가 대체로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이어서 학교에서 성년식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해당일이 되면 각 학교에서 행사 절차에 따라 성년식을 거행한다. 목포에서 행해지는 성년식은 대표적으로 목포대학교의 사례가 있다. 의류학과에서 주로 행사를 담당한다. 고전 의례를 바탕으로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학생들에게 전통 한복을 입히고 다례와 함께 거행된다. 친구들끼리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장미나 향수를 주고받는데 점점 상업적으로, 서구적으로 변해가는 면모를 보인다. 선배와 후배들이 덕담을 해 주기도 하고 선물을 건네기도 하는 등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해 준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모셔 오기도 하고 또는 가까운 친척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차와 떡을 나누며 성년을 축하한다.

04) 유화정, 『전통예절과 가정의례 상식』, 도서출판 예가, 2006, 29쪽 참조.

모든 행동거지에서 자유가 보장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책임이 따른다는 점이 무작정 즐거워 할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뚝 설 것을 다짐한다. 장미꽃과 향수 대신 부모님과 함께하는 전통 성년식을 통해 학생들은 세상과 당당하게 마주할 각오를 되새긴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어른의 절제와 책무를 느낄 수 있는 전통 성년식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제3절 결혼의례(혼례)

혼례는 신랑과 신부 당사자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 결합 의례이다. 혼례의 절차는 크게 중매인의 개입에 의한 양가의 혼인 결정 및 문서 교환까지의 과정인 ‘의혼(議婚)’과, 신랑이 신부 집에서 치르는 ‘대례(大禮)’, 그리고 신부가 집을 떠난 후부터 신랑 집에서 행하는 ‘후례(後禮)’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까다로운 절차들은 배제되었다. 연애 결혼과 중매 결혼으로 크게 나누는데 택일을 하게 되면 양가에서 합의하여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간소화 되었다.

부부가 백년해로를 누리라는 전안례

혼인의 상징인 기러기를 신랑이 신부 집에 바치는 것은 한 지아비로서의 믿음을 보여 주는 동시에 건전한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늘에 맹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부의 어머니가 기러기를 받아 치마폭으로 감싸거나 시루로 덮기도 하였는데, 부부가 백년해로하라는 의미이다. 전안례가 끝난 후 나무 기러기는 신부 집안 사람들에 의해 신방의 구석에 놓이게 된다. 이것을 오늘날에는 결혼 전야에 ‘함팔기’라고 해서 신랑 친구들이 신랑 본가에서 준비한 예단을 신랑친구들이 짊어지고 신부 측 집안으로 와서 파는데 그 절차가 매우 재미나기도 하고 짓궂기도 한 결혼 전야 행사이다.

전통 혼례에서 의례를 행했던 마당(혼례식장)이라는 개념은 예식장, 웨딩홀, 웨딩컨벤션, 웨딩문화원 등으로 변경되었다. 전통 혼례를 장려하는 곳도 없지 않다. 이런 곳은 민속박물관이나 문화원 등에서 전통 혼례를 올릴 수 있는 시설과 정보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예식장 또는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있지만 전통적 감각의 공간을 빌어 식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경험이나 기념사진을 위하여 전통혼례를 다시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사회가 다변화 되면서 이혼률이 높아지고 재혼도 많아져 나이가 많은 재혼의 경우 전통 혼례를 이용하기도 한다. 목표는 인근 삼호에 있는 농업박물관이나 지역 복지관 등에서 전통 혼례가 치러진다.

현대사회의 혼인과 출산 장려정책과 상견례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결혼 적령기는 높아지고 있는데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20대였던 것이 오늘날에는 30대로 늘어났는가하면 3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나 5포 세대(3포+대인 관계, 내집 마련), 7포 세대(5포+희망, 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미혼들이 많아지면서 결혼 적령기가 없어졌다 할 정도로 혼인 역시 늦어지거나 포기하는 젊은 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취업 성공 패키지, 행복 주택, 장학금 마련, 취업 인턴제 등등이 그런 예이다. 일자리 발굴 및 채용 연계나 중소기업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내 놓고 있다. 더불어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 지도 및 정보 제공도 있고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전달도 마찬가지로 젊은 층의 삶의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들이다. 목포에서는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출산 정책까지 냈다. 혼인한 부부가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결혼을 하기 전 양가의 가족들이 만나 식사를 하면서 통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상견례라고 한다. 근친의 웃어른들과 양친 부모 형제들에게 서로를 알리고 가족 구성원을 소개하는 시간이다. 기본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면 결혼 당사자들끼리 결혼을 약속했다면 양가의 허락을 요구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전통 혼례에서 대개 잔치 전일이나 우수일(偶數日)에는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잔치 날에 소용될 물품을 보내는데 이를 ‘이바지’라 한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이바지’의 개념이 조금 달라져 공간(혼례식장)을 빌거나 야외 결혼식을 하고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돌아오는 날 친정부터 가게 된다.

상견례와 이바지(예단) 그리고 신접살림

친정에서 하룻밤을 자고 친가에 가게 되는데 이날 친정에서 해 주는 음식을 ‘이바지’라 한다. 그런데 사실 연애결혼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형식이나 관례적으로 행해졌던 풍습들을 배제하고 현금을 봉투에 담아 건네는 경우가 많다. 신랑은 대부분은 부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즉 집을 장만하고 신부는 가재도구를 장만한다. 결혼식 전에 신랑과 신부가 양가 가족들에게 예를 갖추는 예단을 준비하는데 이것은 양가 가족들에게 결혼을 알리고 성의를 표현하는 정도로 옷 한 벌, 이불 한 채 등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현금을 담아 전달하기도 한다.

현대에서는 결혼식을 마치고 폐백을 치른다. 신부가 시댁 어른들에게 신고식을 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대례상에 차리는 진설물과 의미가 같은 맥락이다. 결혼식을 마치면 신랑·신부는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오늘날에는 대부분 해외로 가는 경우가 많다. 신혼 여행을 다녀온 신랑·신부는 이날 신부 집에서 잠을 자고, 신부는 신랑 집에서 받은 선물 내역을 신부 모친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답

례품을 갖고 다음날 신랑집으로 와서 인사를 드리고 하룻밤을 묵은 다음에 신접 살림에 들어간다. 오늘날에는 분가를 하는 부부들이 많아 신접 살림을 따로 장만하여 이동하게 된다.

주례없는 결혼식 성행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혼인하는 커플 10쌍 중 4쌍은 주례 없이 결혼식을 한다. 신랑·신부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아 낭독하기도 하고, 양가 부모님이 서로 축하하기도 한다. 이른바 '작은 결혼식' 확산에 '세(勢) 과시용' 주례가 사라지고 있다. 주례사는 핵심만 간단히 전하기도 하고 신랑과 신부 친구들의 축가로 대신하기도 한다. 구태의연한 일장 연설 같은 주례는 하객들의 따분함을 산다하여 대다수의 결혼식에서 신랑·신부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 '주례는 짧게 삶은 길게'라는 표어까지 나와 따분한 주례와 이혼 예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주로 신랑 친구가 사회를 맡아 결혼식 시작을 알리면 신랑 신부의 등장이 이어지고 양가 어머니들의 화촉이 밝혀진다. 이어 신랑 신부의 혼인서약서 낭독, 축사나 축가로 이어진다. 사회자의 재치로 재미난 주문이 있기도 하는데, 별치이나 애정 표현을 강요하기도 한다. 요즘은 주례 없는 결혼식이 대세다. 사회 겸 주례를 담당하여 식이 거행되기도 하고, 간략한 메시지 전달로 주례를 대신하기도 한다. 목포 하당에서 결혼식을 올린 위모 씨의 결혼식 주례사는 장모의 지인이 담당하면서 사회를 겸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장모가 될 신부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될 신랑의 어머니가 신랑 신부에게 바라는 메시지로 식장을 감동적으로 만들었다.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보내는 편지로 대신하기도 한다. 식은 20, 30분내로 끝났다. 위모 씨는 "다른 결혼식을 수차례 가 봤지만 하객들이 주례사의 역할이 축소되어 주례를 부탁하는 것도 죄송스럽고, 하객도, 신랑 신부도 재미없는 결혼식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면서 '우리 목소리'를 결혼식에 반영하는 의미 있는 결혼식을 하고 싶었다."고 했다. 주례 대신 부모님 덕담도 많아졌다. 허례허식을 줄여 결혼식의 참된 의미를 찾자는 '작은 결혼식'의 확산은 '주례 없는 결혼식'의 유행에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혼인에서의 남녀 평등을 강조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주례를 서기도 한다.

신혼여행과 부조(扶助)의 미풍(美風)

목포의 경우 이바지 제도는 폐백과 예단의 형식으로 변화하였다. 가정마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신부의 혼수품, 패물 등이 굉장히 많아지고 고가품으로 바뀌어졌다. 신랑, 신부, 하객 등 일행이 모두 차를 이용하고 있다. 더불어 웨딩홀에서 대여하는 웨딩카도 생기고 비교적 자동차를 화려하게 장식해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이용하는데 차 뒤에 깡통을 달아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서 출발하는 진풍경도 생겨났다. 흥세함은 친구들이 대신 메고 하객은 주로 혼주 가족이나 근친 그리고 하

객과 이웃, 지인들이 대행하고 있다. 혼인 다음 날의 사돈 잔치가 거의 없어졌다. 근래에는 대형 식당이나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흔하다.

대소사(경조사)의 초청은 부르면 부르는데로 불만이고, 안 부르면 안 부르는데로 불만이다. 예나 지금이나 하객을 초대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이다. 목포의 결혼식 풍경을 보면 초청장을 만들어서 돌리거나 모바일이 발전하여 SNS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카카오톡, 카카오톡스토리, 페이스북, 네이트온 등)로 만들어 돌리는 경향이 많아졌다. 축의금을 낼 때는 홀수 단위로 3, 5만 원에 맞추어 낸다. 축의금은 형편에 따라 3만 원을 하기도 하지만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3만 원의 경우는 거의 없어지고 5만 원 수준에서 주로 하는데 친분의 정도에 따라 10만 원의 경우가 보편화 되었으며, 친인척의 경우 100만 원에서 기천만 원까지도 호가하고 있다. 액수는 딱히 정해지지 않았다. 결혼식 참석이 곤란한 하객들은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축의금 문화는 우리의 전통 풍속인 품앗이에서 비롯되어 좋은 일은 함께 하고 슬픈 일은 나누자는 의미가 더 크다. 지금은 하객들의 축의금으로 결혼식 비용을 충당한다. 큰일을 치를 때마다 주위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보태주는 것이 우리 고유의 풍습이었다. 그러나 이런 풍속도 그다지 장타를 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혼례의 마무리 폐백, 다산(多産)의 기원

인간이 성장하여 부부의 연을 맺는 의식이고, 이는 남녀의 결합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배상은 초례의식을 치르기 위해 마련하는 상이다, 앞 줄에 대추, 밤, 조과를, 그 뒷 줄에는 황색 대두, 붉은 팔, 달떡, 색편을 놓는다. 폐백은 현구고례(신부가 시부모를 비롯한 시댁의 여러 친척에게 인사 드리는 예)를 행할 때 신부 측에서 마련하는 음식이다. 폐백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대추와 편포로 한다. 큰상은 초례 치른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음식을 높이 고여 차리는 상이다. 동 향렬의 친척이 들러리 격으로 배석하고, 한국의 상차림 중 가장 성대하고 화려하다. 대부분이 자유연애에 서양식 혼례를 한다. 그러나 예식 후 사모 관대와 원삼 족두리로 갈아 입고 폐백을 하는 등 전통 혼례의 일부분이 절충되어 진행되고 있다.

제4절 수연례

수연례는 생일 의례 중에서 환갑이나 칠순, 팔순 등의 특정한 생일을 기념하여 하는 잔치이다. 예전에는 60세를 넘기는 경우가 드물어 환갑 잔치를 크게 치렀다. 그러나 지금은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장수함에 따라 환갑은 예전만큼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고 칠순이나 팔순을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 팔순잔치를 크게 차린다. 우리 민족이 손꼽는 오복(五福)은 수(壽)·부(富)·귀(貴)·

강녕(康寧)·다남(多男) 등으로 그 가운데 첫째가 장수였다. 따라서 회갑(回甲)과 회혼(回婚)은 그 어느 의례보다 성대하게 치러졌다.

회갑보다는 칠순과 팔순이 대세

수연례에는 경로 효친의 장수 축하 의식과 가문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식이 깃들여 있다. 목포에서 행해지는 경로 효친의 장수 축하 의식으로는 회갑을 맞은 당사자가 부모님을 업고 춤추기, 또 당사자의 자녀들이 당사자를 업고 춤추기 등 장수를 축하하는 릴레이 행사가 있다. 그리고 회갑연을 차리고 자녀들 모두 술과 큰절을 하는 ‘현수 배례’ 등이 있다. 또 가문의 위상 과시로는 과실, 유과류, 조과류, 오색 편류, 편육, 생선, 떡 등 갖은 음식들로 차려진 ‘큰상’을 통해, 자식들의 부와 권세, 그리고 수연의 대접을 받는 당사자의 다복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⁰⁵⁾

오늘날에는 뷔페를 비롯한 전문 연회장을 빌려 의례를 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특히 사회가 고령화가 되면서 회갑연에서는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것으로 마치거나 자녀들이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것으로 잔치를 대신하기도 한다. 이는 즉 회갑연을 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이 칠순, 또는 팔순까지 장수하기를 염원하는 자녀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옛 풍속이 차츰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통 문화가 지금의 문화로 변화하게 된 배경에는 일제강점기 우리 문화에 대한 말살정책과 근대화 물결에 따른 변화의 요구가 많이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61세가 되는 해를 회갑년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기가 태어난 해로 돌아왔다는 뜻으로 환갑이라고도 하고 ‘화(華)’자를 풀어서 분석하면 61이 된다고 하여 화갑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희년은 칠순에 이르는 나이를 말한다. 이때 차리는 큰상의 내용은 혼례 때의 큰상차림과 같고 주빈의 숙부, 숙모 또는 형제, 자매되는 분들이 배석하게 된다. 혼례를 올리고 만 60년을 해로한 해를 회혼이라 한다. 이때는 처음 혼례를 치르던 것을 생각하여 신랑, 신부 복장을 하고 자손들로부터 축하를 받으며, 그 의식도 혼례 때와 같다. 다만 자손들이 현주하고 권주가와 음식이 따른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때 차리는 큰상 또한 혼례 때 차리는 상차림과 같다.

제5절 상례

상례는 망자가 숨이 끊어져 죽는 순간부터 시체를 매장해 봉분을 조성하고 가까운 친척들이 상복을 입는 기간 동안 치르는 각종 의례를 말한다. 우리 민족은 죽음을 삶의 종말이 아니라 재생의 과정

05) 안혜숙·주영애·김인옥, 『한국 가정의 의례와 세시풍속-전통 가정생활과 의례-』, 신정, 2002, 47~48쪽 참조.

으로 여기는 영혼 불멸 사상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의식을 반영하는 상례 역시 이승에서의 고별 의례이면서 저승에의 편입 의례도 된다. 현대의 상례는 무속적인 상례와 불교식, 유교식, 기독교식 등이 있으며 이들은 서로 절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 중 전통 사회부터 오늘날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방식은 유교식 상례이다. 이는 유교가 규정한 사례(四禮) 중의 하나가 상례이고, 조선 시대의 사회적 규범으로 받아들여 그 준행을 법제적으로 강요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교식 상례의 절차와 정신

유교식 상례의 절차를 기록한 『예서』에는 보통 초종(初終)·습(襲)·소렴(小殮)·대렴(大殮)·성복(成服)·조상(弔喪)·문상(聞喪)·치장(治葬)·천구(遷柩)·발인(發柩)·급묘(及墓)·반곡(反哭)·우제(虞祭)·졸곡(卒哭)·부제(祔祭)·소상(小祥)·대상(大祥)·담제(禫祭)·길제(吉祭)의 19절차로 되어 있다. 초혼은 육신을 떠나는 영혼을 다시 불러 재생시키기 위해 망자가 입던 상의를 들고 지붕 위에 올라가 망자의 주소와 이름을 세 번 부른 뒤 “복, 복, 복”이라고 외치는 의식이다. 이때 지붕 위에 올라가는 것은 영혼이 허공에 있다는 믿음 때문이고, 세 번 망자를 부르는 것은 영혼이 하늘과 땅, 그리고 공간의 세 곳에서 온다고 믿기 때문이다.⁰⁶⁾

반함은 저승까지 가는 길에 필요한 식량과 노자를 망자의 입속에 넣어 주는 것으로 입속에 쌀을 넣어 두는 것은 ‘반(飯)’이라 하고, 옥을 넣어 두는 것은 ‘함(含)’이라고 한다. 상여는 단순히 주검을 나르는 운반 도구가 아니라 이승과 저승을 이어 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상여에는 용·봉황·연꽃·호랑이·병아리 등 동식물이 망라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병아리와 연꽃 조각에서 보이듯 저승에서의 새로운 탄생을 희구하는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공원묘지나, 각종 병원의 전문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다.

상례는 가장 변화가 늦은 부분으로 절차도 전통의 상례와 거의 같은 의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장례식장이 도처에 들어서고부터는 상례도 상업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장례 대행업체의 등장으로 전국적으로 규격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목포에서 진행되는 상례는 유교적 예법과 전통의 무속이 공존해 있으며 장지에 봉분을 만들어 매장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화장장에서 화장하여 생전에 좋아하던 곳에 뿌리거나 수목장이라 하여 화장한 분골을 지정된 수목의 뿌리 주위에 묻어 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 회귀 섭리에 근거한 새로운 장묘 방법도 생겼다. 이와 마찬가지로 평장이라 하여 봉분은 만들지 않고 비석만 세우는 방법도 현대사회에서는 상당히 권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장례 문화가 발달하여 상호회사들이 생겨 매달 보험식으로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

06) 양승이, 『한국의 상례, 한국인의 생사관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도서출판 한길사, 2010, 21~24쪽 참조.

고 상을 당했을 때 부고에서부터 장지안치까지를 대행하는 업체에 맡겨 행하는 것이 일반화 되기도 하였다.

일생 가장 마지막 의례

부모님이 수를 다하여 운명했을 때 의식 절차에 따라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것이 상례이며 일생 의례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의례이다. 음식은 상례 중에 올리는 전과 조석상식으로 구분한다. 전은 장례 전에 영좌 앞에 간단한 음식을 차려 놓는 예식이다. 이 때 차리는 음식은 주, 과 정도이고, 집안에 따라 포를 더 놓기도 한다. 조석상식은 돌아가신 조상을 살아 계신 듯 섬긴다는 의미에서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상식이다. 상례 중에는 물론, 장사를 치른 뒤에도 탈상할 때까지 올린다. 살아있는 사람의 조석 밥상처럼 밥, 국, 김치, 나물, 구이, 조림 등으로 한다.

그러나 시대가 변한 지금 산야(山野, 밭과 들)의 장법을 보아서도 사회 의식이 급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상장 제례의 변화된 모습은 유교의 질서가 급격히 거부되거나 무너지고 있고, 그것이 자본주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증거일 것이다. 오로지 생장(生葬)을 고수했던 관념이 어느새 화장(火葬) 중심으로 장법이 달라졌다. 집안의 결정에 따라 이장한 산담 안에 다시 가족묘를 조성하고 있는데, 다른 곳의 무덤에서 이장한 유골을 화장하여 다시 평장으로 봉행하고 비석을 열지어 세우기도 한다. 묘지의 관리 측면, 이미 가지고 있는 무덤의 토지를 사용하는 측면(경제성), 별초나 제례를 지낼 때 이리저리 이동하는 시간의 효율성(합리성) 등 여러 모로 현실에 맞는 장점이 많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는 장묘 제도에도 변화를 가져왔고, 죽음에 대한 근본 관념, 즉 사후관과 주검의 장소에 대한 의식도 함께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제6절 제례

제례는 조상 숭배 의례의 하나로, 조상에 대한 일련의 종교적 신념과 행위를 말한다. 제례는 제사라고도 하는데 거의 모든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조상에게 효를 다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비교적 잘 전승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제례는 설과 추석 등의 명절 아침에 지내는 차례, 돌아가신 조상의 기일에 지내는 기제사, 조상의 묘소에서 지내는 묘제, 5대조 이상의 조상을 함께 모시고 사당이나 묘에서 지내는 시제로 구분할 수 있다.⁰⁷⁾

목포시에서는 차례나 기제사 때 합설을 하는 집이 많아 내외를 한상에 같이 모신다. 지방(紙榜)은

07) 김종혁, 『조선의 관혼상제』, 사회과학원, 도서출판 중심, 1999, 247쪽 참조.

남성의 경우 벼슬이 있으면 벼슬을 적지만 벼슬이 없을 경우에는 ‘현고쳐사부군신위(顯考處士府君神位)’라고 적는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현비유인○○○○(顯妣孺人○○○○)’라고 적는다. 처가 한 명 더 있을 경우에는 그 옆에 성씨만 다르게 해서 더 기입하게 된다. 오늘날 전통 제례는 여전히 지속되지만, 4대 봉사를 하는 가정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근래에는 바쁜 현대 생활의 편리해짐에 의해 제사를 지내는 시간이 자정에서 초저녁으로 바뀌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죽은 사람 섬기기를 살아 있을 때처럼 하라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제례라고 하는데, 신앙의 영역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일생 의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혼상제(冠婚喪祭)’에 제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인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의례 중의 하나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 섬기기를 살아 있을 때처럼 하라는 『중용(中庸)』의 구절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민족은 조상 섬기기를 살아 있을 때와 같이 한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목포 지역에 전승되는 조상에 대한 제례는 기제(忌祭), 시제(時祭), 그리고 차례(茶禮) 등이 있다.

기제는 돌아가신 조상의 기일, 즉 돌아가신 날 지낸다. 대상은 4대 고조부모까지인데, 이것은 조혼의 풍습으로 고조부모는 생전에 뵈 수 있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제사를 지내는 시각은 돌아가신 날 첫 시간(子時)에 시작해서 닭 울기 전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다. 제물의 진설은 가문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기제사의 순서는 신위 봉안(神位奉安), 분향(焚香), 강신(降神), 참신(參神), 진찬(進饌), 초헌(初獻), 독축(讀祝), 아헌(亞獻), 종헌(終獻), 유식(侑食)[침차], 합문(闔門), 개문(開門), 진다(進茶), 사신(辭神), 분축(焚祝), 철상(撤床), 음복(飮福) 등의 유교식 가례를 따라 진행한다.

명절에 조상에게 올리는 차례 진설

차례는 명절에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를 말한다. 차례는 설, 동지, 매달 초하루와 보름, 각종 명절 등에 지냈다. 그러나 요즘은 일반적으로 설과 한가위에만 지낸다. 차례를 지내는 대상은 기제와 마찬가지로 4대까지인데, 기제와 다른 것은 차례 때에는 돌아가신 조상을 함께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다. 차례의 제수 음식은 기제사와 별 차이가 없지만 계절적인 별식을 장만하여 올리게 되므로 설에는 메(밥) 대신 떡국을, 추석에는 송편을 올린다. 그리고 기제사에는 술을 세 번 올리지만 차례에는 한 번만 올리며 축을 읽지 않는다. 제사에 사용되는 음식을 제수라고 하며, 제사상에 제찬을 배열하는 것을 진설이라고 한다. 젓 상에 올리는 음식은 지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첫째 줄에는 과일과 조과(造菓), 둘째 줄은 나물, 셋째 줄은 탕, 넷째 줄은 적과 전, 다섯째 줄은 밥(메), 국(탕)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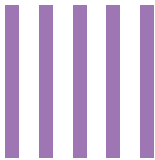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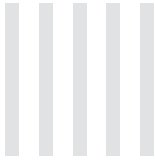
시제는 시사, 세사 등이라고도 하는데, 5대조 이상의 조상 제사를 음력 10월 중 날을 잡아 1년에

한 번 묘에 가서 지낸다. 제수는 기제사에 준해서 마련하지만 형편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목포 지역의 일생의례는 전통 무속을 기반으로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유교의 전파로 유교적 예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그리고 생활 환경과 생활 양식의 변화는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전통 문화를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목포 지역에서 일생의례는 상례와 제례를 제외하면 크게 간소화되거나 사라졌다. 상례와 제례 역시 전통적인 방식뿐만이 아니라 외래 종교의 영향을 받아 불교식, 기독교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체로 원래의 절차보다 간소화되었다. 오늘날에는 예전보다 간소하게 치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에 따라 지내거나, 제사 자체를 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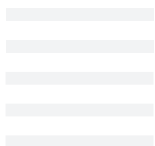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일생 의례는 이미 그 사회적 의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목포 지역의 일생 의례에는 편리함에 기대어 집단을 몰각(沒却)하는 개인주의보다,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집단의 가치를 중시하는 지역 공동의 의식이 깃들어 있다. 따라서 소중한 우리 것들이 자취를 감추고 국적 불명의 기념일이 만연하는 요즘 목포 지역 고유의 일생 의례를 되새겨 보는 것은 가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서경 | 목포대학교 교육혁신개발원 연구교수



제1절 민속신앙에 대한 기억과 기록

이경엽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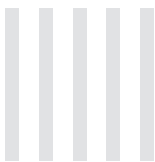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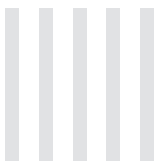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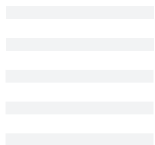
제2절 무속 담당자의 활동, 당골과 점쟁이

이경엽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3절 바다의례의 여러 양상, 혼건지기·뱃고사·풍어굿

이경엽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7장 민속신앙 ⁰¹⁾

제1절 민속신앙에 대한 기억과 기록

민속은 공동체의 생활문화로 전승된다. 또한 생태환경에 대한 적응과 대응의 산물이기도 하므로 전승집단의 생업과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띤다.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 변동 속에서 전승이 단절되기도 하고 새로 창출되기도 하며, 때론 기억 속의 지식으로 남는 경우도 있다. 목포의 민속신앙은 변화되고 창출되고 또 기억되면서 전승되고 있다. 개항도시 목포의 특성상 주민 교체가 많고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전통적인 면모를 띠고 있지만 대를 이어 승계되는 형태는 찾기 어렵다. 그래서 기억 속의 지식이 현재의 생활문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다.

목포의 민속신앙에 대한 일제강점기 때의 보고서가 있지만 간단한 언급뿐이다. 그마저도 현전 자료와 연결되지 않아서 그 자취를 찾기 어려운 상태다. 예를 들어 『조선무속의 연구(朝鮮巫俗の研究)』(1938)를 보면, 목포의 무부집회소(巫夫集會所)에서 들은 무조전설(巫祖傳說)에 대해 말하고 있으나 무부집회소의 존재에 대해 알려진 사항이 없다. 민속 전승의 복잡성과 체계성이 약화돼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현행되진 않지만 기록 속에서 그 면모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김태곤의 『한국무가집(2)』에 수록된 이점덕 무녀의 재수굿 무가를 들 수 있다. 1966년에 조사된 이 자료는 1.안당, 2.선석, 3.성주굿, 4.삼신굿, 5.제석굿, 6.군웅굿으로 구성돼 있다. 이점덕 무녀가 누구인지 확인

01) 김태곤, 『한국무가집(2)』, 원광대출판부, 1971; 목포시사편찬위원회, 『목포시사』, 1980; 무라야마지준(村山智順), 「조선의무격」, 조선총독부, 1932; 아카미즈지조(赤松智城)-아키바다카시(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 조선총독부, 1938; 조경만·이경엽, 「목포시의 민속자료」, 『목포시의 문화유적』, 목포대박물관, 1995 등을 참고하였다.

되지 않지만 보기 드문 재수굿 무가이고 이른 시기에 채록된 자료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이처럼 기록을 통해서 민속신앙의 여러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조사되고 기록된 민속자료가 있다. 고하도의 기우제와 온금동(다순구미) 산제, 옥암동 부주두의 입석제 등이 그것이다.⁰²⁾ 이 자료들은 고로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고, 현행되지 않지만 목포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1. 고하도의 기우제, 탕건바위놀이

탕건바위놀이는 고하도에서 전승되던 기우제(祈雨祭)다. 탕건바위는 이름 그대로 탕건처럼 생긴 바위이며 그 밑에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전한다.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주민들은 살아있는 돼지를 제물로 바친다. 그리고 탕건바위에 돼지의 피를 묻히고, 그 피를 비로 씻겨달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네 방향으로 새끼로 묶어 바위를 끌어당긴다. 탕건바위를 당기면서 부르는 사설을 보면, 비를 관장하는 존재에게 비를 내려서 바위 위에 묻은 돼지피를 씻기라고 권유하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탕건바위 밑에 숨겨놓은 금은보화를 파 내가겠다고 위협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기우제 특유의 양면적인 주술성을 보여준다. 1970년대에 민속학자 최덕원에 의하여 발굴되었으며 목포문화원에 의하여 1993년에 재연되었고, 그해 제21회 남도문화제에 목포시 대표팀으로 출연하였다.

2. 다순구미 산제

다순구미 산제는 유달산 남쪽 온금동(溫錦洞)에서 전승되는 동제다. 다순구미는 햇별이 비추는 따뜻한 구역이라는 뜻의 우리말로써 온금동의 유래가 되는 이름이기도 하다. 마을 뒤에 산신을 모신 제단 터가 있다. 산제를 모시는 시간은 정월 초이렛날 밤이었다. 산제에 필요한 제비(祭費)는 집집마다 얼마씩 내는 호구세(戶口錢)으로 충당했다. 시간이 되면 제주가 산제당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는데, 유교식 절차에 따라 진설-헌작-독축-재배 순으로 제를 진행하였다. 제사를 모신 다음 날에 주민들이 제주집에 모여 음복을 했다. 1970년대말 산제당 철거와 함께 중단되었던 이 산제는 1994년에 '산신맞이굿'으로 재현되었다. 목포문화원에서 주관한 이 '산신맞이굿'은 1994년 11월 나주에서 개최된 '제22회 남도문화제'에 '다순구미산제'라는 이름으로 출연하기도 하였다.

02) 조경만·이경엽, 『목포시의 민속자료』, 『목포시의 문화유적』, 목포대박물관, 1995.

3. 옥암동 부주두의 입석제

부주두는 영산강 하구에 있던 농촌마을이다. 남악신도시 개발 사업에 편입돼 개발되면서 예전의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예전에는 정월 보름과 추석에 마을 앞에 세워진 입석에서 농악을 치곤 했다. 세 개의 입석이 있었는데 각각 영감돌, 할미돌, 애기돌이라고 불렸다. 구전에 의하면 큰 전염병이 돌 때 그것을 막기 위해 세웠기 때문에 ‘액막이 돌’이라고 부르며, 이 돌을 세운 뒤로 부주두에는 전염병이 오지 않았다고 전한다. 정월 대보름에 입석에서 농악을 치면 남녀노소가 모여서 즐기고 놀았다고 한다. 입석곶에 이어 샘곶을 치고 난 뒤에는 집집마다 돌면서 마당밧이를 했다. 마당밧이는 문곶-성주곶-정재곶-마당곶 순으로 했다. 마당밧이를 하면서 모아진 기금으로 마을회관을 짓고 단체관광을 하기도 했다.

제2절 무속 담당자의 활동, 당골과 점쟁이

목포의 무당에 대해서는 1930년대에 일본 학자들이 조사한 보고서에 언급된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오래된 기록에 속한다.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조선의 무격(朝鮮の巫覡)』(1932)에서는 목포 무당의 호칭에 대해, 당골(堂骨), 무자(巫子), 당결(堂乞), 무녀(巫女), 무당(巫黨), 재인(才人), 명도(名徒) 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아카마츠 지쵸(赤松智城)와 아키바 다카시(秋葉隆)가 쓴 『조선 무속의 연구(朝鮮巫俗の研究)』(1938)에서는 목포의 무당 두 명 사진을 싣고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하나는 신칼을 들고 있는 당골(Tangol)인데, 이에 대해 “이 지방에서는 가무강신을 행하는 세습무녀를 단골이라고 부른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는 명도(Myengdo)인데 이에 대해서는 “공창(空唱) 신점(神占)을 행하는 무녀로 자기 집에 소녀신을 모시고 있다. 가무는 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목포에서 활동해온 무당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대대로 무업을 이어온 세습무이며, 다른 하나는 신내림을 받아서 무업을 하는 이들이다. 전자는 당골[단골]이라고 하고 후자는 점쟁이 또는 보살이라고 한다. 후자 중에는 독경을 전문으로 하는 법사도 있다. 그리고 점쟁이 중에서 어린 아이의 신령을 모시는 경우 명두라고도 한다. 앞의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는 ‘명도’가 그것이다. 일제 강점기의 기록에 언급된 것처럼 세습무 계통과 강신무 계통이 공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습무 계통의 당골과 강신무 계통의 보살[점쟁이]은 서로 구분되지만 상보적인 활동을 해왔다. 그 명칭에서 보듯이 당골은 곶을 전담하는 존재이고 점쟁이는 점복 중심의 무업을 하는 존재다. 당골은 담당 구역(당골판)이 별도로 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종교적 의례를 제공해주고 경제적으로 부양

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다. 이에 비해 점쟁이는 별도의 구역을 따로 갖고 있지 않고 당골처럼 제도적인 기반이 없었다. 역할에 따른 사회적 위상의 차이가 있었던 셈이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당골판 관념이 사라졌으며 신분적인 차별을 피하고자 무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지 않게 되면서 세습무는 보기 드물게 되었다.

목포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무당 중에서 세습무는 드물다. 세습무계의 후예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업을 잇고 있지는 않다. 이에 비해 강신무 계통의 보살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때문에 오색 깃발이나 풍선 등을 매달고 무업을 하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목포 거주 무당들이 지역 바깥에 가서 활동하듯이 인근 지역 무당들이 목포에서 의례를 주관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목포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습무계 출신의 무녀와 점쟁이 무녀의 사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1. 세습무계 출신의 용당동 함성엽 무녀

목포 용당동에 사는 함성엽(가명, 여, 1937년생) 무녀는 진도의 세습무계 출신이다. 그녀의 고향은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다. 부모는 대대로 무업에 종사해왔으며 외가도 이름난 무계였다. 함씨는 서거차도에서 9세까지 살다가 조도면 동구지로 이주해서 살았다. 모친이 그곳의 당골판을 구입해서 이사한 데 따른 것이었다. 21세에 임회면 남동리의 한동용과 결혼했다. 시댁도 유명한 무계다. 진도씻김굿 예능보유자였던 김대례 무녀가 손위 동서다.

함씨가 목포로 이주하게 된 것은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였다. 목포 온금동에서 살 때에는 바느질로 생계를 이었다. 목포에서의 생활은 고생되고 힘들었다고 한다. 선창이나 유달산 근처에서 과일 장사도 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생활하기가 어려워 시누이집에 살던 피난민의 옷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기도 했다. 당시 선원들이 배에서 입는 누비옷, 기성복 등을 제작했다. 3년 동안 고생하며 살다가 서른세 살에 도초도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도초도로 간 이유는, 온금동 생활이 힘들기도 하고 또 애들 데리고 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 도초도에 살던 한씨 성을 가진 먼 친척이 자기의 당골판을 넘겨주면서 해보라고 권유해서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함씨가 무업을 하게 된 배경은 생계 문제가 가장 컸다. 어릴 때부터 관심을 두지 않았고, 결혼 후에도 거리를 두고 살았지만 애들 키우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업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리고 무업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도 했다. 목포에서 살 때부터 몸이 안 좋았는데 그게 다름 아닌 무병이었다. 죽은 남편이 몸에 실려서 몸이 아픈 것이었다. 그 뒤로 점을 치거나 작은 굿들을 하면서 생활했다. 도초도에 살 때에 우연히 나박포 뒷산 정상에서 엽전 일곱 개를 발견하기도 했다. 일종의 ‘구애비[鬼業] 뜨기’를 한 것이다. ‘구애비 뜨기’는 누군가가 비밀리에 묻어둔 신구를 발

견함으로써 영험함을 승계하는 의미라고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함씨는 “신령들이 인자 그 한을 못 풀었기 때문에 나머지 인자 보살들한테 인계할라고 인도를 해주는 거지요.”라고 말하고 있다. 함씨는 이처럼 ‘인도를 받아서’ 엽전 일곱 개를 캐서 신단에 모신 뒤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서 점을 치고 굿을 하느라 바쁘게 지냈다고 한다. 굿을 하게 되면 도초도 외남리의 진씨 부부, 만년리의 한행술·양삼례 부부, 목포의 악사 박종술 씨 등과 함께 굿을 했다. 또한 비금도의 유점자 무녀와도 굿을 같이 했다고 한다.

함씨는 30여년 간 도초도에서 살다가 환갑 직후에 목포로 이사를 했다. 목포에서는 굿을 하고 점을 치는 두 가지 일을 겸하고 있다. 이는 그의 내력에서 비롯된다. 함씨는 세습무계 출신이면서 신내림을 받고 무업을 하고 있다. 일반 당골과 달리 집에 신단을 모시고 있으므로 점을 칠 수 있고, 일반 점쟁이와 달리 무계 출신으로서 굿을 익혔기 때문에 굿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세습과 강신의 두 유형이 복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함씨가 목포에서 굿을 할 때 함께 했던 이들은 장산도의 이귀인, 비금도의 유점자, 목포의 안복단, 영암의 한용호 등이다. 모두 세습무계 악사이거나 당골들이다. 요즘에는 전통적인 굿보다도 약식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화 되어 있어서 법사나 보살들과 일을 할 때가 훨씬 많다고 한다.

함씨에 의하면 목포의 무속인들이 공을 들이거나 기도를 할 때 유달산 일등바위, 이등바위, 갯바위, 용머리 등을 찾아간다고 한다. 이 중에서 특히 대반동 목포 해양대 쪽 바닷가 쪽은 유달산 산신과 고하도 용머리가 함께 보이는 곳이어서 영험한 곳으로 꼽힌다고 말한다. 지금도 유달산 일등바위 아래나 용머리 쪽에서 비손을 드리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함씨의 굿은 전통적인 면모를 띠고 있다. 목포에 전통적인 굿을 하는 무녀가 많지 않으므로 그의 무가는 자료적인 가치가 있다. 그가 부른 무가 중에서 「장자풀이」를 들기로 한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굿의 맨 마지막 절차인 ‘거리 허전’(사자막이)을 할 때 장자풀이를 부른다고 한다. 또한 씻김이나 고풀이를 할 때도 부른다고 한다. 제보자는 “아픈 환자 두고 이 굿을 하면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2016.7.20. 채록)

장자님네 본을 받고 장자님 안철 받자 장자님 근본은 그 어디가 본이더냐
이도 거리 본이더라 어리 삼산 본이로다
옛날에 장자님은 장자택에 들어가니 전나무 잣나무 탱자나무가 많이 생겨
무서워서 갈 수 없고 문 옥으로 솟으자니 희살부작 많이 붙여 무서워서 갈 수 없네
장자님네 꿈에다 꿈에 선물을 하고 있기에 초경에 꾸신 꿈은 먹던 수저가 부러지고
이경에 꿈을 꾸니 썼던 갓이 절대가 토라져 보이더라

재차 꿈을 꾸고 보니 집안에 주춧돌이 밖으로 걸어나가서 보이웁고
 사경에 꿈을 꾸니 지붕 옥에 흰 개가 누여져서 보이웁고
 재차 꿈을 또 꾸고 보니 선산에 고목나무 동동이 갈라지고
 집안에 정자나무 우거져 보이더라 깨 나보니 꿈이로세
 서성방에 딸 애기야 신성방에 메놀아가 내 꿈 해명을 하고지다
 사마장자 딸아기 딸아기가 허는 말이 아버지 효녀딸이 꿈 해몽을 하오리다
 아마도 아버지가 과거질을 가실란데 장원급제를 할 운이요
 허허 우리집 경사났네 허허 우리집 장원났네
 메놀아가 앓었다가~ 여보시오 시누아씨 꿈이라고 헛다하믄
 좋으믄 좋다하고 궂으믄은 궂다하제 존 것도 좋다하고 구진 것도 좋닥하믄
 꿈 해명이 되오리까 아버지 효녀 메놀아가 꿈 해몽을 하오리다
 옛날에 우리 집에 친정댁에서 불러지믄
 정월이라 십오일날 일년 신수를 봐가지고 신수 막음을 하옵는데
 시집 온 지 칠년이 가까워도 그런 일도 없습디다
 초경에 꾸신 꿈은 먹던 수제가 부러진 게 아버지 은수저 명줄이 끊어지고
 이경에 꿈을 꾸니 썼던 갓이 절대가 토라져서 보인 것은
 아버지 장자님네 자손들이 굴건제복 할 운이요
 지춧돌이 밖으로 걸어나가서 보인다니 아마도 아버지 혼백이 나가라는 격이웁고
 지붕 우에 흰 개가 누여져 보인다니 아마도 아버지 옷으로 혼백 부르난 격입니다
 선산에 고목나무 동동이 갈라진 게 괄을 짜란 운입니다
 집안에 정자나무 우거져 보인다니 외빈하란 꿈이웁고
 그때는 장자님이 앓었다가 여봐라 메놀아가 어서 바삐 건너가서
 재 너메 또 재 너메 지옥선생 찾아가고 문복선생 찾아가서 문복이나 보살해라
 사마장자 메놀아가 그 말 잠깐 던진 후로
 마루로 들어가서 상가독을 반만 열고 생금 닷 되 싸가지고
 재 너메 또 재 너메 괄괄선생 찾아가고 지옥선생 찾아간다
 여보시오 봉사님 계시나요 봉사님 허는 말이 거 누라 나를 찾소
 날 찾을 이 없건만은 게 누라니 나를 찾소 장자님네 메놀아가 메놀아가 찾소이다
 문복선생 하는 말이 허허 나는 뻔 일 났다
 홀다섯에 솟아나서 쉬운다섯 다 되아도 장자님 댁에서는 점괘랑은 침일래라

문복선생 나오더니 왼발로 뛰어나와 장자 메누리 안고 들어가
 강남서 나오시는 도리쟁판에 정수를 받쳐놓고
 한번 산통 흔들더니 선영 조상에 발문하고
 두 번을 흔들으니 선영 조상 완분하고 떡발산애가 비쳤습네
 나는 이 점을 못하겄네 어서 가라고 독촉한께 장자님네 메놀아기
 머리에서 금봉채를 빼놔스로 통촉하야 주옵소사
 문복선생 허는 말이 사마장자 살릴 길이 한 가지는 있사오니
 그 말 잠깐 던진 후로 당신 댁에 집에 가서 앞으로는 금줄 띠고 옆으로는 황토 깔고
 섬술 짓고 섬밥 짓고 두대바지 채일 치고 짓고 화초땡풍 둘러치고
 의복 세벌 신 세컬리 돈 천냥에 말 시필에 칼 석자리 해 놓고 밥 석상을 차라갖고
 삼도 네거리 가았었으른 삼사제가 나올터니 그때잡고 사정하라
 사마장자 메놀아기 그 말 잠깐 들은 후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앞으로는 금줄 띠고 옆으로는 황토 깔고 부모에는 공경하고 조상에 공경하고
 섬술 지고 섬밥 지고 두대바지 채일 치고 화초땡풍 둘러치고
 의복 세벌 지어놓고 칼 석자리 말 한필 이도거리 저도거리 삼도에 네거리에 앉았은께
 삼사제가 나오더니 허허 나는 뽕 일 봤다 허허 나는 뽕 일 봤네~
 우리가 배고플 때 밥 한 술만 주제 우리가 목마를 때 술 한 잔 주제
 말 없을 때 신 한커리 주제 노자 돈 없을 때 돈 한 푼 주제
 이제 와서 부른다니 어서 먹고 어서 가자
 장자님네 메놀아기 그말 잠깐 들은 후로 여보시오 사제님네 우리 부친 살려주라
 아무리 애원하니 천둥같이 호령한다 장자님은 살았어도 삼십년 동안 살았어도
 인간에 적선하고 부모께는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없어
 저승왕이 불렀는데 무슨 잔말 하느냐고 천둥같이 호령하네~
 메놀아기 앉었다가 슬피앉아 통곡한께 광림사자 허는 말이
 여봐라 일직사제 월직사제 들어봐라 저승왕에 들어가든
 십이왕이 차례야 차례 차례 앉아 문초받고 앉었을 때 사마장자가 나오겄랑
 한일자 밑에다가 점 한나 딱 찍이든 삼천년을 산다드라
 옛날에 장자님은 메놀아기를 잘 두어서 삼천갑자를 살었건만
 우리 이수 인간들은 그런 방도 못하고로 황천객이 되어갔고~
 이도거리 저도거리에 삼도 네거리 귀신불러

인도하고 했는데 이것이 모두 이법이 장자님 책에서 이 법이 나왔노라

2. 신내림 받고 무녀가 된 산정동 명선님 보살

명선님(가명, 여, 77세) 무녀는 목포시 산정동에서 살고 있다. 그녀는 신안군 도초면 고란리에서 2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19세에 신교리로 시집을 가서 7남매를 낳고 키웠다. 35세에 신내림을 받고 무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명씨는 35세에 꿈을 꾸고 난 후 남편의 이종 조카가 몸에 실려 그 뒤로 무업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꿈속에서 하얀 면사포를 쓴 천사의 안내를 받아 천국으로 가서 죽은 당숙과 어머니 등을 만났다고 한다. 그리고 “오른손에 백기를 주더라고요. 또 경문책 2권을 주고 징장구 줌시룻, 아무 것도 모르는 무당들이 남의 가정에 사기를 치고 다닌게 너는 주는대로, 너는 사기를 치면 즉시 데려와 버린다. 주는대로 받음서 해라.”고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 꿈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심적인 무당이 돼서 일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 잠에서 깨고부터는 곧바로 신이 들려서 특이한 언행을 했다고 한다. 몸에 들린 시덥 조카는 법대 2학년일 때 고시를 합격하고서, 갑작스럽게 해서 죽은 학생이었다. 그래서지 함씨는 배운 적이 없는 영어나 한문을 들먹이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남편이 의원을 하고 있어서 환자들이 드나들곤 했는데 환자들의 운명을 맞추곤 했다고 한다.

“아침에 그냥 실리더라고요. 천하를 떠어버린 것 같어. 한문을 쓰고, 영어를 하고. 한문을 목판이로 탁, 아무 것도 모른 사람이. 벌써 의사집이라, 손님들면 ‘당신은 몇 시에 죽어.’ 그러는 사람들이 암시랑 안하던 사람이 가서 죽어.”

35세에 신이 들린 뒤 주로 점치는 일을 했다. 시어머니, 남편, 시덥 조카 세 분을 몸주로 모시고 있으며 집안에 신단을 차려 놓고 있다. 남편이 병을 치료하던 의사이고 조카가 학식이 많아서 그런지, 자신은 주로 환자들이 찾아와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런데 특이하게 직접 보지 않고 전화 통화로도 나이를 알면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서 곧바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몸에 실린 조카가 그렇게 알려준다는 것이다.

“나는 굶도 안 하고, 밥도 안 해놓고. 그냥 저런 간판도 없고. 무조건 전화로. 비금에서 전화가 왔는데, 머느리가 아프다고 안 하요. 그냥 다 말해버려라. 귀신이 붙었으면, 귀신이 붙었소. 신경통이요. 관절염이요. 나이만 넣으면 다 알아버려. [실린 조카가 말해주는 거예요?] 예. 상(床)같은 것도 안 놓

고, 그냥 말로 상통해버려. 어제도 서울에서 전화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요, 그러믄 ‘어떻게 그렇게 아요?’ 그라제. 그란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머시마가 그냥 다 말해버려.”

명씨의 사례는 독특한 점이 있다. 처음에 신이 들릴 때 꿔다는 꿈 내용이 기독교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고, 몸주신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는 점을 치는 일과 치병 의례를 주로 하고 있다. 큰 굿을 할 경우에는 가깝게 지내는 무당(세습무)들과 같이 하고 있다. 목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례에 속한다.

제3절 바다의례의 여러 양상, 혼건지기·뱃고사·풍어굿

항구도시 목포의 특성상 바다와 관련된 의례들이 특징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어업은 다른 생계활동보다 자연조건과 변화에 잘 적응하고 대응해야 하는 생계양식이다. 바다의례는 변화무쌍한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또한 바다를 관장한다고 여기는 초자연적인 존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해온 종교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배에서 고사를 지내고 굿을 하지는 않는다. 선주의 종교적 선택에 따라서 방식이나 형태가 달라지기도 한다. 특히 기독교를 믿는 이들은 배서낭을 모시거나 고사를 지내지 않는다.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을 중시하는 선주들은 배에 서낭을 모시고 있으며, 어로 안전과 풍어를 빌기 위해 명절이면 고사를 지낸다. 또한 배를 진수할 때 풍어굿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해난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죽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의례를 거행한다. 바다를 끼고 살아온 목포 어민들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목포의 뱃고사 중에서 특징적인 점은, 선주의 고향 부근 ‘선산’에 가서 출어고사를 지낸다는 것이다. 출어고사는 어장으로 가는 도중에 지내는데 선산이 바라다 보이는 바다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새해 첫 출항을 할 때에는 꼭 선산을 향해 고사를 지내고 마을 사람들을 모셔서 음식을 대접한다. 이때 선주는 비록 어장에 나가지 않고 뱃일을 하지 않더라도 선원들과 동행해서 뱃고사를 지낸다. 목포에서 어선어업을 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조도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로 선산이 보이는 조도 부근 해역에서 출어고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출항고사는 조상송배와 결합된 민속신앙이자 고향 주민들과 교류하는 친교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의례 중에서 최근 글쓴이가 현지조사한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행선고사 풍장굿’은 현재 전승이 온전하지 않지만 기존에 알려진 사례이므로 짚막하게 거론하기로 한다.

1. 혼건지기 씻김굿

목포 어민들은 인근 다도해만이 아니라 원해지역까지 다니며 어로활동을 한다. 그런데 곧잘 예측 불가한 상황에 노출되는 까닭에 해난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고기잡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죽는 경우 바다에 빠져 죽은 영혼을 건져서 천도하기 위해 혼건지기굿을 한다.

여기에 소개하는 굿은 2016년에 벌어진 사례다. 망자는 목포와 진도군 청등도를 오가며 생활하던 중, 청등도의 어장 그물을 보러 나갔다가 돌풍으로 배가 뒤집혀 실종되었다. 해경과 사선을 동원하여 수색하였으나 시신을 찾지 못하게 되자 그 상태로 혼건지기를 하고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굿은 진도에서 온 송순단(국가무형문화재 제 제72호 진도씻김굿 전수조교) 무녀 일행이 담당했다.

- 날짜 : 2016년 5월 26일
- 장소 : 목포수협 위판장 앞, 목포시 용해동 연세병원 장례식장
- 망자 : 박아무개(남, 79세)

목포수협 위판장 앞 바닷가에서 혼건지기를 했다. 장대에 굿베를 매달고 그 끝에 냇, 돈, 쌀을 담은 냇그릇을 묶어 바다에 넣어두고, ‘동방청제용왕’· ‘서방백제용왕’· ‘남방적제용왕’· ‘북방흑제용왕’이란 작은 깃발을 설치하고 혼건지기를 했다. 자식들이 차례대로 손대를 잡고 혼이 오르기를 기원했으나 특별한 반응이 없어서 애를 태웠다. 날씨 예보에 없던 비가 잠깐 내리자 망자가 슬퍼서 우는 것이라고 했다. 혼을 건져 올린 뒤에 장례식장으로 이동해서 본격적인 씻김굿을 했다.

장례식장에서는 안당부터 시작해서 초가망석 - 손님굿 - 제석굿 - 곶풀이 - 액막이 - 씻김 - 냇을 리기 - 희설 - 길닦음 - 중천 순으로 씻김굿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바다에서 사고를 당한 초상이고 망자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장례다보니 굿판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차분한 편이었다. 장례식장 사장에 의하면 시신이 없는 경우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입관을 한다고 한다. 굿을 한 다음날 진도에서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한다.



그림 1 목포 금화동 바닷가 앞에서 열린 혼건지기



그림 2 혼건지기 후 장례식장에서 열린 씻김굿의 한 장면

2. 행선고사 풍장굿 및 수협의 풍어제

1) 행선고사 풍장굿⁰³⁾

행선고사 풍장굿은 목포문화원에서 1990년에 발굴한 자료다. 1990년 10월 1일 목포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역광장에서 시민공개행사의 하나로 재연한 뒤 그해 10월 여수에서 열린 남도문화제에 목포시 대표로 참가하여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그리고 1991년 4월에 목포 수협의 협조를 얻어 제1회 풍어제를 갖고 재현한 뒤 정례적인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1992년에 열린 목포 대풍어제는 용왕제-위령제-풍어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것을 개괄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용왕제 : 굿을 시작하기 전에 용왕신을 청하는 굿

①용왕봉청굿 ②혼건지기

*위령제 : 바다에서 죽은 혼령을 위하는 굿

③혼굿 ④선부리 ⑤제석굿 ⑥액막음 ⑦넋올리기 ⑧고풀이 ⑨씻김 ⑩길닦음 ⑪중천

*풍어제 : 풍어를 비는 굿

⑫서낭굿 ⑬고풀이 ⑭풍장굿 ⑮헌식

2) 목포수협의 만선기원 2016 풍어제

목포수산업협동조합에서 주관한 ‘만선기원 2016 풍어제’는 2016년 4월 29일에 목포수협위원장에서 열렸다. 이 행사의 취지에 대해 팜플릿에 설명된 내용은, “험한 바다와 싸우며 조업하는 어업인들의 안전을 기원하고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를 더해, 어촌 전통문화의 재현을 통해 수산물과 수산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수산 관계인과 지역민이 함께 어울려 화합과 협동을 다지는 축제의 장을 열어 지역경제와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행사 개최의 목적에 대해서는 “지역 어민의 무사안녕과 만선을 기원하는 전통적 풍어행사를 재현하여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고 어촌 전통문화의 실존적 가치를 증대시켜 지역경제와 문화발전을 꾀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한다.”고 밝히고 있다.

풍어제 행사는 1부(개막식과 기원제)와 2부(풍어제)로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부는 식전

03) 목포시, 『목포시사』(1980~1994), 1997, 197쪽.

행사(풍물 길놀이)-내빈소개-국민의례-조합장 인사말-축사-축원문 낭독-헌주, 2부는 전통예술공연과 목포MBC 축하공연으로 꾸러졌다. 행사 내용을 보면 행사의 목적이나 취지와는 무관하게 공연 위주로 편성돼 있어서 풍어제라는 명칭과 거리가 느껴진다.

3) 2016 근해안강망수협 무사고 만선기원제

근해안강망수협에서 주관한 무사고 만선기원제는 2016년 11월 23일에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2016 근해안강망수협 무사고 만선기원제 및 가족화합 한마당’이란 명칭에서 보듯이 수협 조합원들의 소망과 단합을 기원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근해안강망수협은 전국적인 조직인데 목포에서 행사를 열게 된 것은 목포에 소속 조합원이 제일 많은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행사는 1부 기원제(씻김굿, 난타), 2부 개막식, 3부 축하공연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풍어제 축문에 행사의 목적이 담겨 있다. 축문 중에, “오대양과 동해, 남해, 서해에서 저희 근해안강망수협의 모든 가족들이 용왕님의 덕을 입어 출항시에는 무사고요 입항시는 만선으로 복락을 누릴 수 있게 은덕을 베푸시고 끝까지 보살펴 주소서.……바다를 배우고 바다를 닦으며 만경창파를 헤치고 피와 땀으로 어장을 일구는 우리 조합원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굵어 살피 주소서.”라는 구절에 행사의 기본 취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배 진수 풍어굿

배를 새로 짓게 되면 진수고사를 지낸다. 진수식을 하게 되면 으레 이웃 친지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다. 선주가 주관해서 간단하게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무당을 불러서 큰 규모를 갖을 하기도 한다.

여기에 소개한 사례는 2016년에 벌어진 진수굿이다.

- 날짜 : 2016년 6월 13일
- 장소 : 목포시 동명동 선창 및 선상
- 무녀 : 송순단
- 악사 : 박병원, 박동천, 조성재 외



그림 3 한영호의 진수굿. 뱃기를 매달고서 갑판위에서 진수굿을 하고 있다.



그림 4 한영호의 서낭

선주 박씨 부부가 한영호(가명, 연안안강망 24톤)라는 배를 짓고서 어로 안전과 풍어를 빌기 위해 마련한 곳이다. 한영호의 선원들은 선장을 제외하고 6명이다. 선원들은 전부가 베트남 출신의 노동자들이다. 진수굿을 주재한 이는 진도씻김굿으로 유명한 송순단 무녀다. 송씨는 목포수협에서 주관하는 풍어제에서 여러 번 굿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인상적으로 보았던 한영호의 선주가 송씨에게 이번 진수굿을 의뢰했다고 한다.

진수식이 열리는 날 오전에 뷔페가 마련돼 축하객들에게 점심 식사가 제공되었다. 배의 갑판에는 뱃기가 수십 개 걸렸다. 긴 장대에 위로부터 태극기, 상(上)기, 대어기(大漁旗), 선주기, 오색기 순으로 5개의 깃발이 매달렸다. 그리고 이웃 친지들이 선물한 오색기 15~6개가 바람에 나부꼈다. 각 오색기에는 선물한 이의 배 이름이 적혀 있다. 이로 보아 선주의 친구들이 선물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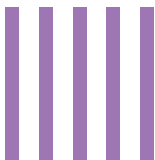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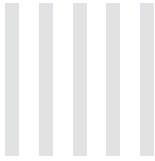
진수굿을 위해 선장실(서낭 앞). 엔진실, 갑판 위에 제물이 진설되었다. 부정을 물리기 위해 부정치기를 한 후에 서낭굿부터 본격적으로 굿이 시작되었다. 한영호에 모신 서낭은 '애기서낭'이다. 선장실의 침상 머리맡 선반에 서낭을 모시고 있다. 애기서낭은 박씨가 배 사업을 시작한 38세 이후 계속 모시고 있다고 한다.



그림 5 서낭에게 어로 안전과 풍어를 비는 서낭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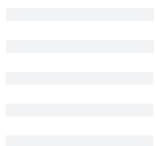
서낭굿을 마친 뒤에는 갑판에서 선주 가족의 복을 빌고 선원들의 안전을 비는 제석굿이 이어졌다. 그리고 엔진실에서 무사항해를 축원하고, 배 곳곳을 돌며 액을 막고 재수를 축원했다. 이어 목포대교 바깥 쪽까지 배를 운항하면서 어로 안전과 풍어를 빌었다. 귀항 할 때에는 선주의 친구들이 무녀·악사들과 어우러져 놀이판을 벌이며 흥겹게 놀았다.

이경엽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절 세시놀이

이유리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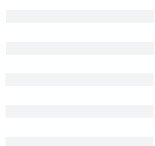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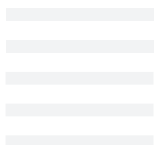
제2절 평시놀이

이유리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3절 공연화 된 민속놀이

이유리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8장 민속놀이

민간에서 전승되는 민속놀이는 그 형태와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놀이의 전승집단에 따라 전문인들의 놀이와 비전문인(일반인)들의 놀이로 나눌 수 있고, 놀이를 하는 시기에 따라 세시놀이와 평시의 놀이로 나눌 수 있다. 놀이에 참여하는 연령에 따라 어른놀이와 아이놀이로 나눌 수 있고 성별에 따라 남성놀이와 여성놀이로 구별할 수 있다. 그 밖에 놀이를 하는 인원수에 따라 집단놀이와 개인놀이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국중(國中) 놀이와 향토놀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까지 수집·정리된 한국의 민속놀이는 약 120여 가지로 추려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설, 정월대보름, 단오, 한가위 등 4대 명절에 집중되어있다. 우리나라 전통의 민속놀이가 농경의례와 깊은 연관성을 띠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목포의 경우 개항 이후 근대도시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른바 ‘민속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세시와 의례, 민속놀이 등의 분야가 상당부분 약화되어 전승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목포를 대상으로 한 민속자료의 조사 및 정리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이 글에서는 목포에서 전승되는 민속놀이에 대해 세시놀이를 중심으로 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더불어 남도문화제 등의 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하며 연출·각색된 민속놀이 항목을 추가하여 검토해보기로 한다. 현행되는 민속놀이와 주민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민속놀이, 공연 무대의 특징을 지닌 민속놀이를 구분하여 파악하기 위함이다.⁰¹⁾

01) 이하의 글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한국의 세시풍속-전라남도편』과 목포문화원의 『마파지』, 홍미희·엄수경의 『상리사람들』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제1절 세시놀이

1. 겨울·봄철의 세시놀이

1) 풍물놀이(결궁치기)

과거 온금동에서는 정초에 결궁을 쳤다. 마을 주민들은 결궁패가 본인 집을 향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면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집으로 어서 들어오기를 청했다고 한다. 집 마당에 고사상을 차렸는데, 집안 식구들의 손가락을 쫓은 쌀 위에 실타래를 걸고 그 옆에 돈을 놓았다. 쌀과 돈은 결궁패가 나갈 때 수거하여 가는데 이렇게 하면 그 해의 액막이가 된다고 여겼다. 집안으로 들어온 결궁패는 마당, 부엌, 장독 순으로 결궁을 치며 집안을 돈다. 안방에서 성주에게 축원과 덕담을 한 후 다시 마당으로 나와 한바탕 결궁을 치고 다음 집으로 이동한다. 마을의 결궁패는 복색을 갖춘 남성들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포수와 허수잡이도 있어 우스갯소리나 재미있는 덕담을 해주기도 했다. 안 좋은 일이 있는 집은 결궁패가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결궁을 친다. 이때는 고사상을 바깥에 차리는데, 집 주변을 돌며 결궁을 친 후 대문 바깥에 내놓은 고사상의 쌀 등을 가져간다. 이렇게 해야 액막이가 되기 때문이다. 결궁패의 전승이 점차 약해지며 중년에 이르러서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결궁패가 잠시 활동하기도 했으나 이제 그마저도 유명무실해졌다고 한다.

내화촌 역시 정초에 마당밧이를 했다. ‘꽃 화(花)’자가 들어가는 마을은 마당밧이를 해주어야 운수가 좋다고 하는 말이 있어 정월 초하루부터 마당밧이를 시작하여 온 마을을 풍물을 치며 돌아다녔다고 한다. 내화촌의 풍물패는 12명으로 쇠, 장구, 북, 대포수, 조리광대 등으로 이루어졌다. 대포수는 토끼나 꿩을 매단 가방을 메고 나무총을 들며, 조리광대는 수염 난 양반 가면을 쓴다. 대포수와 조리광대는 함께 돌아다니며 흥을 돋우거나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마당밧이는 당산제를 지내며 당산에서 술을 한잔 올린 뒤 시작하며 마당밧이를 끝마칠 때도 당산에서 마무리를 지었다. 풍물패는 집집마다 돌며 풍물을 쳐 주었는데 샘, 마당, 부엌, 안방 등 집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쳐 주었다. 한 집당 1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부잣집의 경우에는 식사 시간에 맞춰 들어가거나 밤늦게 들어가 밤새 음식을 얻어먹으며 놀고 나왔다고 한다. 마을기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풍물을 치기도 했으며 각출된 돈은 부녀회에 적립해두었다가 마을 잔치 등 행사에 경비로 이용했다고 한다.

부주두마을의 결궁패는 약 20명으로 쇠, 북, 징, 장고, 소고, 포수, 광대 등으로 구성되었다. 마을 앞 선돌에서 시작하여 마을 공동 우물을 돌아 각 가정을 방문한다. 가정에서는 쌀 혹은 보리쌀과 물 한 그릇을 올린 고사상을 미리 마당에 준비해 놓는다. 이 곡식은 걷어 마을기금으로 활용한다. 때문

에 상 위에 올려놓은 곡식이 시원찮은 경우에는 광대 등이 억지를 부려 쌀을 더 얻어내곤 했다. 집 안에 들어온 걸궁패는 마당, 안방, 부엌 등을 다니며 곳을 치며 축원을 해주고 장독대에서는 이 집의 장맛이 좋기를 기원한다.

상리마을에서도 정월 보름이면 어김없이 마을곳을 쳤으나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중단되었다. 쇠, 징, 장구, 소고, 포수, 양반 등이 있었으며 마당, 부엌, 샘 등을 돌며 곳을 쳤다. 집집마다 돌면서 곳을 치기에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8월 추석에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2)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정초에 마당이 넓은 집에서 행했다. 남자 편과 여자 편으로 나누어 줄을 당기는데, 여자 편이 이기면 풍년이 들고 남자 편이 이기면 마을이 기운다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줄다리가 끝나면 줄을 길가의 나무에 감아 놓는다. 상리마을의 경우 줄다리를 할 때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 편으로 편을 갈랐다고 한다. 남자와 여자로 편을 갈라 줄다리를 하면 여자 편이 대부분 이기게 된다. 나이 든 할머니들이 남자 편에 가서 남자들에게 똥침을 놓거나 간지럼을 태우기도 하고, 남자들 손에 솔잎으로 솔침을 놔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게 때문이다. 결혼하지 않은 총각의 경우에는 여자 편에서 줄을 당겼다고 한다.

3) 춘향이 놀이⁰²⁾

정초에 주로 처녀들이 노는 놀이로 ‘춘향이 각시 놀리기’ 놀이가 있다. 방 가운데 한 사람이 두 손을 합장하고 앉는다. 주변에서 “춘향이, 춘향이, 정글정글 내리시오”라고 주문을 외운다. 그러면 가운데 앉은 사람의 모은 두 손이 벌어진다. 노래를 부르다가 손바닥이 벌어지지 않으면 주변에서 “내리신다 내리신다” 라고 다시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하면 두 손이 점차 벌어진다고 한다. 이를 ‘신이 들린다’고 표현한다. 춘향이 신이 내리면 정신을 잃고 일어나서 춤을 추며 논다. 신이 들린 것을 다시 깨우기 위해서는 찬 물을 세 모금 먹어야 한다. 각 동네마다 가사가 약간씩 다른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02) 2016년 5월 2일 대성동 현지조사.

언골 춘향아씨
남원골 춘향아씨
춘향아씨 생일날은 사월이라 초파일날
날도 좋고 달도 좋은날
정그정그로 내리신다
내리신다 내리신다
춘향아씨가 내리신다

남원골 정골 정춘향
정글정글 내리시오
아리롱 고개로 넘시다

4) 윷놀이

농사를 짓는 경우, 설이 지나고 대보름까지는 크게 바쁜 일이 없다. 이러한 농한기에는 윷놀이를 하며 노는 경우가 많았다. 목포 사람들은 주로 종지윷을 만들어 놀았다고 한다. 단단하고 가벼운 나무를 어른 손가락 마디 크기로 자르고, 마당에 명석을 깔아 종지기에 담아 던진다. 이 놀이는 보름까지 지속되는데, 보름 이후에는 한 해 농사준비로 인해 하지 못한다고 한다. 내화촌에서는 대추나무, 감나무로 윷을 만들어 놀았다. 종지에 담아 던지며 놀기에 종지윷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도·개·걸·윷·모 중 도가 나오면 한 칸, 개는 두 칸, 걸은 세 칸, 윷은 네 칸, 모는 다섯 칸을 이동할 수 있다. 윷이나 모가 나오면 한 번 더 던질 수 있다. 말판은 29개의 점을 찍어 네 개의 말이 먼저 돌아오는 편이 이기게 된다. 흔히 ‘도’는 돼지, ‘개’는 개, ‘걸’은 닭, ‘윷’은 소, ‘모’는 말에 비유되기도 한다.

5) 뿔싸움

정월 열나흘날 저녁이 되면 동네 아이들이 유달산 위에 모여 쥐불놀이를 했다. 유달산 일대에 거주하는 온금동 아이들이 산 위에서 모닥불을 피우면 맞은편에 위치한 용당동이나 산정동 일대에서도 모닥불을 피워 올렸다. 각 마을 아이들이 서로 자기 마을의 모닥불이 더 크고 환하게 보이기 위해 마른 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피운다. 건너편 마을보다 자기 마을의 불이 환하게 보이면 그 해 풍년이 든

다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경쟁이 붙어 불을 크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유달산에 난 불이 제일 역세고 컸다고 전한다.

6) 쥐불놀이

열나흘날 저녁에 아이들이 깡통에 불을 당겨놓고 언덕에서 돌리며 쥐불놀이를 했다. 주로 남자아이들이 모여 노는데 가끔 철 없는 어린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을 따라다니며 놀았다고 한다.

7) 가랫불 피우기

열나흘날 저녁에 마당에 대나무 가지로 모닥불을 피우는데, 이를 '가랫불'이라 한다. 가랫불을 피우면 그 집의 주인이 불 위를 몇 번이고 뛰어넘는다. 이렇게 하면 그 해는 아무 사고 없이 지낼 수 있다고 믿는다. 상리마을의 경우 할머니나 어머니가 마당 한 가운데 대나무를 베어다 불을 놓고 아이들에게 넘게 했다. 이렇게 해야 액땀이 된다고 한다. 가랫불은 주로 남자아이들의 나이대로 넘는데, 여자의 경우에는 치마를 입기 때문에 치맛단이 탈 염려가 있어 넘지 않고 주위를 빙빙 돌았다고 한다.

8) 더위팔기

더위팔기는 전국적 분포를 지닌 놀이다. 목포에서도 역시 동네를 가리지 않고 전승된다. 정월 보름날 새벽에 친구의 이름을 불러 친구가 대답하면 “내 더위! 내 더위! 내 땀!”이라고 외친다. 그러면 그 친구에게 한 해의 더위를 판 것이 된다고 한다. 이것을 먼저 아는 사람은 보름날 아침에 다른 사람이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해가 뜨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해 뜨기 전에 해야 한다.

9) 연날리기

연날리기는 정월 초하루부터 대보름에 걸쳐 많이 행해지는 놀이다. 연의 뒷면에 액(厄), 송액(送厄) 복(福) 등의 글자를 써서 높이 날려 실을 끊어 보내면 한 해의 액을 없앤다는 말이 전한다. 온금동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하지 않고 몇몇 아이들이 연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일부 아이들은 열나흘날 저녁 마당에 피우는 땃불에 연을 태우는데, 이렇게 하면 액땀이 된다고 한다. 상리마을에서

는 열나흘날이나 보름날 저녁에 연을 날려보냈다. 보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연을 날리지 않았다고 한다.

10) 화전놀이

봄이 되면 또래의 친구들끼리 봄나들이를 가곤 했다. 내화촌의 경우 마을 앞에 있는 ‘구지섬’에 가서 놀았는데, 물이 많이 찼을 때는 배를 타고 가지만 물이 빠진 날에는 바지를 걷고 건널 수도 있었다고 한다. 이 마을의 화전놀이는 본래 남성들이 무리지어 노는 놀이였는데, 여자들도 무리를 지어 구지섬으로 놀러 간 적도 있다고 한다. 술과 돼지고기 등을 준비해 가서 풍물을 치며 하루를 놀고 왔다고 한다.

11) 풀피리 불기

봄철에 아이들이 산에 풀을 베러 갔다가 노는 놀이다. 풀로 피리를 만들어 불며 논다. 피리는 주로 보리대의 순을 뽑아 연한 부분을 입으로 잘근잘근 씹어 더욱 연하게 만든다. 이렇게 피리를 만들면 소리가 잘 난다고 한다.

2. 여름철의 세시놀이

1) 단오놀이

상리마을에서는 단오날 여자들이 모래찜을 갔다고 한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영암의 덕진다리나 함평 돌머리 인근으로 모래찜을 다녔다고 한다. 단오날 아침 목욕재계를 하고 출발하는데, 가는 길에 진짐승을 보면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 대부분 또래끼리 놀러가는데, 각자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서 간다. 아침 일찍 출발해 저녁 늦게 돌아오는데, 단오날 날씨가 쌀쌀할 때는 나뭇가지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가서 모래찜을 하는 돌레에 불을 피우고 놀았다고 한다.

2) 널뛰기

정초부터 보름, 단오날에 여자들이 주축이 되어 널뛰기를 논다. 두껍고 기다란 판자를 놓고 가운데

에 쪼단 같은 것을 권 후, 두 사람이 양쪽 끝에 올라가 뛰며 노는 놀이다. 마당이 넓은 곳이어야 여러 명이 놀기 좋으므로 마을에 잘 사는 부잣집의 양해를 구하거나 부잣집의 딸과 더불어 논다. 널뛰기에 사용하는 널빤지는 미리 관목을 준비해 둔 집에서 빌려오는데, 관을 짜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둔 나무로 널을 뛰면 관 입자에게 운수가 좋다고 한다. 관목을 오래 보관하면 쯤이 생기기 쉬운데, 단옷날 날씨가 좋을 때 내어 널을 뛰면 쯤이 먹지 않는다 하여 아이들에게 널뛰기를 할 수 있도록 내어주기도 했다고 한다.

3) 들돌 들기

한 여름 바쁜 농사일을 마치고 한가해 질 즈음이면 일꾼들끼리 들돌들기를 한다. 목포에서도 무더운 여름 일꾼들이 논에서 일을 하고 당산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면 들돌을 들며 서로 힘 자랑을 했다고 한다. 부주두마을의 들돌은 둥근형태로 잡기도 어렵고 무게가 무거워 들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이에 배까지 들어올린 사람이 매우 귀했고 무릎까지 올리는 것도 힘들었다고 한다. 과거 광산 김씨 종가 마당에 들돌이 있었다고 전해지나 현재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4) 그네뛰기

단오날 남자들이 씨름을 한다면 여자들은 그네를 뛰며 놀았다. 마을의 큰 느티나무나 소나무 가지에 그네를 매달아 놓고 놀았는데 4월 초파일부터 단오까지 지속하였다. 내화촌에서는 여성 몇 명이 당산나무에 그네를 매고 타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마을에서는 단오를 명절로 여기지 않아 단오때 그네를 타는 일이 많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한 번 그네를 매어 놓으면 2~3일간은 계속 타고 놀았다고 한다. 부주두마을에서는 마을의 광산 김씨 종가 마당이 가장 컸기에 그 집의 마당에 있던 큰 나무에 그네를 매어 놓고 놀았다고 한다.

5) 만들이

세 번 김매기를 마치고 나면 한 해의 농사가 일추 끝나고 수확만을 남겨 두게 된다. 이에 세 번째 김매기를 '만들이'라 하여 집 주인이 일꾼들을 배불러 먹이고 노는 잔치를 벌인다. 대체로 6월 말 즈음인데 동네의 여러 집에서 만들을 벌이다보면 동네잔치가 계속 열리는 것처럼 된다. 만들을 하

는 날은 일꾼들이 일을 대충하는데, 김매기가 거의 끝난 상황이므로 형식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오전에 잠시 일하고 오후에 낮잠을 잔 후 닭죽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논다. 저녁이 되면 주인집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그 집의 상머슴과 주인을 각각 소에 태우고 일꾼들은 풍물을 치며 분위기를 돋운다. 한편 상머슴에게는 모 세 포기를 떼어 등에 지운 채 주인집에 들어가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모에 묻은 진흙이 상머슴의 옷에 묻어 옷을 버리게 된다. 주인집에서는 상머슴의 노고를 치하하며 새 옷을 선물로 내어준다. 일꾼들이 음식을 푸짐히 먹고 흥겹게 노는 날이라 한다. 상리마을에서는 소문난 부잣집으로 3~4집이 있었다. 소 등에 상일꾼을 태우고 집 주인이 이를 끌고 다녔다고 한다. 집 주인이 본인 일꾼들에게 술을 대어주고 성대하게 했다고 한다.

6) 내화촌 기우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인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기우제를 지냈다. 제장은 마을 뒷산에 위치한 무제봉으로 노독동 등 대박산 주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모두 다 참여한다. 기우제를 지내기 전에는 우선 무제봉에 있는 묘를 쓰기 위해 수색을 한다. 명산인 무제봉에 묘를 쓰면 비가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마을에 묘를 파러 올라간다고 소문을 내거나 광고를 붙여 묘를 쓴 사람이 있으면 미리 묘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경고를 한다. 기우제 전날 묘를 발견하면 무조건 파버리는데, 인근 5개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노인이 먼저 삽질을 한 후 여자들이 달라붙어 묘를 판다. 이후 가지고 온 요강에 퐁과 오줌을 가득 채우고 불을 질러 태운다. 이곳에 다시 묘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기우제 제관은 5개 마을 중 가장 연로한 노인이 맡는데, 한 해 동안 상(喪)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물로 돼지머리, 과일, 술 등을 준비한다. 축문을 읽으며 비가 오기를 빈다. 기우제를 마치고도 약 5일 간 산을 지키는데, 더 이상 묘를 쓰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우제가 중단된 지는 반 백 년이 훌쩍 넘은 일이라 한다.

7) 무우제(舞雩祭)

일 년 농사 중 가장 중요한 여름철에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이 들 조짐이 보이면 동네 어른들이 기우제를 지낼 것을 결의한다. 부주두마을의 경우 마을 뒷산인 부주산의 무제봉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이 마을에서는 기우제를 ‘무제’라 부르는데, 마을에서 학식이 있는 노인을 제관으로 선출하고 보조로 2~3명을 붙인다. 워낙 급하게 무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물을 크게 마련하지 않는다고 한

다. 간단하게 과일과 술을 장만해 산으로 올라가 제물을 진설하고 축문을 읽으며 비를 기원한다고 한다.

8) 상리마을 기우제

상리마을에서도 무제봉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여름철 비가 오지 않을 때 주로 지냈으며 인근의 중화·상리마을에서 제물을 준비했다. 제 순서는 진설-재배-축문-재배-음복 순으로 일반적이며 축문을 독축하며 “비가 와 주십사!” 3번을 크게 외친다고 한다. 오전 9시 경에 무제봉으로 올라 제물을 차린 후 11~12시 사이에 챙겨 간 짚을 태워 불을 피운다. 무제봉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이슬비라도 내렸으며 1주일 뒤에 반드시 비가 왔다고 한다.

3. 가을철의 세시놀이⁰³⁾

1) 강강술래

강강술래는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 전역에서 행해지던 부녀자들의 놀이다. 목포의 강강술래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고향 문화를 목포라는 도시 공간에 적응시켜 연행해 나가다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해체된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목포에서는 일제 때부터 8월 추석이면 시내 각급 학교에 주변 주민들이 모여 강강술래를 했다. 언제부터 목포에서 강강술래가 연행되었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930년대 후반에는 아주 일반화된 양상이었다고 한다. 온금동과 서산동 주민들은 유달국민학교에서, 죽교동 일대의 주민들은 북교국민학교에서, 대성동 주민들은 상업학교와 목포여고에서 강강술래를 놀았다고 한다. 해방 후에는 인근 지역의 학교에서 1970년대까지 연행이 지속되었고, 온금동 일대 주민들은 1933년까지 수도거리(조선내화공장 옆에 난 크고 작은 긴 통로)에서 강강술래를 연행했다.

일제강점기에는 향촌사회의 문화운동이라 할 수 있는 놀이의 주도층과 설소리꾼을 비롯한 연행의 중심인물들이 목포로 이주하여 살고 있었기에 쉽게 놀이판을 벌일 수 있었다. 일본 순사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놀이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강력했기 때문에 풍물연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강강술래만큼은 지속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해방 후 인구이동과 많은 외지인의 유입, 6·25전쟁 등으

03) 나승만, 『목포 시민들의 강강술래 연행 변천과정 고찰』, 『민요론집』 5, 민요학회, 1997.

로 인한 다양한 문화변동 속에서 목포의 강강술래 놀이판은 중단되고 소멸되었다.

대성동에서는 목포여고에서 강강술래를 했는데, 설소리는 주로 진도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매겼다. 일제 때에도 일본 순사들이 걸궁은 못하게 했지만 부녀자들이 모여 노는 강강술래는 허용했다고 한다. 통금이 없었기에 ‘달이 동천에서 떠서 중천에 오도록’ 놀았으며, 놀며 먹는 음식은 개개인이 준비한 것을 먹었다. 남녀가 손잡고 놀지는 않았고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강강술래판을 놀았다. 남자들이 손잡고 다니며 ‘칭칭칭이나 났네’하고 노래를 부르면 여자들이 와서 구경하기도 했다. 동네의 아이들도 뛰어다닐 만한 나이가 되면 또래들끼리 강강술래를 놀았다고 한다.

온금동에서도 주로 추석명절에 모여 강강술래를 했는데, 여럿이 모여 놀아야 멋이 있으므로 사람이 많이 모일 추석 명절에 했다고 한다. 강강술래를 노는 사람은 본인 흥에 겨워 노는 것이지만 잘 노는 경우에는 이를 구경하는 동네 사람들이 술을 받아다 주곤 했다. 동네의 유명한 강강술래 앞잡이가 ‘저녁에 강강술래하게 수도거리로 나오라’고 말하면 100~150명 정도의 주민이 모여 함께 놀았다. 내화촌에서는 정월 대보름에 여자들을 중심으로 강강술래를 했다. 넓은 부잣집 마당에 모여 놀았으며 목청이 좋은 사람이 선소리를 하곤 했다고 전한다.

제2절 평시놀이

1) 땅 뺏기

두 사람이 땅 바닥에 지름 1m 정도의 큰 원을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이 원 한 귀퉁이에서 안쪽을 향하여 자기 한 뼘의 작은 원 넓이만한 땅바닥을 갖게 된다. 가위·바위·보 대신 둥글 납작한 돌조각이나 사금파리를 자기 영역에서 상대 구역을 향해 튕겨 상대방이 처음 차지한 땅 안에 넣으면서 한 뼘 원만큼을 차지하는 놀이다. 이 놀이의 승자는 땅을 다 빼앗거나 더 넓은 땅을 가진 사람이다.

2) 닭싸움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편을 갈라 하는 놀이다. 두 손으로 한쪽 발을 잡고 한 발로만 서서 무릎이나 몸으로 상대방을 넘어뜨리면 이긴다. 이때 한쪽 발을 붙잡은 손을 놓거나 상대방을 손으로 밀거나, 발을 바꾸게 되면 진다. 땅에 둥글게 금을 그어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어 승부를 가리기도 한다.

3) 공기놀이

주로 여자 아이들이 하는 놀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놀 수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흔하게 행해진다. 5개의 작은 돌맹이를 가지고 하나 집기부터 넷 집기까지 한 다음 왼손의 엄지와 검지를 바닥에 대고 굴을 만들고, 그 앞에 돌을 던져 놓고 하나씩 굴 속에 집어 넣은 후 넷 집기를 한 번 더 한 후에, 그 돌을 손등에 얹어 놓고 다시 손바닥으로 받는 놀이다. 놀이를 하면서 돌을 잡을 때 다른 돌을 건드리거나 손등에 얹힌 돌맹이를 다 잡아채지 못하면 지는 것이다. 이 방법 외에도 많은 공기돌을 흩어놓고 1개의 돌을 위로 던짐과 동시에 바닥의 돌을 2개 이상씩 집어 많이 따낸 사람이 이기는 방법도 있다.

4) 남대문 놀이

두 사람의 술래가 양 손을 맞잡고 쳐들고 서서 남대문이 되고, 나머지는 앞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원을 만들어 노래를 부르면서 남대문을 빠져나가다가 노래가 끝나면 술래가 들고 있던 손을 내려 지나가는 한 사람을 잡는다. 잡힌 사람이 다시 술래가 되거나, 잡힌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 양쪽에서 허리를 잡고 줄다리기를 하며 진 편이 이긴 편을 업어준다. 다시 진 편에서 술래를 정하여 놀이를 지속한다.

5) 비석치기

주로 남자 아이들이 동네 어귀나 마당, 길가에서 즐기던 놀이다. 약 4~6m의 사이를 두고 각자 선을 그어 놓고 가위·바위·보를 하여 진쪽은 손바닥만한 자기 돌을 선 위에 세워놓고 이긴쪽이 돌을 던져 그것을 맞춰 넘어뜨린다.

6) 자치기

‘자’는 막대기를 뜻한다. 땅바닥에 길쭉하게 판 흙 위에 작은 막대를 가로 놓고 큰 막대로 튕겨서 쳐낸 후 큰 막대를 다시 흙 위에 걸쳐 놓으면 수비팀에서 작은 막대를 집어 큰 막대를 맞춘다. 못 맞추면 2단계로 넘어가 때려 앞쪽으로 멀리 나가게 한다. 3단계에서는 흙 앞쪽에 작은 막대를 비스듬히 세워놓고 그 끝을 큰 막대로 쳐서 공중에 떠오르게 한 후 다시 큰 막대로 때려 멀리 보낸다. 2단계

와 3단계를 마치면 흙에서 작은 막대까지의 거리를 큰 막대로 잴다. 작은 막대가 흙 뒤로 가거나 수 비측에 바로 잡히면 죽게 되어 공격과 수비를 바꿀 수 있다.

7) 제기차기

제기를 발로 차서 올리기를 되풀이하는 놀이다. 제기를 보통 구멍뚫린 엽전이나 둥근 쇠붙이와 창 호지 또는 비닐을 이용해 만든다. 제기를 찰 때마다 발을 땅에 대면서 발안쪽으로 차는 맨제기, 찬 발을 땅에 대지 않고 계속해서 차는 개척구, 오른발과 왼발을 번갈아가며 차는 쌍발제기 등이 있다. 제기를 찬 수를 세어 진 편은 이긴편에게 종을 드리는데,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제기를 던져 이긴 사람이 이것을 발로 차면 진 사람이 받아낸다.

제3절 공연화 된 민속놀이

1. 제21회 남도문화제 출연작 - 고하도의 탕건바위놀이⁰⁴⁾

탕건바위놀이는 고하도에서 볼 수 있는 기우제다. 양반이 쓴 탕건처럼 생긴 바위에 산 돼지를 제물로 바쳐 큰 줄로 탕건바위를 끌어당기면서 설소리를 매기고 농악을 친다. 이 탕건바위에는 얽힌 이야기가 있다. 옛날 힘 센 장수 혹은 궁녀가 많은 금은보화를 숨긴 곳이 바로 이 곳 탕건바위 밑이라는 이야기다. 탕건 바위에 돼지의 생(生) 피를 묻혀 이를 빗물로 씻어 달라는 기원과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탕건 바위 밑에 숨겨진 금은보화를 파내겠다는 위협의 무력적인 주술성을 가진 놀이로 간절한 기원과 순박한 위협이 담겨 있다. 고하도 탕건바위놀이의 순서와 연행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탕건바위 기우제의 의식은 탕건바위를 돌며 농악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제상이 나오면 산 돼지를 탕건바위 위에 얹어놓고, 제주가 절을 올리면 농악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절을 올린다. 제주가 “천지지신은 화위동심하셔서 이 땅에 큰 비를 내리게 하소서! 비를 내리소서! 만일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면 바위 밑의 금은보화를 파 내겠습니다. 장군님의 숨겨논 금은보화를 모두 파 내겠습니다” 라고 크게 외치며 기원한다. 이후 농악을 올리며 탕건바위에 줄을 걸어 끈다. 매김소리를 받아 줄꾼은 설소리에 맞춰 줄을 끈다.

04) 최덕원, 『고하도의 유적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5.

얼얼러 상사되여 얼얼러 상사되여
 비야 비야 내려라 얼얼러 상사되여
 비가 오시지 않는다면
 금도 캐고 보화도 캐네 얼얼어 상사되여
 나라님이 숨겨놓은
 금칼 보화 찾아다가 얼얼러 상사되여
 금칼 보화 찾아다가 얼얼러 상사되여
 우리 목숨 부지하세 얼얼러 상사되여
 금 나온다 금 나온다 얼얼러 상사되여
 장군님이 숨겨놓은 얼얼러 상사되여
 금덩이다 금덩이다 얼얼러 상사되여
 이것 저것 찾아다가 얼얼러 상사되여
 우리 목숨 이어가세 얼얼러 상사되여

〈이 때 탕건바위 밑을 5~6명의 장정이 삼으로 판다〉

금 나온다 금 나온다 얼얼러 상사되여
 금아금아 나오너라 얼얼러 상사되여
 금덩어리 아니 나면 얼얼러 상사되여
 탕건바위 혈어분다 얼얼러 상사되여
 우옛차 우옛차 우옛차 우옛차

〈이 때 탕건바위 위에 제물로 놓인 산 돼지의 목을 찢러 피를 흐르게 한다. 돼지 피를 바위에 뿌리며 제주가 “양반의 탕건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피를 하늘의 빗물로 씻어 주옵소서”하고 외치며 기원한다. 줄꾼들이 줄을 끌며 노래를 부른다.〉

양반탕건에 무슨 핏가 얼얼러 상사되여
 피를 보소 피를 보소 얼얼러 상사되여
 비 내려서 저 피 닦소 얼얼러 상사되여
 비 안 오면 모두 죽네 얼얼러 상사되여

비야 비야 많이 오소 얼얼러 상사디여
 저 피가 질 때까지 얼얼러 상사디여
 안산에 구름끼로 얼얼러 상사디여
 뒷산에 안개로세 얼얼러 상사디여
 저 비 내려 농사지면 얼얼러 상사디여
 부모님을 봉양하며 처자식을 하육하세
 얼얼러 상사디여

〈이 때 동네의 부녀자들이 나무단을 가지고 나온다. 제주가 재배하면 모두 따라서 절을 하고 나무단을 태운다. 바위를 끈 줄을 잘라 타고 있는 나뭇단 위에 놓는다. 농악을 울리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추며 한바탕 논다. 꺼진 모닥불의 재는 소쿠리에 담아 논 밭에 뿌린다. 농악을 울리며 마을로 돌아간다.〉

2. 제18회 남도문화제 출연작 - 고하도의 강강술래⁰⁵⁾

강강술래는 서남해안에 위치한 호남지역 전역에서 행해지는 민속놀이이다. 고하도의 강강술래는 충무공이 이 곳에 진을 옮기고 군량미를 비축하였던 사실이 주민의 민요적 정서와 접합되어 사설로 나타난다. 고하도의 주민들은 8월 대보름에 주민 전체가 강강술래놀이를 하며 밤을 세웠고 놀이 종류는 느린달놀이, 부녀놀이, 거꾸로돌기, 바르게돌기, 돌면서 빨리 느리게돌기, 같이 부르기, 병참놀이, 울돌목 물결놀이 등으로 구성된다. 사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달떠오네 달떠오네 강강술래	동해동창 달떠오네 강강술래
우리언니 어디가고 강강술래	언니그림 못잊어서 강강술래
달을보고 물어보세 강강술래	
한산낙엽 찬바람에 강강술래	한복지어 넣어놓고 강강술래
충무공님 장군께서 강강술래	고하도에 벗삼짓고 강강술래
노적봉에 벗짚가려 강강술래	왜놈들은 놀래어서 강강술래

05) 목포문화원, 『마파지』, 1994.

거북선을 거느리고 강강술래	학익진을 피어가며 강강술래
왜놈왜놈 쳐부수려 강강술래	호령하는 우리장군 강강술래
그호령도 우렁차라 강강술래	왜놈들은 물러갔고 강강술래
우리강산 진동했네 강강술래	한평생을 끈게살며 강강술래
피뿌리신 공일래라 강강술래	충무정신 거울삼세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3. 제22회 남도문화제 출연작 - 다순구미 당산제⁰⁶⁾

옛날 온금동에는 마을에서 지내던 동제의 일종으로 당산제가 전승되었다. 마을 지명을 인용하여 다순구미 산제 또는 온금동 당산제, 올피나루 산제당제 등으로 불리어 왔다. 유달산자락 다순구미 쪽을 바라보며 산제당이 있었고 정월 보름이면 이곳에서 주민들의 안녕과 집을 떠나 일하는 가족들의 안녕을 빌며 마을에 큰 탈 없이 한 해를 보내게 해달라고 산신령(유달산신)께 빌며 동네사람끼리 어울려 음복을 하고 한바탕 흥겨운 놀음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일제강점기에도 중단없이 지내오다가 1978년 새마을사업 당시 산제당을 부수어버리며 중단되었다. 산제당을 부수기 3일 전, 이전년도에 제주를 지냈던 사람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이곳에 못 있게 하니 나는 제주도쪽으로 가련다”고 현몽하였다고 한다. 이후 마을의 장정들이 외지에서 계속해서 죽는 일이 일어나자 산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제주도로 떠난 산신령을 모시고자 1994년도 음력 9월 9일에 해변가에서 굿을 하고 원래 산제당이 있던 곳에서 제를 모시며 한바탕 놀음을 했다고 한다. 이를 순서대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동네를 돌며 농악을 치면, 농악소리에 맞춰 사람들이 열을 지어 따라간다. 길놀이굿이라 한다. 산제당에 도착해서는 오늘 제를 지낼 곳의 흥축한 잡귀들이 땅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는 뜻으로 지신밧기를 진행한다. 동네 청년이 “산신령을 모시러 가세!”라고 외치면 바닷가로 산신령을 모시러 농악을 치며 이동한다.〉

산신굿 사설 :

대산 소산 산왕대신	대악 소악 산왕대신	대각 소각 산왕대신
대축 소축 산왕대신	미산 재체 산왕대신	이십 육정 산왕대신

06) 목포문화원, 『마파지』, 1994.

외악 명산 산왕대신	사해 피발 산왕대신	명당 토산 산왕대신
금귀 대덕 산왕대신	청룡 백호 산왕대신	현무 주작 산왕대신
동서 남북 산왕대신	원산 근산 산왕대신	상방 하방 산왕대신
홍산 길산 산왕대신	유달산 산왕대신 어려만수 어려대신이야	

〈제주도로 건너갔다는 산제당 신령을 모셔오는 산신굿을 한다. 굿이 끝나면 강신례를 하는데, 이는 신을 내리게 하는 뜻으로 향을 피우고 술을 모래 위에 붓는 의식이다. 굿판이 끝나면 산신령의 영정을 모시고 제당으로 오는데, 이때는 일절의 악기소리를 내서는 안된다. 제당에 영정이 모셔지면 당굿이 시작된다.〉

당산굿 사설 :

대범천왕 당산신	제석천왕 당산신	삼십삼천 당산신
이십팔수 당산신	오악지신 당산신	후토지신 당산신
동방청제 당산신	남방적제 당산신	서방백제 당산신
북방흑제 당산신	중앙황제 당산신	사해지신 당산신
용왕지신 당산신	동방대장군 당산신	남방대장군 당산신
서방대장군 당산신	북방대장군 당산신	중앙대장군 당산신
동방청제부인 당산신	남방적제부인 당산신	서방백제부인 당산신
북방흑제부인 당산신	중앙황제부인 당산신	갑을병방 당산신
자축인방 당산신	묘진사방 당산신	오미산방 당산신
유술해방 당산신	묘신산방 당산신	산금산 당산신
건공간존방 당산지신	당산선왕 당산지신	명당구진 당산지신
청룡백호 당산지신	주작현무 당산지신	산신국내 당산지신
일백이흑 당산지신	삼백사록 당산지신	오황육백 당산지신
칠적팔백 당산지신	구자지신 당산지신	이십사간 당산지신
올뵈나루 당산지신 어려 만수 어려 대신이야		

〈당굿이 끝나면 제사를 진행한다. 초헌은 제주가 맡아 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고 소지를 한다. 아헌은 도가나 집례 또는 동네어른 중 한 명이 올리고 소지를 한다. 종헌은 통장이나 마을 어른 중 한 분이 올리고 소지를 한다. 그 외 동네 사람 중 한이 있는 사람은 나와서 소지를 한다.〉

〈제사가 끝나면 바닷가로 이동하여 용왕신께 이물(음식)을 드리는데, 온금동의 경우 예로부터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아 동제 끝에 이 순서가 꼭 있었다. 제가 모두 끝나면 모든 사람이 음복을 하고 농악을 치며 흥겨운 시간을 보낸다.〉

4. 제20회 남도문화제 출연작 - 행선고사 풍장굿⁰⁷⁾

목포는 바다와 접해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고기잡이를 나가기 전 바다신에게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냈다. 이러한 과정은 바다에 인접해 있는 여타의 지역과 동일한데, 특히 바람신에게 기원하는 과정이 목포지역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바람 풍(風)과 베풀 장(張)자를 써서 '바람이 잘 베풀어 달라'는 뜻에서 풍장굿 또는 풍장놀이를 놀았다. 목포의 풍어제는 '행선고사 풍장굿'이 특이하다. 본래 온금동 일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한다. 풍장굿의 사설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서낭굿 :

해동조선 전라남도 목포시 어민들을 대표하여
마지로다 마지로다 천지신명 일월성신 사해용왕 북두칠성
대선왕, 조선왕, 황하 동심 아홉시고...(사설)

올려다보니 유달산 일등바위
내려다보니 고하도
돌아다보니 삼학도
다 굽어 보옵소서

동서남북 사해용왕님네
명주바람 실바람 푸른바다 맑은물에
칠산바다 건너가세
넓은바다 노는조기

07) 목포문화원, 『마파지』, 1994.

좁은바다 노는조기
 우리배 망장으로 다 들어오소서
 풍장굿 : (후렴제외)
 어하 어하 어하요
 닻배집 여편네 술동이 이고
 발판머리 궁지춤 춘다
 올뒀나루 고기배가
 바람차고 나가신다
 칠산바다 어서가세
 바람바람 불어서 뱃길 갈라놓아라
 바람바람 불어서 고깃길 열어라
 우리배 망장으로 모두들 들어온다
 우리배 망장으로 모두들 들어온다
 고기잡아 부모님 봉양하고
 고기잡아 자식들 잘 키워보자
 어서가서 마누라 보세

풍장놀이 : (후렴제외)
 어~어~화 어~화~요
 만경창파에 배 띄우고
 닻줄올리고 뱃머리 돌려라
 황금어장 서해바다로
 파도소리 장단마쳐
 힘차게 나가세
 갈매기 날고 배 떠나간다
 유달산은 멀어지고
 흑산섬은 가까워진다
 먼산은 안개가 끼고
 우리앞길은 밝아와진다
 바람불어 뱃길을 열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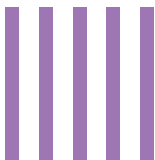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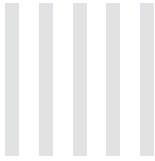
바람불어 고깃길 열어라
우리배 망장으로 다들어오너라
만선이다 만선이여
우리배가 만선이 되면
나라에는 충성하고
부모에는 효도하며
이웃간에 화목하세
가세가세 어서가세
우리고향 올피나루
달뻗집 아낙네 술동이 이고
발판머리에 궁지춤친다
놀아보세 놀아보세
흥겨웁게 놀아보세
먼데사람 소리듣기좋고
가직한 사람들 보기좋게
풍장놀이 놀아보세
어~어~화 어~화~요
어~어~화 어~화~요

이유리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4편

목포의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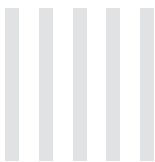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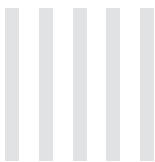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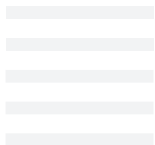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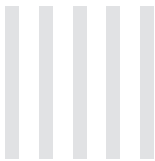
제1절 근대의 불교

최연식 |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제2절 현대의 불교

최연식 |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제1장 불교의 목포 전래와 성장

제1절 근대의 불교

1. 일본불교의 침투와 발전

목포에 불교의 손길이 닿기 시작한 것은 1897년 개항 이후부터이다. 즉 그 이전 시기에 한국불교의 전통사찰은 존재하지 않았다. 개항장 목포에는 일본인 조차지가 형성되었고, 1902년까지 900명이 넘는 일본인이 거주하게 되었다.⁰¹⁾ 자연스럽게 일본인을 위한 종교를 필요로 하였고, 곧바로 불교가 들어오고 일제강점 이후에 신도가 들어왔다.⁰²⁾ 다시 말해 목포에서의 첫 사찰은 일본 사찰이었다. 일제강점기 일본불교의 목포 진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⁰³⁾

표 1 일본불교의 목포 진출

사찰명	소재지	규모	신도 및 단도	최초로 진출한 해
진종 동본원사	무안동 4	부지 376평, 본당 70평	단도 197호	1898
진언종 대사사	복만동 3	부지 1,022평	단도 125호, 신도 90호	1901
정토종 정토사	하정2, 무안동	부지 1,300평, 건물 총 105평	단도 120호	1910
진종 서본원사	무안동	부지 635평, 건물 총 70평	신도 370호	1912

01) 고석규, 『근대 도시 목포의 역사 공간 문화』, 서울대 출판부, 2004, 80쪽.

02) 박현옥, 「근대 해양도시의 종교문화 교류-근대 목포의 해양도시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16, 부산대 일본연구소, 2015, 113쪽.

03) 목포백년회, 『목포개항백년사』, 목포신문사, 1997, 278쪽에서 재인용. 이 표는 1987년에 간행된 『목포시사 : 인문편』에 있는 김태현의 글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사찰명	소재지	규모	신도 및 단도	최초로 진출한 해
일련종 통조사	죽동 53	부지 377평, 건물 68평	단도 132호, 신도 150호	1912
조동종 흥선사	죽동 226	부지 388평, 건물 84평	신도 223호	1912
임제종 약사사	목포대1	부지 100평, 16평의 2층	단도 150호	1926
진언종 세호파교회 목포분교회	무인동11		신도 60호	1925

그런데 일본불교는 이보다 훨씬 앞서 20년 전부터 조선에 진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목포에서의 일본불교 포교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전 시기 각 종파의 조선 진출 현황과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목포 내 각 종파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반적인 조선 포교의 현황을 짚어보는 것은 목포불교 포교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문에서는 각 종파별 특징과 함께 목포에서의 활동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정토진종(淨土眞宗) 대곡파(大谷派)의 침투

강화도조약 체결 이듬해인 1877년, 가장 먼저 부산이 개항하였다. 이와 동시에 많은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건너왔고, 이 중에는 일본 정토진종(조도신슈) 대곡파(오타니파)가 속해 있다. 가장 먼저 부산에 건너온 대곡파는 차츰 개항지인 원산과 인천으로 세력을 확장했고, 결국 경성까지 들어갔다. 대곡파는 각지에 동본원사(東本願寺 히가시혼간지)라는 사찰을 건립하였다. 조선에 진출한 일본의 각 종파는 이처럼 개항지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교통의 요지를 따라 행정상의 주요 지점과 상업지를 중심으로 포교소를 설치해 나갔다. 이를 두고 일제가 정치적·경제적 침략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행시킨 종교적 침략 의도였다고 보기도 한다.⁰⁴⁾

대곡파는 조선 진출의 표면적 이유를 『조선개교오십년지(朝鮮開教五十年誌)』에 조선 내 일본 거류민의 생활 및 경제 기관 설치와 함께 정신적 위안 기관으로서 종교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쓰고 있다.⁰⁵⁾ 개항장의 조차지 내에 있는 수많은 일본인의 교육과 포교를 담당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책에 있는 다음의 내용은 조선 진출의 이면에 또 다른 진의가 있었음을 알게 한다.

04) 김순석, 「개항기 일본불교 종파들의 한국 침투-일본 사찰과 별원 및 포교소 설치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4, 144쪽.

05) 『조선개교오십년지』, 대곡파 본원사 개교감독부, 1927, 18쪽.

우리 본원사(本願寺)는 비록 정교는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종교는 곧 정치와 서로 상보적이기 때문에 국운의 진전 발양과 국민의 활동을 기도해야 할 것을 신조로 하고 있다. 명치정부가 유신의 대업을 완성하고 점차 지나, 조선 등의 여러 외국을 향하여 발전을 하는 때를 맞이하여, 본원사도 역시 북해도 개척을 위시하여 중국, 조선의 개교를 계획한 것이다. (중략) 마침 명치 10년 당시 내무경 오후보 도시미츠(大久保利通)는 외무경 데라지마 무네노리(寺島宗則)와 함께 본원사 관장 겐조(嚴如) 상인(上人)에게 편지를 보내어 조선 개교를 중용하고 또한 의뢰하였다. 곧 본원사에서는 제1차 개교에 공로가 있는 오후무라 죠신(奥村淨信)의 후예인 오후무라 엔신(奥村圓心)과 히라노 에사이(平野惠粹) 두 스님을 발탁하여 부산에 별원(別院)을 설치할 것을 명하였던 것이다.⁰⁶⁾

위 내용은 정토진종 대국파가 일본의 대륙침략과 보조를 같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일본 정부의 중용과 의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국파는 정부의 중용 때문만이 아니라 스스로도 조선 진출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했다. 특히 포교사였던 오후무라 엔신이 1898년 본산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우리 왕법의 본이 되는 충군애국의 가르침으로 한국민을 유도 계발하는 것은 실로 우리 교의 본지(本旨)이다.”⁰⁷⁾ 라는 내용이 보인다. ‘왕법위본(王法爲本) 충군애국(忠君愛國)’의 기치 아래 대외 침략 정책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⁰⁸⁾ 이러한 내용은 정토진종 대국파만의 인식이 아니라, 이후 조선에 진출하는 모든 종파가 지녔던 조선 포교에 대한 근본취지였다고 볼 수 있다.

대국파 동본원사의 오후무라 엔신은 1877년 명을 받고 부산에 건너와 포교소를 세웠다. 그런데 그의 출신 내력엔 위 인용문에서도 언급된 오후무라 죠신(奥村淨信)이 보인다. 죠신은 엔신의 선조로서 1585년에 부산으로 건너가 고덕사를 세우고 몇 년 뒤 임진왜란 때 종군승으로 활약한 이다. 공교롭게도 오후무라 가문의 두 사람은 300년의 격차 속에서 일본의 대륙진출에 첨병 역할을 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⁰⁹⁾ 엔신은 부산에 이어 1880년 개항한 원산에도 별원(別院)을 세웠다. 이후 동본원사는 1895년 경성지원을 경성별원으로 개칭하고, 1897년 광주와 목포에 포교소 및 실업학교 등을 설립하였으며, 1902년 경성에 본원사를 건립하였다.

목포에 일본불교가 들어온 것은 개항을 하면서부터이다. 가장 먼저 들어온 종파는 역시 정토진종 대국파 동본원사였다. 이때에도 오후무라 엔신의 역할이 포교의 단초를 열었다. 오후무라는 1882년 임오군란

06) 앞의 책, 18~19쪽.

07) 같은 책, 75쪽.

08) 채상식, 「일본 명치년간 정토진종의 추이와 그 특성-한말 불교침탈 배경과 관련하여-」, 『한국민족문화』 16,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0, 26쪽.

09) 박경운, 「근세불교의 연구」, 『근대한국불교사론』, 민족사, 1988, 24쪽.

때 일본으로 귀국한 후 10년 넘게 본국에 머물며 재차 조선 포교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다 누이 오쿠무라 이오코(奥村五百子)의 도움으로 당시 귀족원에 있던 고노에 아츠마로(近衛篤磨)에게 부탁해 동본원사 범주로부터 엔신의 출장 허락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¹⁰⁾ 『조선국포교일지』에 의하면 이때가 1897년 6월이다. 일지에는 고노에가 조선 포교에 찬성하면서 부산과 목포항에 갈 것을 지휘했다고 쓰여 있다.¹¹⁾ 그래서인지 몰라도 부산에 도착한 엔신은 8월 2일 개항 직전의 목포를 먼저 시찰한 후 인천을 돌아 부산으로 돌아왔다. 새로운 포교지를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쥬인(伊集院) 영사에게 목포를 포교지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야심차게 다시 목포로 향했지만, 목포주민들의 반대로 20일간 체류하고 9월 23일 광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¹²⁾ 목포의 개항은 10월 1일에 이루어졌다. 결국 엔신은 개항 직전에 목포에서의 포교를 접고 광주로 옮겨갔던 것이다. 목포에서의 첫 포교소 설치에 이듬해 봄에야 이루어진다.

비록 목포에서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엔신은 광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광주에서의 포교활동은 관찰사 윤용령의 협력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듯하다. 엔신은 1898년 1월 광주 포교에 대한 목적과 방법을 적은 보고서를 동본원사에 제출했다. 이때는 목포포교소가 개설되기 불과 3-4개월 전으로, 다음과 같은 엔신의 계획은 광주-목포 지역에 대한 동본원사의 포교 방침이 어떠했는가를 이해하는데 단서를 제공한다.

첫째, 식산흥업을 장려하여 가능한 한 물질적인 개발에 노력할 것

둘째, 승속을 불문하고 지방의 저명한 인물들을 장려하여 일본을 견학시킴으로써 일반인들에 대한 개

발과 보급을 꾀할 것

셋째,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청년을 계발할 것¹³⁾

엔신과 이오코 남매는 광주에서 1898년 실업학교를 설립하여 농업과 양잠에 대한 실험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학교 부속으로 시약원(施藥院)을 설치하여 의료 행위도 실시했다. 아울러 조선인 최세팔, 최간진을 데리고 일본 동본원사를 참관시키는 등 위와 같은 포교 계획을 성실히 수행해 나갔다. 이러한 계획과 활동은 일본의 ‘문명’을 조선인에게 수혜하고 감복시킴으로써 정토진종으로 유도하려는 의도였다고 할

10) 야마모토 조호(山本淨邦), 「대한제국기 광주에 있어서의 오쿠무라(奥村) 남매 진종포교」실업학교 설립을 둘러싸고-새로운 사료 『메이지31년도 한국포교일지』에 의한 통설의 재검토-, 『민족문화연구』 5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2, 218-220쪽.

11) 오촌원심(奥村圓心), 「조선국포교지(朝鮮國布教日誌)」(『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62, 민족사, 1996, 445쪽).

12) 『조선개교오십년지』, 68쪽.

13) 같은 책, 72쪽.

수 있다.¹⁴⁾ 위 내용은 비록 엔신의 보고서 내용이지만, 조선에 침투한 일본의 모든 종파들은 교의의 전파는 물론이고 위와 같은 식산흥업, 일본 견학, 학교 설립과 같은 구체적 포교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본원사의 목포 포교는 1898년 4월 니시야마 가쿠류(西山覺流)를 목포로 파견하여 지원(支院)을 개설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니시야마는 작고 보잘 것 없는 가건물 형태의 빈집을 임시로 빌려 포교에 착수했다. 이것이 목포에서의 첫 사찰이다. 개항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직 거류민 자체의 교육기관이 없었던 관계로, 그는 아동 교육에 전념하였다. 처음엔 영사관 부지를 차입하여 임시 사찰을 세우고 20명 미만의 아동을 모아 교육을



그림 1 동본원사 별원

시작했다. 마침내 같은 해 11월, 영사로부터 목포심상고등소학교의 설비인가를 받고 정식으로 개교하였다. 이것이 목포에서의 일본인 교육기관의 시초이다. 이 학교는 1902년 거류민회에 양도되었다. 동본원사 목포지원은 1904년 무안통 부지 일부를 매입하고 1905년 본당을 신축하였다. 1907년에는 지원이 승격되어 목포별원이 되었다. 목포별원의 본당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으며, 최근 근대문화재로 등록되었다.

2) 진언종(眞言宗)의 침투

동본원사 대국과 다음으로 목포에 들어온 종파는 진언종(신곤슈) 지산파(智山派, 치산파)였다. 지산파는 1901년 부산 금강사 주지 미타 세쇼(見田政照)를 목포에 보내 고야산 금강사출장소를 열게 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진언종의 종조 홍법대사(弘法大師)의 존영을 안치하였다. 2년 뒤, 출장소는 독립하여 목포교회소가 되고 정식으로 포교사가 상주하게 되었다. 거류민의 이주가 해마다 늘어가자, 교회소의 신도와 경제상태도 안정적으로 변모해 갔고, 1914년 총본산 지적원(智積院)의 말사로 등록되어 편조산(遍照山) 대사사(大師寺)라는 사호를 공인받았다. 포교의 영역도 확장되어 도내 광주와 나주 등에 출장소를 설

14) 야마모토 죠호, 앞의 논문, 244~245쪽.

치하였고, 1916년 1월에는 총독부로부터 사원 창립 허가를 받았다.¹⁵⁾ 이것은 목포에서 신법령에 의한 최초의 사원 허가 사례이다.

현재 대사사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진언종의 흔적은 유달산에 그대로 남아 있다. 홍법대사사와 88영장(靈場)¹⁶⁾을 두고 하는 말이다. 홍법대사(774-835)는 일본 진언종의 창시자로서 영원한 선정에 들어가 생을 마감한 고야산에서 지금도 중생을 구제하고 있다고[입정신앙(入定信仰)] 칭송되는 인물이다. 그의 사후, 수행승들은 그의 영묘가 있는 고야산을 방문하고, 이어서 그가 태어난 시코쿠(四國)의 켄쓰지(善通寺)와 그와 관련된 절들을 순례하였다. 이와 같은 순례는 에도시대에 와서 수행승만이 아닌 평민들도 참여하게 되면서 하나의 신앙이자 문화로서 정착하게 된다. 그러면서 순례 장소도 늘어나 88영장이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홍법대사가 시코쿠의 모든 영장을 걸어 다녔고 절을 개창했으며 순례 자체를 만들었다고 믿었다.

목포 유달산의 홍법대사사와 88영장은 바로 일본의 시코쿠 순례문화가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88영장은 홍법대사와 부동명왕 마애조각을 중심으로 유달산 등산로 곳곳에 만들어졌다. 일본열도 4개 섬 중 가장 작은 시코쿠는 불보살의 화신으로 숭앙되는 홍법대사의 고향이다. 일본을 떠나 조선에 온 진언종 승려들과 신도들은 개항장 목포에서 시코쿠 섬의 향수를 느꼈고, 마침 바위로 이루어진 유달산에 고야산 성지와 시코쿠 순례의 88영장을 함축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계속 유지해갈 수 있었다.

유달산의 홍법대사사는 1920년대 말에 조성되었고 88영장은 1931년에 완성되었다. 88영장의 불상은 해방 후에 파괴되거나 도굴되어 흔적만 남아 있는 상태다. 현재 목포문화원에는 22번 불상이 소장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개인 소장으로도 전한다.

3) 일련종(日蓮宗)의 침투

일련종(니치렌슈)은 정토진종 대곡파 동본원사 다음으로 조선에 들어왔다. 1881년 부산으로 건너온 와타나베 니치렌(渡邊日蓮)은 일종회당(日宗會堂 : 묘각사)을 세우고 조선에서의 첫 포교를 시작하였다. 이듬해엔 원산에 정묘사(頂妙寺)가, 1884년엔 인천에 별원이 건립되며 일련종도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이후 1895년 인천에 묘각사를 건립하고, 경성에는 교무소 및 일한학교(日韓學校)를 설립하였다. 이어서 1898년에는 경성에 호국사(護國寺)를, 1904년에는 원산에 최승사(最勝寺)를 건립하였다.

15) 『조선총독부 관보』 1916년 1월 27일, 제1042호.

16) 유달산의 홍법대사사와 88영장에 대해서는 이경화, 「일제강점기 목포 유달산의 홍법대사사와 88영장」, 『동북아역사논총』 47, 동북아역사재단, 2015 참고.

일련종은 조선개교 이유로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포교사로 활동했던 가토 분교(加藤文教)가 지은 『한국개교론(韓國開教論)』을 보면, 조선이 기독교화 되는 것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개교하였다고 한다. 해당 부분을 요약하면, “조선불교는 쇠퇴했고 기독교는 침입하여 날로 번성하니 10년만 지나면 조선의 종교가 기독교화 된다. 이는 조선의 안위와 발전에 관계되는 것으로 조선의 독립을 공고히 하는 일이 어찌 정치가들만의 몫이겠는가.”¹⁷⁾라고 일련종 조선 포교의 명분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몇 년 뒤 『대한매일신보』에는 “한국에 기독교가 번성한 것은 실로 일본 때문이다. 이제 또 불교를 확장 전도하여 널리 한국인을 유도하려 하고 있지만 이것이 반동력이 되어 기독교를 더욱 더 왕성하게 한다.”¹⁸⁾라는 사실이 실린다. 러일전쟁 후 통감부가 설치되는 정치적 변화가 일어난 뒤의 일이긴 하지만 일본불교 종파의 조선 활동에 대한 반작용(기독교의 왕성)을 지적하고 있어, 일련종이 말한 조선 개교에 대한 명분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가를 알게 한다.

한편 일련종 승려 사노 젠레이(佐野前勵)는 1895년에 승려의 도성출입금지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조선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는 조선시대에 법적으로 도성에 출입할 수 없었던 승려에 대한 위상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일본불교에 호감을 갖게 된 조선 승려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 또한 일본불교가 향후 조선에서 활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다음의 내용은 단순한 포교를 넘어 조선불교 전체를 통합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사노사(佐野師)는 경성에 체류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지만 조선불교의 생기가 이미 사라져서 승려에게 종승(宗乘)도 없고 종지의 신조도 없음을 간파하였다. 좋은 방편을 쓰면 그들을 일본불교의 종지로 개종시켜 일련종으로써 조선불교계를 통일하는 것이 반드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이 때에 조선 승려를 위하여 어려운 난관을 타개하는 은혜를 베풀고 이로써 그들을 우리 종파로 유인하는 계기를 삼고자 하였다.¹⁹⁾

이러한 인식이 일련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이보다 훨씬 이른 시기인 1880년에 정토진종 대곡파의 오쿠무라가 본원사 집사에게 보낸 의견서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이번 하나부사 공사가 조선국에 항해하게 되면 인천 개항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머지 일도 역

17) 가승문교(加藤文教), 『한국개교론(韓國開教論)』, 1900, 20~21쪽.

18) 『대한매일신보』 1906년 10월 16일.

19) 고교형, 『이조불교(李朝佛敎)』, 동경: 보문관, 1929, 893~894쪽.

시 허락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종교는 하루라도 늦출 수 없습니다. 속히 정부와 같은 날에 경성, 인천 사이의 좋은 곳에 당우(堂宇)를 건축하고, 청하기를 본원사로서 하여 8도의 사원을 통괄하는 형세를 보이면 조선 정부에서 어찌 그것을 등한히 간과하리오.²⁰⁾

1880년이면 동본원사가 조선에 진출한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다. 따라서 위 내용은 조선 진출의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조선불교의 병합(통합)에 있었음을 알려준다. 일본 정부가 전쟁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립하고 을사늑약과 병합을 체결하면서 정치적 지배권을 가져갔다면, 일본불교는 다양한 포교활동으로 불교 근대화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면서 유인책을 통해 조선불교를 통합하고자 했다. 결국 일본불교는 조선 진출 초기부터 순수한 의미의 포교를 넘어 그 이면에 상당한 정치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조선으로의 '진출'이 아닌 '침투'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일련종이 목포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11년이지만, 가포교소를 개설하고 공인을 받은 것은 1912년 9월의 일이다.²¹⁾ 이후 1915년 본당 건축에 착수하여 이듬해에 개당법회를 열었다. 총독부로부터의 사원 창립 허가는 다른 종파에 비해 조금 늦은 1923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졌고,²²⁾ 이때부터 원광산(圓光山) 통조사(統照寺)라고 부르게 되었다.

4) 정토진종(淨土眞宗) 본원사파(本願寺派)와 정토종(淨土宗)의 침투

일본불교의 조선 포교 양상은 청일전쟁(1894)과 러일전쟁(1904)을 계기로 크게 변화하였다. 일본의 각 불교 종파가 종군승을 파견하여 일본 군대의 위문을 자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두 전쟁은 모두 한반도에서 일어났다. 여러 종파에서의 종군승 파견은 자연스럽게 조선 진출의 문을 열게 된 열쇠가 되었던 셈이다. 이로 인해 청일전쟁에 종군승을 파견한 종파는 일찍이 진출했던 정토진종 동본원사와 일련종 외에 정토진종 본원사파(혼간지파)와 정토종(조도슈) 등이 추가되었다.²³⁾ 이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 도 서로 경쟁하듯 별원 및 포교소를 건립해 나갔다.

우선 본원사파는 1895년 8월 부산에서의 개교를 시작으로 각지에 서본원사西本願寺(니시혼간지)를 건립하며 세력을 점차 넓혀 나갔고, 정토종은 1897년 부산을 시작으로 이듬해 경성에 개교원을 설립하고 계

20) 오촌원심(奧村圓心), 「조선국포교지(朝鮮國布教日誌)」(『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62, 427쪽).

21) 『관보』 1912년 10월 9일, 제458호.

22) 『관보』 1923년 7월 20일, 제3283호.

23) 최병현, 「일제의 침략과 불교-일본 조동종의 무전범지(武田範之)와 원종-」, 『한국사연구』 114, 한국사연구회, 2001, 95쪽.

속해서 인천, 평양 등 요지에 포교소를 건립하였다. 이렇듯 전쟁 후 일본불교의 조선 진출은 현저히 늘어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일제시기 중앙불전 교수를 지냈던 에다 토시오(江田俊雄)는 일본불교의 조선개교를 세 시기로 나누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각기 그 기점으로 삼고 있다.²⁴⁾

특히 러일전쟁은 청일전쟁 때보다도 더욱 활발한 일본불교 제 종파의 조선 침투를 야기했다.²⁵⁾ 정치적으로도 더 이상 일본의 맞수가 없었으므로, 사실상 식민지로 가는 직전 단계에서의 포교 활동은 거칠 것이 없었다. 이에 각 종파는 대부분 1907년 경성에 포교감독소를 운영하고,²⁶⁾ 경쟁적으로 한국 사찰을 병합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엔 1906년 11월 17일 통감부령 제45호로 발표된 「종교의 선포에 관한 규칙」도 큰 영향을 끼쳤다. 전문 6개조와 부칙 2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제4조는 교·종파의 관리자 또는 포교자가 한국 사원을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통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무분별하게 경쟁하고 있는 일본 종파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결국 한국 사찰에 대한 관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법령의 공포였다. 몇 년 뒤의 일이지만 일본 조동종 승려로서 조선불교 원종과 연합협약을 체결하려 했던 다케다 한시(武田範之)조차도 앞다투어 조선 사찰과 약조를 맺고 있는 일본불교 제 종파를 보고 “조선 민족을 불쌍히 여겨 소생시키려 온 것인가, 조선 사원을 약탈하러 온 것인가.”²⁷⁾라며 개탄을 할 정도였으니, 이 당시 상황이 얼마나 경쟁적이었는지 짐작할 만하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국내 여론의 비판의 목소리는 종교·정치·내·외적 권력 상실에 가슴아파했던 통한을 느끼게 한다.

일본 승려가 들어와 경성에 정토종 교회를 시설하니 왕궁, 귀인으로부터 일반 신사에 이르기까지 다수가 찬성하였고, 계속해서 각 지방에 교회를 설립하여 전국에서 가르침을 듣는 자가 증가하더니, 금번 오탁니(大谷尊寶) 대사가 개교총감으로 내한하니 그 지위는 공작이요 세력가다. 이토(伊藤) 통감은 정치상 통감이요, 오탁니 총감은 종교상 총감이라. 대저 국가가 국가 됨은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이 있어서이거늘 지금 이 두 큰 권력은 모두 다른 나라의 손에 들어갔다. 정치력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수족을 결박하고,

24) 강전준웅(江田俊雄), 「명치 시대에 관한 일본 불교의 조선개교(明治時代に於ける日本佛教の朝鮮開教)」, 『조선불교사의 연구(朝鮮佛教史の研究)』, 동경: 국서간행회, 1977. 이 글은 1933년 동경에서 간행된 『현대불교(現代佛教)』 특집에 실린 논문이다. 일본의 조선 개교를 초기(1877~1894), 중기(1895~1904), 말기(1905~1911)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한편, 김순석은 에다의 구분이 다분히 일본인의 시각에서 일본불교의 교세 확장이라는 관점으로 이루어진 접근법이라고 지적하며, 침략모색기(1877~1895), 교세확장기(1895~1906), 병합확책기(1906~1911)의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시기 구분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단지 각 시기를 규정하는 명칭을 제시하였다(김순석, 앞의 논문).

25) 강전준웅, 앞의 논문, 430쪽.

26) 같은 논문, 432~433쪽. 이 논문에서 제시된 종파는 모두 10개이다. 진종대곡파, 진종본원사파, 정토종, 진언종교야파, 조동종, 신의진언종, 지산파, 일련종, 법화종, 임제종묘심사, 진언종제호파.

27) 고교형, 앞의 책, 919~920쪽.

종교력으로 정신을 빼앗았으니 무슨 여지가 있겠는가.²⁸⁾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조선 사찰은 일본 사찰의 말사로 편입되어 통제 받기 위해 관리청원(管理請願)을 신청하였다. 오히려 이러한 정황은 1906년 통감부의 사찰관리규칙의 반포와 함께 일본불교 각 종파들의 한국 사찰 병합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로 작용했다.²⁹⁾ 대곡파 동본원사의 기록엔 이 당시 관리 청원을 한 사찰이 23곳을 헤아리며, 이 중엔 해인사·범어사·화엄사·쌍계사 등의 큰 사찰까지 포함되어 있다.³⁰⁾ 본원사파 서본원사의 경우도 한국 강점 당시 말사대장에 등록된 사찰이 약 100개소에 달한다고 했다.³¹⁾ 조선 사찰들이 관리청원을 한 이유로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들이 은신하기 위해 사찰로 들어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들기도 한다.³²⁾ 말사로 등록된 사찰이 100개소에 달한다는 것과 의병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 등이 모두 일본인에 의해 기록된 것이므로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큰 사찰들까지도 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대적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 ‘일본 승려들이 빈틈을 타고 들어와 국내의 유명하고 큰 사찰들을 모두 점거하고 교권을 장악하였다.’고 한국인 민족주의자 박은식도 지적한 바 있다.³³⁾

아무튼 러일전쟁 이후 일본불교 제 종파의 조선 침투는 급격히 늘어났다. 1911년까지 한국에 상륙한 일본불교는 총 6개 종단에 11개 종파로 집계된다.³⁴⁾ 1904년 기준으로 일본불교는 12개 종단에 49개파가 있었다. 조선에 오지 않은 6개 종단의 경우, 당시 1천 9백만의 전체 신도 가운데 신도수가 겨우 백만 남짓의 소규모 종단들이었다.³⁵⁾ 따라서 일본 내에서 영향력 있는 큰 종단은 대부분 조선에 들어오고 있었다는 얘기다. 1895년이 되어서야 도성출입이 가능해졌던 조선불교의 처지로는 이미 근대화를 이루고 국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조선에 침투하고 있는 일본불교 세력을 막아낼 힘이 없었다. 조선 사찰의 관리청원은 당연히 ‘시대인식의 부족’, ‘민족의식의 부족’이라는 말로 해석되겠지만, 그 현실을 놓고 보면 아직 근대화를 받아들일 준비조차 미흡했던 나약한 조선불교의 구조적인 문제가 그 바탕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8) 『대한매일신보』, 1906년 10월 16일자 사설.

29) 최병현, 앞의 논문, 97~99쪽 참고.

30) 『조선개교오십년지』, 195~196쪽.

31) 청류남명(靑柳南冥), 『조선종교사(朝鮮宗教史)』, 대판(大阪): 조선연구회(朝鮮研究會), 1911, 131~132쪽.

32) 고교형, 앞의 책, 919쪽.

33) 박은식, 『한국통사』, 1915(『박은식전서』 권상,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75, 367쪽).

34) 『통감부통계연보(統監府統計年表)』, 1909; 청류남명(靑柳南冥), 앞의 책, 121~149쪽(김순석, 앞의 논문, 145쪽에서 재인용). 종단은 정토진종, 정토종, 진언종, 일련종, 조동종, 임제종이며, 종파는 진종대곡파, 진종본파, 정토종본파, 정토종진서(서산)파, 진언종고야산파, 신의진종지산파, 진언종제호파, 일련종, 법화종, 조동종, 임제종이다.

35) 김순석, 앞의 논문, 145쪽 참고.

정토종은 1910년부터 목포에 교회소 설립 준비를 하여 이듬해 5월 인가를 받고³⁶⁾ 정토종 종무소를 설치하였다. 1912년에는 아미타여래를 본존불로 봉안하고 입불식(入佛式)을 올렸다. 1916년 7월에는 총독부로부터 사원 창립 허가를 받고,³⁷⁾ 고송산(高松山) 정토사(淨土寺)라 이름하였다. 고송산은 사찰의 창건을 주도한 사람들의 성(姓) - 고뢰(高賴), 송전(松前), 송영(松永), 송정(松井), 송촌(松村) - 에서 고(高)자와 송(松)자를 딴 것이라고 한다. 이때부터 정토사는 본산으로부터 매년 1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1920년에는 유치원을 창립하였고, 1926년에 적금 4,000원을 기초로 본당 북쪽에 독립된 유치원을 신축하였다.

정토진중 서본원사는 1912년 8월에 가포교소를 세우고 목포출장소를 개설하였다.³⁸⁾ 이듬해 무안통에 635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돌담을 쌓고, 1917년 본당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가포교소로부터 이전하였다. 그에 앞서 서본원사는 1916년 총독부로부터 사원 창립 허가를 받고,³⁹⁾ 진광사(眞光寺)라고 하였다. 1918년 본당 공사가 마무리 됐을 때는 경성에서 개교총감이 내려와 전라도 각 포교사들을 초빙하여 낙성경찬법요를 성대하게 열기도 했다. 특히 서본원사는 1920년에 광주감옥분감으로부터 승격한 목포감옥의 전임교회사를 위촉받아 감옥 포교도 시작하였다.

5) 조동종(曹洞宗)과 임제종(臨濟宗)의 침투

일본불교 조동종(소토슈)과 임제종(린자이슈)의 조선 포교는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1910년대 이후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두 종파는 근대 한국불교 최초의 종단이었던 원종(圓宗)의 종정을 지낸 해인사 주지 이회광(李晦光)이 당시 조선불교와 일본불교와의 연합책동 파동을 일으킨 것과 관련된 종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동종은 1910년대 일본불교에 대한 우호를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한국 승려들에게 일본 조동종 대학으로의 유학을 알선했다. 그 결과 이혼성(李混惺), 김정해(金鼎海), 이지광(李智光) 등이 파견되었고, 1918년 그들이 졸업 후 귀국하자 대대적인 환영회가 열리기도 했다.⁴⁰⁾ 결국 이러한 환심은 조동종이 조선에서의 포교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그러한 의도는 조동종 승려 다케다 한시가 조선불교 전체를 조동종에 통합하려 했던 시도에서 분명해진다. 이회광은 이런 다케다와 함께 조선불교 원종파와 일본불

36) 『관보』 1911년 5월 15일, 제210호.

37) 『관보』 1916년 7월 13일, 제1183호.

38) 『관보』 1912년 10월 2일, 제452호.

39) 『관보』 1916년 4월 15일, 제1107호.

40) 「조동대학을 졸업한 삼씨를 환영함」, 『조선불교총보』 11, 1918.9.

교 조동종과의 연합을 모색했다.⁴¹⁾ 비록 이 연합 책등은 박한영, 한용운 등의 임제종운동과 총독부의 불허로 불발되었지만, 조동종의 한국 내 입지를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조동종은 1910년대에만 조선 각 지역에 31개소의 포교소를 설치하였다.⁴²⁾

그 중 목포포교소는 1912년에 설립인가를 받고 정식 출범하였다.⁴³⁾ 이로부터 신도수가 날로 증가하자 1917년 신도들의 협의에 따라 사원 건축을 착수하여 이듬해 3월 준공하였다. 같은 해 총독부로부터 사원 창립 허가를 받고⁴⁴⁾ 유달산 흥선사(興禪寺)라 이름 하였다. 흥선사는 광복 이후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인수하여 정혜원(定慧院)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현재 정혜원에는 1942년 1월 14일에 흥선사 2대 주지였던 광산각음(光山覺音)이 세운 ‘당산일세도현화상송덕비(當山一世道賢和尚頌德碑)’가 전한다. 비에는 창건주이자 1대 주지였던 도현화상이 1917년에 흥선사를 세운 일로부터 1930년에 병에 걸려 입적하기까지의 행적이 적혀 있다.



그림 2 일제강점기 흥선사(좌)⁴⁵⁾와 현재 정혜원(우)의 모습

임제종의 조선 진출은 타 종파에 비해 비교적 늦은 편으로 1907년에야 경성포교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교세 확장을 위해 경성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평양 등지를 순회하며 꾸준히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포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특히 대전선당건립회(大典禪堂建立會)를 구성하고 기부금을 모집하여 1918

41) 최병헌, 앞의 논문, 2001 참고.

42) 성주현, 「1910년대 조선에서의 일본불교 포교활동과 성격」,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매일신보』(수요역사연구회 편), 두리미디어, 2005, 163쪽.

43) 『관보』 1912년 10월 11일, 제460호.

44) 『관보』 1918년 7월 5일, 제1774호.

45) 이 사진은 흥선사 2대 주지 광산각음의 손자가 2016년에 보내온 것이다(목포시·정광정혜원, 『목포 정광정혜원 조사보고서』, 2016.10, 9쪽에서 인용).

년 6월 상량식을 열었다. 이로써 임제종도 조선에서 중요한 포교기지를 마련하였다.⁴⁶⁾ 임제종은 비록 다른 종파에 비해 조선 내 활동이 적은 편이었지만, 앞서 조동종과 마찬가지로 조선불교와 연합하려 했다는 점에서 야심은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도 연합책동의 조선불교측 주인공은 이회광이었다. 그는 불교를 개혁하자면 일본불교 세력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도모할 수 없다는 지론 하에 임제종 묘심파와 연합을 시도하려 했다.⁴⁷⁾ 일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임제종도 역시 조선 내 일본불교간 세력 경쟁의 대열에 본격 합류하게 되었다.

그런데 임제종의 목포포교소는 1926년이 되어서야 설치된다.⁴⁸⁾ 본당은 1927년에 낙성되었으며, 약사여래를 본존불로 안치하고 약사사(藥師寺)라 이름 지었다. 약사사는 일본인 조차지 내에 위치했으며, 일본 황족이 지었다는 설도 있다. 광복 이후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인수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약사사는 그 위치상 일본인 거주지 내에 있었기에 당연히 일본인을 상대했을 것이다. 반면 정혜원은 일본 사찰이긴 하나 조선인 거주지 내에 있었기 때문에 주로 조선인 신도에 대한 포교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해방 후 바로 한국불교에 인수되었고, 줄곧 목포불교의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해방 후 수십 년이 지나 2대 주지였던 광산각음의 아들이 어린 시절 지냈던 목포 정혜원을 직접 찾아왔었다고 한다. 왜색과 친일을 배격하는 한국 사회의 성향을 아는 한 단순히 감상과 그리움만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기란 힘들었을 것이다. 그만큼 정혜원이 조선인들과 유대가 깊었고 친목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일본불교의 포교가 대체로 일제의 조선 침투 목적과 수단으로서 비취었다면,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아무튼 일본으로 돌아간 그 아들은 이후 다시 편지를 보내왔다. 다시 찾아갈 수 있어서 좋았다는 말과 함께 지난 날 목포에서 죽어 공동묘지에 묻힌 형의 묘자리를 아직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온 내용이었다고 한다. 2016년에 주지로 부임한 화림스님이 정혜원의 연혁을 추적하던 중 이 편지에 관심을 갖게 되어 수소문 끝에 편지 주인공의 아들, 즉 광산각음의 손자와 연락하게 되었다고 한다. 손자는 현재 일본에서 주지를 하고 있으며, 식민지시대 흥선사에 관한 자료를 구하고 싶다는 화림 스님의 요청에 대해 당시의 사진 몇 장과 광산각음의 취임 축사문을 보내주었다고 한다.⁴⁹⁾

46) 성주현, 앞의 글, 169쪽.

47) 김순석,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경인문화사, 2003, 106~109쪽 참고.

48) 『관보』 1927년 4월 11일, 제82호.

49) 광산각음 후손들의 근황 및 정혜원과의 교류 내용은 2017년 1월 5일에 행한 정혜원 주지 화림 스님과의 인터뷰에 의함.

2. 전통불교의 등장과 발전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일찍이 조선에 들어와 일본 정부의 지원 아래 도심 속에서 포교 활동을 해왔던 일본불교의 제 종파는 목포에서도 활발한 포교 사업을 전개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불교의 전통사찰은 개항하기 전까지 하나도 없었으며, 그 이후 광복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새로 건립된 한국 사찰도 불과 5곳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전통사찰다운 모습을 갖추고 신도들의 적극적인 시주와 함께 사세를 갖추어 간



그림 3 반야사 전경

것은 달성사(達聖寺) 정도였다. 개항 이전까지 목포에 사찰이 없었던 것은 아마도 목포가 조선 세종대 만호진이 설치되면서 신설된 고장이었기 때문일 것이다.⁵⁰⁾ 방어(防牙)의 성격을 갖춘 변방에 조선의 역불정책상 사찰이 들어설 여지는 없었을 것이다. 비록 목포에서 한국 불교는 약소하게 시작되었지만, 이 시기 건립된 5곳 사찰은 오늘날까지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먼저, 가장 처음 창건된 사찰은 백양사포교당 영명사(永明寺)였다. 백양사의 말사인 불갑사의 주지 송혜은(宋慧恩)이 1908년 10월 6일에 창건하였다. 초기에는 불갑사에서 경영을 맡아 보았지만 재정곤란을 이유로 지원이 끊기자 시주들로부터 매월 백미(白米) 약간씩을 받아 유지해 나갔다고 한다. 연중행사로 신도들을 교당에 모이게 하여 매년 음력 10월 15일부터 다음해 1월 15일까지 90일간 수행하는 동안거를 시행하였다. 광복 이후 대한불교조계종에 속했으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사명이 반야사(般若寺)로 변경되었다. 변경된 이후 죽교 3동 192번지에 당우를 신설하여 이전하였고, 신도 수도 증가하였다. 신도 모임으로 반야사신도회가 있다.

현재 반야사 명부전과 칠성전에는 창건 초기 제작된 지장시왕도와 독성도가 걸려 있다. 지장시왕도는 1918년에 ‘백양사말사 불갑사 목포포교당’에 조성하여 봉안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독성도는 1920년에 ‘승달산 목우암 불사 중에 독성탱을 조성하여 목포부 포교당에 봉안한다’고 적혀 있다. 또한 일본인으로 부터의 시주도 있었다. 현재 본당 안에 일본식 범종이 남아 있다. 제작연대는 알 수 없으나, 종 내부에 ‘부산행정일정목(釜山幸町一丁目) 화전금물점(和田金物店) ……」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부산에 있던 와다철물점에 주문하여 제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불화와 범종

50) 고석규, 앞의 책, 2004, 40~45쪽.

은 목포에 처음 창건된 한국불교 사찰에 불사와 시주가 처음으로 진행된 역사적 증거물들로서, 현 반야사의 역사성을 고증하는데 중요한 유물들이다.⁵¹⁾

목포에 두 번째 전통사찰은 해남 대흥사의 승려 노대련(盧大蓮)이 1915년 4월 유달산의 동남방 기슭에 창건한 달성사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달성사 위치에 원래 대원사(大願寺)라는 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기록이나 증언은 현재 살필 수 없다.⁵²⁾ 노대련은 지역 유지들의 찬조를 받아서 절을 신축하고, 1917년 9월 15일 목포의 주요 관민과 신도들을 모아 개당법회를 개최했다. 이때 모인 신도가 수백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⁵³⁾

현재 사내에는 창건주와 그 당시 신도들의 시주현황을 알 수 있는 유물들이 상당수 전한다. 절에 들어서기 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아미타불석탑이다. 이 탑은 전형적인 양식을 탈피하여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층 옥신석에 ‘응화 2948년(1921) 5월 화주 노대련’이란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탑의 4면에는 수많은 신도들의 이름이 보인다. 아마도 노대련 선사가 절을 창건하고 개당법회를 가진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불사에 참여했던



그림 4 달성사 전경

많은 신도들의 공적을 기리고 아미타불의 가피로 극락왕생을 염원하며 탑을 세웠던 것 같다. 그 중에 가장 큰 글자로 새겨져 눈에 띄는 사람은 현기봉(玄基奉)이다. 그는 전라남도 부호 가문에서 태어난 대지주로서 1891년에 진사시에 급제하고 영암군 향교 장의와 향약소 도약장을 지냈다. 1900년대에는 영암군민 의장 및 목포부민의장을 지냈고, 1911년에 목포부 참사를 역임했다. 1911년에 2000두의 논을 60여 명의 친척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주었다고 전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이 지역의 대부호였는지 가늠할 수 있다.⁵⁴⁾

아미타불석탑을 지나 절에 들어가기 직전 왼편에는 달성사중수공덕비와 현기봉영세불망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그 중 현기봉영세불망비는 1923년 칠성각이 건축되면서 세워진 것으로 보이며, 현기봉의 아들

51) 반야사의 탕화와 범종 등은 2017년 1월 5일의 현지 조사에서 확인하였다.

52) 사찰문화연구원, 『전남의 전통사찰 I』, 사찰문화연구원, 1996, 142쪽.

53) 『매일신보』 1917년 9월 23일.

5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한국근현대인물자료.

현준호가 아버지를 위해 세운 듯하다. 비의 뒷면에는 계해년 4월 8일 화주 노대련이라는 기록이 새겨져 있다. 현준호는 담양 창평영학숙과 서울 휘문의숙에서 수학하고 1910년대 도쿄 메이지대학 법과를 나온 수재였다. 귀국 후 호남은행의 대표를 지내는 등 금융인으로 활동했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바 있다. 이런 그의 전력으로 인해 그는 1990년대 반민족문제연구소에서 편찬한 『친일파 99인』에 수록되기도 했다.⁵⁵⁾ 하지만 친일행적과는 별개로 이들 부자는 달성사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고, 경내에 들어가기 전에 세워져 있는 석탑과 비석은 그런 공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 아미타불석탑(좌)과 노대련선사 창공비(우)

창건주 노대련 선사와 관련된 유물은 앞서 살펴본 두 유물과 함께 경내에 있는 창공비와 유달산 등산로 중턱에 있는 미륵불이 있다. 먼저 미륵불은 일반적인 불상 조각이 아닌, '미륵불(彌勒佛)'이라는 글자가 양각된 형태로 바위에 새겨져 있다. 바위에는 '2952년 을축 4월'이란 기록과 함께 '창건주좌선대대련(創建主坐禪臺大蓮)'이 새겨져 있다. 이로써 노대련 선사가 좌선하던 곳에 달성사가 창건된 지 10주년이 되는 1925년에 미륵불을 새겼음을 알 수 있다.⁵⁶⁾ 그리고 경내에는 현기봉이 발원하여 굴착했다는 우물이 남아 있고, 그 옆에 '창건주 노대련 대선사 창공비'가 세워져 있다. '단기 4279년 10월 15일 건립'이라는 명문에

55)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친일파 99인(2)』, 돌베개, 1993, 194~200쪽.

56) 목포시, 『목포의 심장, 목원동 이야기』, 목포시청, 2016, 144~145쪽.

의해 1946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현 보현정사 주지인 정각스님의 증언에 의하면, 이 해는 노대련 선사가 입적한 해이다. 따라서 노대련 선사의 입적 후, 그를 기리면서 세운 비석이었던 것 같다. 뒷면에는 본사인 대흥사의 주지 이응명, 포교사 허승룡, 감원 조정환 등과 함께 수십 명의 시주자 명단이 새겨져 있다. 허승룡의 경우, 1947년에 조성된 약사사 칠성도에 ‘회주(會主) 비구(比丘) 당(堂) 승룡(昇龍)’이란 기록이 있어 대흥사포교당 약사사의 주지였음을 알 수 있다. 노대련의 뒤를 이어 달성사의 주지가 된 이는 박만성(朴萬聖)으로 1970년대까지 활동했다고 한다. 비문에 보이는 허승룡이나 박만성 등이 노대련 선사의 제자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외 문도는 그가 대처승이었던 관계로 크게 결성되진 못했던 것 같다.

지금까지 살펴본 유물들은 달성사와 직접 관계된 것들이었다. 그런데 현재 달성사에는 절의 역사보다도 훨씬 오래된 유물들도 전한다. 먼저 범종은 1760년(영조 36)에 주조된 것으로 본래 대흥사 만일암에 있던 것을 노대련 선사가 가져온 것이라고 한다. 명부전에 봉안된 목조지장보살반가상과 권속들은 1565년(명종 20)에 나주 용덕산 운흥사에서 조성되었고,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1678년(숙종 4)에 강진 만덕산 백련사에서 조성되었다.⁵⁷⁾ 이들은 달성사 건립 이후 옮겨온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다. 각기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29호와 228호로 지정되어 있다.⁵⁸⁾

목포의 전통사찰로서 일정한 사세를 유지하며 창건 당시의 유물을 보전하고 있는 사찰은 이렇게 달성사와 반야사 정도를 들 수 있다. 당시 유물이 잘 남아 있고 명문기록이 있기에 그 사정과 연혁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외 사찰들은 역사적 기록보다는 구전에 의한 내용을 통해 그 내막을 확인할 수 있다. 등곡암(燈谷菴)은 1922년에 김원막(金元漠)이 유달산의 동북방에 세운 절로서 백양사의 말사였다. 김원막은 1927년에 신도의 찬조를 얻어 작은 초당을 신축하였다. 1946년 1월 김임봉 주지가 절을 인수하였고, 이때 수도사(修道寺)라고 사호를 변경하였다. 이후 대한불교법화종에 소속되었다. 보광사(普光寺)는 1929년 10월 30일 승려 박운계(朴雲溪)가 창건한 절로, 백양사의 말사이다. 유달산의 동쪽에 있으며, 달성사와 등곡암의 중간에 위치한다. 현재 절에는 당시에 세워졌다고 전하는 석불이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1930년에 파월(把月)스님이 죽교동에 세운 관음사(觀音寺)가 있다. 이 절은 해방 후 법화종에 소속되었다.

이렇게 해방 이전 목포에는 5개의 전통사찰이 세워졌다. 그 중에서도 달성사는 현전하는 유물과 기록을 통해 단연 중심사찰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창건주 노대련 선사의 원력이기도 하겠지만, 그를 따른 현기봉과 같은 대부호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일제의 비호 속에 안정적인 포교를 전개한 일본불교 제 종파에 맞서 이와 같은 한국불교 전통사찰의 발호가 있었기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역량은 해방 후 목포불교의 발전에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었다.

57) 정영호, 「목포 달성사의 역사와 위상」, 『“목포 달성사 명부전 지장보살상과 복장물의 중요성” 학술대회 자료집』, 2015년 9월 18일, 3쪽.

58) 달성사의 유물들은 2017년 1월 5일의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제2절 현대의 불교

1. 해방 후 불교계 동향

해방 후 한국 불교는 식민지 불교의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전통 불교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그 변화를 위한 첫걸음은 비교적 빠르고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해방 후 불과 4일이 지난 8월 19일 재경 유지 승려들의 발의에 의해 일제하 교단 집행부의 간부들이 퇴진하고, 21일 김법린(金法麟)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선불교혁신준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교권 주도를 둘러싼 갈등 없이 원만한 인수인계가 진행됨으로써 식민지 불교의 청산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교체된 집행부는 한 달 뒤인 9월 22~23일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하고 주요 혁신안을 의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 사찰령 체제에서 나온 ‘조계종’이라는 종명의 폐지,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산태고사법’과 ‘31본말사법’의 폐지, 사찰령의 폐지와 함께 각 교구에 교무원을 설치하고 중앙에 총무원을 설치하여 통할케 할 것, 해방 직전 폐교된 혜화전문학교의 복교, 전국 불교재산 통합 등의 안건이 상정되어 결의되었다.⁵⁹⁾

그러나 30여 년 지속된 교무행정의 체질을 하루아침에 개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총무원이 주장한 사찰령이나 포교규칙 철폐에 대한 건의는 기독교 중심의 공인교 정책을 표방한⁶⁰⁾ 미군정에 의해 묵살되었고, 불교계로 불하되어야 할 일본불교 적산(敵産)도 상당수가 기독교 단체로 넘어갔다. 게다가 한국 불교에서 인수하기로 한 적산을 두고 총무원과 선학원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었고, 미군정이 사찰임시재산보호법의 인준을 보류하면서 적산의 불하원칙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⁶¹⁾

무엇보다 당시 개혁을 어렵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내부분열에 있었다. 교단 중심의 총무원 외에 혁신을 표방한 불교청년당, 혁명불교도동맹, 불교여성총동맹, 조선불교혁신회, 불교호법단 등 여러 단체가 등장하였고, 이들은 교단 집행부의 미온적인 개혁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1946년 12월 불교혁신총연명(후에 전국불교도총연맹으로 전환)을 결성하고 교단 집행부를 부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중요한 것은 교단 집행부는 점진적이고 보수적인 혁신을 추구하는데 반해, 이들 연맹은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졌다는 점이다. 여기에 선학원 계열이 혁신 단체에 합류하면서 대처승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교단 집행부에 대한 비판은 점차 비구-대처간 갈등의

59) 김광식, 「8·15해방과 불교계의 동향」, 『한국 근대불교의 현실인식』, 민족사, 1998 ; 「8·15해방과 전국승려대회」, 『한국 현대불교사 연구』, 불교시대사, 2006 참고.

60) 강돈구, 「미군정의 종교정책」, 『종교학연구』 12, 1993, 39쪽.

61) 이재현, 「미군정의 종교정책과 불교계의 분열」, 『불교정화운동의 재조명』(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조계종출판사, 2008.

심화로 번져갔고, 대처승=왜색승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되어 갔다. 이후 비구-대처 관계는 교단 주도권 싸움으로 전개되었고, 불교 전통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외면한 채 정체성 문제로까지 비화되면서 한국 불교의 가장 큰 해결과제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1954년 '왜색불교를 청산하고 한국불교의 전통을 회복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는 비구-대처간 싸움의 기폭제가 되어 양측의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전개되었다. 이승만이 물러나고 들어선 박정희 군사정권은 이와 같은 불교계 분쟁을 수습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1962년 통합종단이 세워져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증명 하에 양측간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승려의 자격과 집행부의 주도권 문제를 놓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결국 법정싸움 끝에 1970년 대처승들이 태고종을 창종하여 나가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되었다.⁶²⁾ 해방 후 한국 불교는 이렇게 내부 분열 속에서 제대로 된 식민지 불교의 청산을 이루지 못한 채 21세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이런 갈등 속에서도 전통의 회복과 함께 불교 본연의 본질을 추구하려 했던 시도와 노력은 일각에서 분명 일어났다. 1947년의 봉암사 결사와 고불총림이 대표적 사례이다. 봉암사 결사⁶³⁾는 해방 전 선학원에서 만난 이청담(李靑潭)과 이성철(李性徹)이 공동수행을 약속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초기 20여 명의 수좌들로 시작된 결사는 그들이 세운 공주규약에 따라 철저하게 부처님 법과 조사의 가르침에 따르고 자주자립의 노동생활을 통해 엄격한 수행풍토를 조성하였다. 봉암사 결사는 비록 6·25전쟁이 발발하며 막을 내려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해방 후 교계의 혼란 속에서 전통 불교의 정체성과 승려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했던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계승되고 있다. 특히 봉암사 결사의 의미와 정신은 당시 정화운동의 전개과정 속에서 비구측 승려들의 이념적 모태가 되기도 했다.

고불총림⁶⁴⁾은 송만암(宋曼庵)의 주도에 의해 백양사를 거점으로 전라도 지역에서 행해진 일종의 결사 운동으로서 오늘날까지도 계승되고 있다. 해방직후 세워진 조선불교혁신준비위원회의 고문으로 추대되기도 했던 송만암은 교계 집행부와 혁신단체간의 분열된 양상을 지켜보고, 1947년 2월 성도재일을 기해 왜색 식민지불교의 청산과 독자적인 불교정화를 선언하였다. 봉암사결사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과 조사의 가르침에 따라 불교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한 근본 취지는 같았다. 그러나 대처승을 인정하여 승려를 정법중(=비구)과 호법중(=대처승)으로 구분하였던 것은 당시 교계 분열현상에 대한 차선의 대안으로서 고불총림이 갖는 특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만암은 교단 구성원들이 종

62)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앞의 책 참조.

63) 김광식, 「봉암사결사의 전개와 성격」, 『한국현대불교사연구』, 불교시대사, 2006 참조.

64) 백양사, 『고불총림 백양사』, 정보문화센터 첼린컴, 1996; 김광식, 「고불총림과 불교정화」, 『한국현대불교사연구』, 불교시대사, 2006 참조.

파의식의 부재로 인해 태고국사 대신 보조국사를 종조로 내세운 것을 환부역조(換父逆祖)라 비판하며 교단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독자적인 교단개혁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불교정화 당시 만암이 대처승측에 가담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지만, 종조에 대한 계승 문제 이상의 다른 논의로 이어지는 않았다.⁶⁵⁾

해방 후 불교계의 최대 과제는 '왜색불교의 청산'이었고, 이 점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직·간접적 간섭에 의해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였다. 특히 90%를 점유하고 있던 대처승들을 왜색승의 이미지로 몰아가면서 불교정화에 대해 단순히 대처승의 축출 그 이상의 결실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일각에서 전개된 한국불교 전통의 회복 운동은 교계 중심부와 전국 사찰과 승려들에게로 확대되지 못하고 그 의미와 정신만이 높이 계승되었다.

2. 목포 지역 불사(佛事)와 중심 사찰

해방 후 목포에 있던 일본불교 제 사찰과 포교당은 당연히 적산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일본불교의 적산이 어떻게 불하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오늘날 알 수 있는 것은 조동종 사찰이었던 흥선사는 사명을 '정혜원'이라 바꾸어 백양사에서 인수하였고, 임제종 약사사는 대흥사에서 인수하였다는 정도이다. 그나마 오늘날까지 사찰이 이어졌기에 알 수 있는 연혁이다. 그밖에 목포에 최초로 진출했던 정토진종 동본원사 별원은 1957년부터 2007년까지 50년 동안 교회 건물로 사용되다가 최근에 등록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해방 이후 목포에는 비교적 잘 알려진 전통사찰로서 달성사와 반야사가 있었고, 적산으로 인수받은 정혜원과 약사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네 사찰은 목포불교의 발전을 주도하면서 중심사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달성사와 약사사는 대흥사의 말사였고, 반야사와 정혜원은 백양사의 말사였다. 그런데 정혜원은 얼마 후 송광사의 말사로 바뀌었다. 정혜원은 해방 직후에는 목포에 근거지를 가지고 있던 백양사에서 인수하면서 백양사의 말사가 되었고, 고불총림을 주도했던 송만암이 초대 주지를 맡았다. 고불총림 발기 당시 참여한 22개처 사찰과 포교당 명단에도 '죽동 정혜원 대표비구 상순(尙純)'이란 기록이 있어⁶⁶⁾ 고불총림이 창립된 1947년 당시에도 백양사 말사였음을 알 수 있다. 상순은 송만암의 제자로 1970년대 조계종 5대 종정을 지냈던 서옹 상순(1912-2003)으로서, 당시에 정혜원의 2대 주지를 맡고 있었다.⁶⁷⁾ 명

65) 김광식, 「고불총림과 불교정화」, 84쪽.

66) 명단은 1967년에 간행된 『만암문집』 101~102쪽에 게재되어 있다(김광식, 「고불총림과 불교정화」, 85쪽에서 재인용. 1997년 보완판 『만암문집』에는 이 발기인 명단이 생략되어 있다고 함).

67) 정혜원에는 1991년에 건립된 서옹 스님을 기념하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단에는 정혜원 외에 ‘목포포교당 대표비구 기협(箕浹)’과 ‘죽교 포교당 대표비구 지연(智演)’이 목포지역 발기인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당시 목포지역의 백양사 말사 및 포교당은 적어도 3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혜원은 해방 직후에는 백양사 말사였지만 1950년대에 들어와 송광사의 말사로 바뀌게 되었다. 송광사 출신의 정단암(鄭端岩) 스님이 주지를 맡게 된 것이다. 송광사가 목포로 진출하면서 백양사 측에서 정혜원을 송광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목포에는 전라남도 3본산인 대흥사, 백양사, 송광사가 모두 말사를 갖고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정혜원이 송광사 말사가 된 인연으로 1950년대 초에 송광사를 본사로 하는 효봉(曉峰) 스님의 상좌였던 고은 시인(법명 일초(一超))이 일시 정혜원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당시 전남대에 재학하면서 정혜원의 학생회를 담당하던 박재철(朴在喆)은 그와의 만남을 계기로 서울로 올라가 효봉 스님의 상좌로 출가하여 법정(法頂)이라는 법명을 받게 되었다.

고불총림을 주도한 송만암 스님과 문도들이 목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활동하면서 목포지역에 다양한 불사(佛事)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는 불상의 개금 및 조성과 불화 제작이 활발히 이루어진 상황이 현전하는 유물과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당시 불상과 불화 조성의 책임자는 화승(畵僧)으로 명성이 높던 금용당(金蓉堂) 일섭(日燮, 1900-1975)이었다. 그는 순천 송광사 출신으로 1922년에 마곡사의 화승 보응 문성(普應文性, 1867-1954)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이후 1930년대 중반 독립적인 불사를 시작하면서 1938년 김제에 부용사(芙蓉寺)를 창건하고 이곳에서 제자 양성과 함께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의 주요 업적을 살펴보면, 1935년 김제 금산사 미륵불 조성불사에서 미륵불의 보결과 개금공사를 담당하였고, 1938년에는 조선불교총본산 태고사의 창건불사에서 대웅전 내외벽의 단청과 벽화, 후불도를 맡아서 조성하였다. 이렇게 그는 큰 불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고, 오랜 기간 화승과 조각승으로서 쌓은 업적은 1971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에 지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⁶⁸⁾ 흥미로운 점은 그가 자신의 삶과 가정사, 교유관계 등은 물론 평생 동안 제작하였던 작품목록과 제작과정 및 참여 인원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는 것이다.⁶⁹⁾ 스스로 『연보(年譜)』라는 제목을 붙인 이 책에는 그가 목포에서 불사에 참여했던 내역이 고스란히 보이는데, 1947년 뿐만 아니라 1949년, 1953년, 1954년에도 불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68) 김영희, 「금용 일섭의 불상과 예술품-개인양식 성립기를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9, 불교미술사학회, 2010, 76~80쪽.

69) 신은영, 「금어 금용일섭의 『연보』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5쪽.

표 2 해방직후 목포지역 불사현황

구분	1947	1949	1953	1954
달성사	시왕상 개체, 지장상 1위 개금 (원주: 조경환, 중사: 신산, 화원: 창영·지족·현오) 시왕전 큰 영산상 2위 조성 (화원: 구봉·창영, 원주: 경환)			지옥도, 인간도, 극락도, 칠성탱, 산신탱 각1축 (법사: 하응선, 주지: 조경환, 창영·지족·지중)
백양사포교당 (반야사)	시왕상 10위, 지장상 1위, 좌우보처, 판관, 녹사, 장군, 사자, 동자 합하여 31위 조성(주지: 홍취산, 증명: 송만암, 화주: 김남하, 화원: 우일·홍선·창영· 지족·현오, 종두: 종하) 칠성탱 1축			
홍관사	여래와 관음 2위 개금(원주: 용기스님, 중사: 신산스님)	산신탱 1위(현오)		
정혜원	3위 개금, 후불탱 1축(원주: 이석호상순 스님, 도감: 지중, 증명: 만암, 화원: 명성·영곡·구봉·창영·지족)		칠성탱, 지장탱, 산신탱, 독성탱 (증명: 송만암, 감원: 지중, 화원: 구봉·창영·지족·영옥)	
대흥사포교당 약사사	칠성탱, 신중탱 2축(원주: 임경섭, 화원: 구봉·창영)			
학암사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산신탱, 독성탱, 지장탱 등 6탱 조성. 본존상 1위 개금(증명: 만암, 주지: 문수암, 화주: 제주보살· 내주, 화원: 창영·현오)		
보광사		6척 높이 미륵좌상(주지: 만성, 화주: 차보살, 석공2인)		
청명사			후불탱, 지장탱, 칠성탱, 신중탱, 산신탱, 독성탱(주지: 권용규, 화원: 구봉·창영·지족·영옥)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특히 1947년에 활발한 불사 활동이 있었다. 특히 백양사의 말사였던 정혜원과 백양사포교당의 조성불사에는 송만암이 증명으로 되어 있다. 고불총림이 일어난 해였고, 그 영향이 전라도 전 지역에 걸쳐 있었음을 상기하면, 목포에서의 불사 양태는 고불총림으로부터 야기된 전라도 지역의 불교 융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된다. 무엇보다 근대 고승 중 한 명이었던 송만암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새삼 느낄 수 있다.

여기서 불사를 진행했던 사찰들을 보면 앞서 언급했던 네 사찰, 즉 달성사, 반야사, 정혜원, 약사사가 모두 포함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반야사의 경우 『연보』에서는 그 사명이 보이지 않는다. 단지 백양사포교당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 반야사 칠성전에 걸려 있는 칠성도를 보면, 제작연도뿐만 아니라 위 표에서 보이는 시주질의 승려 명칭도 정확히 일치한다. 다만 제작연도 앞에 ‘유달산광명사(儒達山光明寺)’라는 기록은 혼선을 준다. 일제강점기에 백양사포교당 ‘영명사(永明寺)’가 있었음은 이미 살펴보았

다. 그렇다면, 일제시기 영명사가 광명사로 잠시 바뀌었다가 최종에는 반야사가 되었는지, 아니면 ‘광(光)’자와 ‘영(永)’자의 착각으로 인한 오해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원래 광명사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영명사라는 표기는 1987년에 발간된 『목포시사: 인문편』의 목포불교에 대한 서술에 처음 등장한 이래⁷⁰⁾ 이후의 자료들에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반야사에 소장된 칠성도와 금융 일섭의 『연보』에는 광명사라고 되어 있다. 영명사와 광명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1947년 당시 불사는 네 사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이들 네 사찰은 목포불교의 중심에서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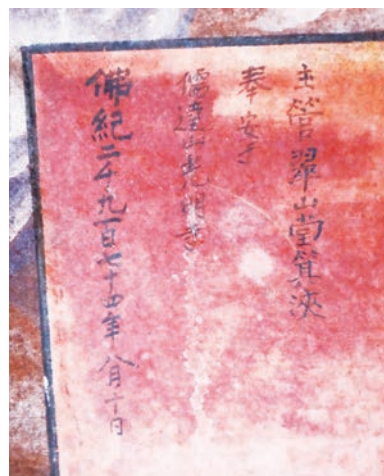


그림 6 반야사 소장 칠성도 간기부분

한편 흥관사(弘觀寺)의 경우 1936년에 조성된 지장탱, 칠성탱, 산신탱이 1995년 장흥 보림사에서 확인된 바 있는데, 시주자 주소가 목포부일 뿐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연보』의 기록을 통해 목포부 오포대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⁷¹⁾ 따라서 흥관사는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존재했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지만, 그 외의 기록은 아직 찾을 수 없다. 학암사(鶴岩寺)는 1947년 3월 15일에 창건된 사찰로, 문연(文蓮)이 창건주이며 문관욱(文官旭)이 대를 이어 주지를 했다고 한다.⁷²⁾ 그런데 최근에 발간된 『목포의 심장, 목원동 이야기』에는 학암사가 1946년 진(陳)씨의 토굴로부터 시작되었고, 1971년에 문수암(文洙庵) 문연(文蓮) 스님이 대웅전을 신축하면서 사찰로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⁷³⁾ 사찰 입구에는 창건功德비, 고창설주진씨법화행비(故創設主陳氏法華行碑), 관욱대화상공덕비(官旭大和尚功德碑)가 세워져 있다. 창건주 진씨와 문연(文蓮, 文蓮) 스님과의 관계는 의문으로 남지만, 일섭의 『연보』에 1949년 불사 시주자가 문수암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당시 문수암에 있던 문연이 학암사의 초대 주지를 지냈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연보』에 학암사 불사가 1949년 3월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으니, 학암사가 창건된 지 2년 만에 큰 불사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 외 보광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제강점기에 백양사의 말사로 창건된 사찰로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청명사는 그 유래와 연혁이 분명하지 않다.

70) 목포시, 『목포시사: 인문편』, 1987, 826쪽.

71) 신은영, 앞의 논문, 142쪽.

72) 목포시, 앞의 책, 831쪽.

73) 목포시, 『목포의 심장, 목원동 이야기』, 146쪽.

지금까지 해방과 6·25전쟁 직후 혼란했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목포에서는 불교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고불총림의 송만암으로부터 직·간접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의 목포불교는 현 보현정사 주지인 정각스님의 증언에 의하면, 달성사의 박만성(朴萬聖)스님과 정혜원의 정단암(鄭端岩)스님이 오랫동안 주지를 지내며 1970년대까지 불교발전을 이끌고 크게 융성했다고 한다.⁷⁴⁾ 만성스님의 경우 위 『연보』에 1949년 보광사의 주지로 기록되어 있고, 1947년 약사사 불사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실제 절에 있는 칠성탱을 보면 지전(持殿) 및 송주(誦呪) 비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박만성은 해방 이후 목포에서 활동을 이어간 주요 승려 중 한 명이었고, 1970년대 입적할 때까지 목포불교의 좌장 역할을 맡았던 승려였던 것 같다. 정단암에 대해서는 현재 자세히 알 수 없다. 정각스님에 의하면 이 두 스님이 달성사와 정혜원의 주지를 그만둔 이후 목포불교는 점점 쇠퇴했다고 한다. 앞에서 언급된 사찰들 외에 해방 후 1970년대까지 새로 창건된 사찰들로는 삼학사(1948), 해봉사(1945), 법주사(1960), 봉운사(1970), 보현정사(1971), 선덕사(1973), 선응사(1974) 등이 있다. 이들은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법화종, 한국불교태고종에 소속된 사찰들로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3. 1980년대 이후 목포불교 동향

1970년대 후반부터 목포불교가 쇠퇴했다고는 하지만 80년대에도 달성사, 반야사, 정혜원, 약사사, 보현정사를 중심으로 교회활동은 꾸준히 이어졌다. 신도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고, 정기적으로 매달 1~2회의 법회가 실시되고 불우이웃돕기, 경로잔치 등의 사회활동을 연계해 나갔다.⁷⁵⁾ 또한 80년대 초반에는 학생회 활동도 굉장히 활발했다고 한다. 1980년대에 목포에서 학교를 다니며 반야사 학생회에서 활동했던 정혜원 주지 화림 스님의 회고에 의하면⁷⁶⁾ 당시 반야사, 달성사, 정혜원, 삼학사, 보현정사, 약사사 등에 모두 학생회가 있었고, 한 달에 한 번 연합법회를 열었다고 한다. 특히 반야사 학생회는 ‘반야의 밤’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시민회관에서 학예발표회를 크게 개최했다고 한다. 하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며 이러한 활동은 점차 사라져갔고, 사세의 확장도 전반적으로 미진한 편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한국불교법륜종 소속의 보현정사는 1971년 180평으로 시작한 이래 1977년에 천불전

74) 2017년 1월 5일의 정각 스님과의 인터뷰에 의한.

75) 목포백년회, 앞의 책, 444~447쪽.

76) 2017년 1월 5일의 화림 스님과의 인터뷰에 의한.

을 짓고 1980년에 법당 건물을 올리는 등 현재 1만평에 가까운 규모로 확장될 정도로 크게 발전하였다. 현재 목포에서 가장 활발한 교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찰도 바로 보현정사이다. 보현정사는 직업별로 신도회를 조직하여 법회를 보고 있다. 1만 명 이상의 신도 수를 가진 신도회는 현재 13개 조직(회)이 개별 법회날짜를 정하여 매달 쉬는 날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일요법회도 천불전을 지은 1977년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목포지역 다른 사찰에 비하면 신도회의 규모가 월등히 크고, 조직 구성과 운영이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목포시의 복지관계 사업도 거의 보현정사가 맡아서 운영 중이다. 보현정사 옆에 건립된 푸른마을 노인요양병원은 전국에서 가장 좋은 요양병원으로 자부하고 있다. 선창의 하나노인복지관도 60세 이상 노인이 2천 4백 명이나 이용 중이다. 원래 천주교 수녀들이 운영하던 노인복지관을 목포시의 권유로 보현정사에서 맡아 운영하게 되었고, 하나은행에서 후원을 받게 되면서 하나노인복지관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이 외에 2000년대 초반부터 납골당을 지어 운영 중이며, 유치원도 운영했었지만 현재는 문을 닫았다. 보현정사는 재단법인으로 운영되어 그 누구도 재산을 함부로 손댈 수 없으며, 사단법인 영산정각원을 별도로 설립하여 복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그림 7 보현정사 대웅전



그림 8 보현정사 전경

보현정사의 창건주인 영산 정각스님(김태현)은 현재도 법륜종의 종정으로서 절에 주석 중이다. 스님은 실상사 백장암 강침하스님에게 출가하여 백담사, 백양사를 거쳐 1965년경 대흥사의 총무국장을 지냈다. 3년간의 소임을 마친 후에는 진도 옆 죽도(무인도)에 들어가 2년 2개월간 홀로 수행하였다. 1960년대 후반 비구-대처간 싸움이 한창일 때, 스님은 홀로 독립해야겠다는 결심을 세우고 경희대 한의대의 전신인 대구 동양한의대에서 침구학을 배우기도 했다. 침구협회 회원으로도 등록되었던 스님은 이후 목포에 보현정사를 세우고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다고 한다. 목포에 정착한 이후 종단 싸움에 환멸을 느껴 대흥사 승적을 버렸다. 보현정사는 처음에 한국불교태고종 사찰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태고종 내에서도 실권 다툼이 벌어졌고, 급기야 절의 땅을 교회에 파는 사태가 일어나자 충청도 3백여 개 사찰을 중심으로 태고종에서도 탈종하였다. 이때 한국불교법륜종을 창종하였고, 정각스님은 창종 주체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렸다고 한다. 스님은 교육원장과 종회의장을 거쳐 종정을 역임했고, 최근에 총무원이 새로 개편되면서 다시 종정을 맡고 있다. 현재 법륜종 스님들은 출가하면서 보현정사에서 수계를 하고 교육을 받고 있다. 정각스님 본인이 자운스님에게서 계를 받았고, 법륜종의 전계사(傳戒師)이기도 하다.

정각스님이 처음 목포에 왔을 때, 불교의 사회 활동은 굉장히 미미했다고 한다. 방승 자문이나 교도소

교화 등은 원불교 정녀가 담당하고 있었고, 스님들의 활동은 거의 없었다. 이에 스님은 보현정사를 창건하고 1년 만에 교도소 교화위원, MBC해설위원, KBS자문위원, 시정자문위원 등을 맡아 불교의 사회지분을 확대하는데 노력하였다. 보현정사 창건 시부터 꾸준한 활동을 경주해온 결과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대규모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으로 이어졌고, 오늘날 목포불교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정각스님과 보현정사의 교화활동은 목포지역 타 사찰에도 크게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 사찰별 구체적인 활동 기록이 없는 실정이므로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볼 수는 없다. 다만, 1993년 12월에 목포불교사암연합회가 창립⁷⁷⁾ 될 수 있었던 것은 목포불교의 사회 활동 필요성과 발전에 대한 제 사찰(스님)의 자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때 회장으로 보현정사의 정각스님이 추대되었던 것을 보면, 그동안 목포지역에서 정각스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었는가를 짐작케 한다. 해방 직전 송만암 스님과, 그 뒤를 이은 박만성, 정단암 스님의 역할을 1980년대 이후에는 정각스님이 맡아 왔고, 사암연합회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목포불교가 유지·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목포불교사암연합회는 13개 사찰이 참여 중이며, 한 달에 한 번 정기모임을 통해 근황을 공유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연말 불우이웃돕기,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산사음악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업 활동을 통해 목포불교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목포에는 사암연합회에 속한 13개 사찰 외에도 개인사찰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특정 종단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앞서 살펴보았던 해방 이후 사찰들은 그 자세한 연혁을 알 수 없던 흥관사나 청명사를 제외하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가 사암연합회 소속 13개 사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목포시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내 주요 사찰은 양을산의 길상사, 보현정사, 법주사, 선웅사와 유달산의 달성사, 학암사, 정혜원, 약사사, 관음사, 해봉사 등 10개소이다. 이 중 길상사는 송광사의 분원으로서 1997년에 공식 개원한 사찰이다. 그리고 1987년 『목포시사』에는 한성사가 1982년 9월 15일에 창건되었다고 되어 있다. 참고로 2008년에 나온 『한국불교총람』(대한불교진흥원)에 목포를 주소로 하는 사찰을 집계해 보면, 대략 30여개 차나 된다.⁷⁸⁾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사찰 10여개 소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개인사찰일 것으로 보이며, 대략 비슷한 수치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연식 |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77) 『불교신문』 1993년 12월 20일.

78) 한국불교총람 편찬위원회, 『한국불교총람』, 대한불교진흥원, 2008.